



WORLD
WARCRAFT
BATTLE FOR AZEROTH



좋은 전쟁

로버트 브룩스 저



© 2018 Blizzard Entertainment, Inc.

대족장의 명령

누워있는 아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지 몇 주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안식을 찾은 것이다.

‘애가 걱정돼요.’

‘괜한 소리.’ 사울팽은 오래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얼음왕관 성채의 차갑고 딱딱한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우리 애들이 변하고 있어요. 당신도 변했고요.’

‘흑마법사들이 내게 선물을 주었소. 난 전에도 강력한 전사였지만 지금은 질풍과도 같소. 전쟁 그 자체지. 난 죽는 날까지 우리 종족의 영광을 위해 싸울 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덧없는 말이었다. 얼마나 타락한 말인가.

사울팽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얼음왕관 성채에서 걸어 나왔다. 용사 수십 명이 사울팽을 바라보았다. 호드와 얼라이언스 병사들 모두 그에게 길을 내주었다. 슬픔에 잠긴 사울팽에게 말없이 경례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아들은 다른 길을 걷게 하고 싶어요.’

그 아이는 이쪽 세상에 머물게 해주세요. 탈 없이 잘 키울게요.’

얼음왕관 성채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차갑고 건조한 노스렌드의 공기가 어느새 따스하고 습한 나그란드의 공기로 바뀌었다. 사울팽은 가족묘지 근처에 만든 마른 장작더미 위에 아들을 내려놓았다. 수의는 가라다르에서 가져온 소박한 옷이었다. 아들은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가기 전에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아이는 내 심장이요, 부인. 내 세상의 중심이지.’ 사울팽은 기억을 더듬었다.

햇불을 들어 장작더미에 대자 주황색 불꽃이 잔가지로 옮겨붙더니 이내 큼직한 장작에도 불이 붙었다. 불길에 거세지자 푸른색과 흰색 불꽃이 넘실거리며 춤추기 시작했다. 그는 화염이 아들의 몸을 삼키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었다.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으리라. 그는 아들의 피부가, 살점이, 뼈가 불에 타 사라지고 마침내, 재로 변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이 이름은 드라노쉬야. 드레노어의 심장.’



바로크 사울팽은 몸을 일으켰다. 적막에 싸인 그의 처소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그의 숨소리뿐이었다. 그의 뺨은 어느새 축축이 젖어 있었다.

‘꿈이었군. 이런 쓸데없는 꿈을 꾸다니.’

그는 여느 축복받은 이들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의 진실을 알려주는 꿈을 꾸 적이 없었다. 어쩌면 다행이었다. 그러한 꿈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패배가 예언된 전쟁에 출전하는 전사의 심정을 상상해보라. 승리가 이미 정해진 전쟁이라면 그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만큼 전사에게 치명적인 것은 없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사울팽의 꿈은 그저 과거의 추억이 뒤죽박죽 떠오르는 단순한 것이었다.

가끔은 수십 년 전 참전했던 전쟁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다. 그는 꿈속에서 샤프트라스의 거리를 정신없이 달리거나, 드레나이의 비명에 귀가 얼얼하거나, 흑마법사의 붉은 안개에 중독된 전사들의 쥐어짜는 듯한 신음을 들곤 했다. 스톰윈드의 거리에서 인간을 뒤쫓거나, 도시가 불타오를 때 살갓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는 대학살의 순간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타락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 무고한 자들이 흘리는 피 앞에서 불명예를 떠올리지도 않았으며, 망설임 또한 없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후회가 밀려왔다. 단검처럼 날카로운 수치심이 때때로 그의 몸을 관통한다. 타락한 피에서 해방된 그 날만큼 엄청난 고통이다. 그가 싫어한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고통을 반겼다. 그가 자초한 것이었기에. 해가 갈수록 고통은 점점 큰 무게로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리고 명예롭게, 아무런 불평 없이 고통을 감내해냈다. 그것은 가까스로 건진 목숨에 대한 작은 대가일 뿐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전장에서 단칼에 목숨을 잃는 영예로운 죽음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는 오히려 홀로 장수를 누리는 저주에 걸린 건 아닌지 문득 의문이 들곤 했다.

자신의 검소한 침상에서 일어난 그는 창가로 다가가 오그리마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동이 트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밤의 스산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갑자기 남쪽에서 소란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듀로타의 사막으로 이어지는 정문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처소는 오그리마에서 가장 높은 탑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비명과 경고를 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적은 지난 수년간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불타는 군단의 아제로스 침략은 이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악마들은 아즈샤라의 뒷문을 뚫고 쳐들어오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오그리마는 그때마다 힘겹게 승리를 쟁취해냈다.

지금은 그때와 같이 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문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밤 보초를 서고 있는 경비병이 부하에게 외치는 화난 듯한 고함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자가 또 도망쳤나 보군.’ 사울팽은 추측했다.

근래 몇 주 동안 오그리마에서 얼라이언스를 목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다. 최근 호드 대족장이 스톰윈드의 안두인 린 국왕에게 굴욕을 안겨준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도시 전체에 첩자가 넘쳐나고 있었다. 첩자의 수가 너무 많아 경비병들은 망상에 시달릴 지경이었다.

첩자들은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리한 전략이었다. 만약 호드를 살해한다면 양 진영 간의 분노와 충돌을 일으켜 전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단순히 호드를 지켜보고만 있다. 그것도 벌써 몇 주째...

아무리 바보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다. ‘너희들은 전쟁을 벌일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의 동태를 살살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만일 대족장의 명령으로 얼라이언스 첩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만한 최정에 첩자 사냥꾼들을 오그리마에 풀어 놓는다면,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여파는 대족장에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리라. 대족장은 일부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 좋을 대로 지켜보거라.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일 테니.’ 이것이 대족장의 대답이었다.

사울팽도 이에 동의했다. 언제나 그래왔듯, 전쟁의 계절은 기어코 도래할 것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는 다시 침상에 몸을 누었다. 오늘은 대족장이 요청한 접견이 예정되어 있다. 미리 눈을 붙여두는 게 좋을 터였다.



동이 트자마자 사울팽은 도시 경찰에 나섰다.

그가 명예의 골짜기에 도착했을 땐 이미 눈부신 햇살이 오그리마의 방벽을 비추고 있었다. 바쁜 날이었다. 수도사들은 신입생 교육에 눈코 뜰 새 없었다. 판다렌의 지도자인 지 파이어포우가 손수 무술 시범을 보이는 중이었다. 파이어포우는 사울팽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무술 시범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인사를 건넸다. 사울팽도 인사에 화답하며 가슴 앞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는 자리를 떠났다.

후문은 이미 빌지위터 항만에서 온 상인과 여행자들을 위해 활짝 열려있었다. 경비병들은 지금 막 교대를 마친 상황이었다. “첩자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손에 큰 흉터가 있는 오크가 보고했다.

“첩자 놈들. 한 놈이라도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있으면 좋겠군.” 단검 한 쌍을 허벅지에 찬 고블린이 내뱉듯 말했다.

사울팽은 후문을 떠나 북쪽 절벽으로 향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는 정기의 골짜기를 끝으로 경찰을 마쳤다. 이윽고 정문에 도착한 그는 평소와는 다른 경로를 택하기로 했다. 그는 오그리마를 떠나 해안으로 향했다. 소수의 상인과 호드의 해군 함선이 정박해있었다. 짐을 내리고 다음 항해를 위한 물품을 싣는 중이었다. 예전엔 훨씬 많은 수의 배들이 정박해있었지만, 불타는 군단의 공격에 당한 후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의 숫자가 확연히 줄었다.

사울팽은 흥벽 위로 기어오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그림자를 따라 바다로 향했다. “다 보고 있다.” 그는 중얼거렸다. 밝은 대낮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도시의 방벽을 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첩자들이 요주의 감시 대상으로 대군주 사울팽을 꼽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슬슬 대족장을 만나야 할 시간이었다. 사울팽이 정문으로 돌아가 도시로 들어가려는 그때, 흥벽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랬다. 타우렌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린 후, 한 오크의 날카로운 응답이 들려왔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사울팽은 근처의 사다리를 이용해 흥벽을 올랐다. 저 경비병들이 누군지 간에, 오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모르카 브루구는 또 한 모금 들이기더니 큰 소리로 트림을 내뿜었다. “거기서 내가 이 오래된 물건을 발견했지.” 그녀는 자신의 허벅다리에 묶인 보호대를 주먹으로 두들겼다. 거의 반으로 쪼개진 상태였지만, 밤이 되면 희미한 초록빛으로 빛나는 보호대였다. 그 물건은 그녀의 방어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근무 중 그것을 착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당당하게 얻어낸 물건이었다.

“내가 망치로 지옥의 군주의 머리를 내리쳤지.” 그녀는 손으로 무언가를 깨부수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는 이 물건을 쓸 수 없는 신체가 돼버린 거야.”

그러자 다른 오그리마 경비병이 나직이 탄성을 내질렀다. “그럼 네가 직접 지옥의 군주를 죽였단 말이야?” 타우렌이 말했다.

‘그의 이름이 뭐였지? 라나구? 뭐 비슷한 이름이겠지.’ 그는 박장대소하며 몸을 요란하게 흔든 나머지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흥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타우렌은 모르카보다 두 배 정도의 술을 마신했었다. 사실 그는 아침부터 몰래 숨겨둔 술 주머니를 몇 개 마신했었다.

모르카는 타우렌의 얼굴에 손을 들이밀더니 그가 움찔할 정도로 그의 코를 움켜쥐었다. “난 혼자서 처치했다고 말한 적 없어. 이 못난 뿔 멍청이야.”

타우렌은 모르카의 손을 뿌리치더니 큰 소리로 콧방귀를 끼었다. “그래, 계속 내 뿔 얘기나 하라지. 그건 네가 내 뿔에 푹 빠졌다는 증거라고.”

“아니, 난 이 보호대에 푹 빠졌어.” 모르카는 이렇게 말하며 주변의 모두가 웃음을 터뜨릴 만큼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전장에는 30명도 넘는 전사들이 있었다고. 불쌍한 구라크는 불에 타서 살아남지 못했지.” 모르카는 다시 술을 흘쩍였다. 그리고는 술을 더 꺼냈다. 구라크를 위하여. 그도 원하는 바였을 거야. 그녀는 오른편의 경비병에게 술 주머니를 넘겼다. “지옥의 군주는 결국 쓰러졌어. 하지만 숨은 붙어있었지. 그리고는 아제로스가 불타게 될 거라고 지껄이더군. 악마들이 그렇지 뭐. 그래서 내가 망치로 그 입을 다물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맞아. 바로 이 몸이 지옥의 군주를 죽였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첫 삼을 떴으니까.”

라나구는 모르카의 허벅다리에 묶인 보호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했다. 그는 누가 봐도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다. “이 보호대가 지옥 군주의 다리에 맞았을 리가 없어. 그의 다리는 네... 집만큼 거대했다고.”

그녀는 다시 보호대를 감싸 쥐며 씩 웃었다. “이건 그의 손가락에 있던 거야. 내 대장장이 친구가 조금 손을 봐줬지, 그리고...”

“이 멍청이들,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모르카가 한 말들은 모두 고향에 묻히고 말았다. 평소 같았으면 겁에 질려 몸이 뿔뿔하게 굳었을 테지만, 지금 모르카의 몸은 술에 절어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지으며 사다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진작 알아챈 그녀였다.

“안녕하세요. 사울팽 대군주님!” 그녀가 인사했다.

모르카의 의식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것을 흘려들었다. 근무 중 음주가 발각된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 무용담의 영웅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십자로에서 있었던 전투, 그곳에 저도 대군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불타는 군단과 싸워 승리하라, 호드를 위하여!” 모르카는 특히 마지막 문장을 목청껏 외치며, 그녀의 외침이 힘의 골짜기 가장자리의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는 것을 듣고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구호에 아무도 호응하지 않자 즐거운 마음이 이내 사그라들었다. 동료들은 겁에 질린 듯했다. 라나가스인지 뭔지 하는 그놈조차도.

마침내 모르카는 사울팽의 표정을 확인해보았다. 이번엔 제대로 보았다.

“십자로라고 했나. 자네도 거기 있었나?” 사울팽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대군주님!” 그녀는 살짝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부서진 섬에도 갔는가?”

“아닙니다, 대군주님!”

“살게라스의 무덤에 진격해보았나? 불타는 군단의 본거지에서 싸워본 적이 있는가?” 사울팽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다.

“저는 호출받지 않았습니다.” 모르카는 딸꾹질을 하더니 긴장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대군주님.”

사울팽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호출받지 않았다고? 자네는 군인의 임무에 호출을 따지는가? 그렇다면, 맨정신으로 오그리마를 경비하는 임무에 공식 호출된 것으로 생각해!”

사울팽이 모르카의 얼굴에 대고 외쳤다. 그녀는 감히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었다.

사울팽은 더욱 크게 외쳤다. “아니면, 경비병들이 웃고 떠들며 취해있는 동안 얼라이언스 첩자들이 도시 방벽으로 기어들어 왔다고 자네가 직접 대족장께 설명할 텐가!”

모르카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을 내뱉고 말했다. “얼라이언스나 그들의 첩자나 될 대로 되라지요. 그놈들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망칠 순 없습니다.”

사울팽은 놀란 듯했다. 하지만, 잠깐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미소가 아닌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놈들을 대신 경비로 앉혀야겠군. 네놈들보다 훨씬 나을 테니!” 사울팽은 모르카의 손에 들린 술 주머니를 낚아챘다. 그는 술을 맛보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뱉어냈다. “그놈들은 적어도 제대로 된 술맛은 알겠지. 이것보단 차라리 악마의 피가 낫겠군!”

그는 술 주머니를 흥벽 밖으로 내던지고 벽을 따라 죽 늘어선 철제 횃불대 중 하나를 향해 걸어갔다. 횃불은 밤에만 필요한 것이지만, 규정상 횃불은 항상 켜두어야 했다. 이 횃불대의 불은 이미 몇 시간 전에 꺼진 뒤였다.

“차갑군! 이 대륙의 모든 얼라이언스 도둑놈들을 위해 어두운 침입로를 제공하다니, 참으로 친절하구나!” 사울팽은 경비병들에게서 등을 돌려 오그리마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다 꺼진 횃불이 들려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얼라이언스여? 우리 경비병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지 않겠나?”

그때, 사울팽의 손에 들린 횃불 가장자리에서 작은 불꽃이 일렁이다 잠시 불이 붙는 듯하더니 바람과 함께 꺼져버렸다.

사울팽은 횃불을 바라보았다. 모르카도 횃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횃불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불꽃은 다시 고개를 내밀어 잠시 일렁거렸다. 그것은 마치 사울팽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흰 연기 자국만을 남긴 채 불은 다시 꺼졌다.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모르카는 눈을 크게 떴다.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을 지켜보는 얼라이언스 첩자가 있었다.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첩자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사울팽은 횃불대에 횃불을 다시 꽂아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모르카는 눈을 감았다.

이윽고 사울팽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크게 울려 퍼졌다. 사울팽은 그들이 얼치기라며 조상을 모욕하고 심지어 그들이 전사도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나 해대는 풍자라며 폭언했다. 사울팽은 경비병들이 모두 불타는 군단의 손에 죽는 편이 전투에서 살아남아 호드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심지어 암흑 티탄조차 그들의 악취를 맡고 도망쳤을 것이라며, 살게라스가 아제로스를 침략했을 때 경비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해 한탄했다.

사울팽의 말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다. 모르카는 확신했다. 지금으로부터 천년이 흐른 뒤, 그녀의 자손들은 두개골을 흔드는 대군주의 분노에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할 것이다.

사울팽의 목소리가 다시 근엄해졌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다음 교대 시각까지 자리를 지킬 것을 명했다. 그리고 그 다음 교대 시각까지. 그다음에야 타당한 처벌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울팽은 자리를 떠났다.

경비병들은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위치로 돌아갔다. 휘청거리는 몸으로 도시로 이어지는 길을 지켜보았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리라.

시간이 흐른 뒤, 모르카는 사울팽이 그들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내 안도했다. 어쨌든, 사울팽이 처벌을 내릴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대족장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각은 이미 지났다. 사울팽은 도시로 발걸음을 돌리며, 얼굴에 자꾸 번지는 미소를 떨치려 애썼다.

오그리마의 경비병들이 근무 중 술을 마신다? 사령관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생존자로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대부분의 호드가 아직도 불타는 군단의 패배에 들떠있다. 호드는 전멸할 운명이었다. 많은 수의 용맹한 호드 부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놀라우리만치 엄청난 활약을 보인 몇몇 용사들의 노력으로 호드의 세계는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 모두가 그렇게 쉽게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을 겪은 후에는 살아있음에 축배를 드는 것이 당연한 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축하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는 따로 있는 법. 그 경비병들도 푹푹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롬마쉬 요새 입구에는 경비병이 없었다.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대족장이 지닌 힘은 자신을 보호하고도 남을 정도이니.

사울팽은 전략 회의실로 들어갔다.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혼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 역시, 이상한 일이었다.

“대족장, 우리 둘뿐이오?” 사울팽이 물었다.

“나타노스는 밖에 있소. 오늘은 얼라이언스가 엿듣지 못하도록 그가 지켜줄 것이오.” 그녀가 대답했다.

“그를 보지 못했소만.”

“물론, 보지 못했을 것이오.” 그녀가 말했다.

그는 대족장과 함께 회의실 정 가운데 놓인 커다란 탁자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아제로스와 대륙의 세부 지도가 놓여 있었다. 지도에는 심지어 유랑도까지 초자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그 섬은 마치 부서진 섬을 향해 헤엄쳐가는 것처럼 보였다. 불타는 군단이 전쟁에 패배한 지금은 부서진 섬에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사실에 판다렌 탐험가들이 매우 기뻐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 봤자 예전보다 아주 조금 더 안전할 뿐이겠지만 말이다.

지도에는 전략 회의를 위한 표시들도 있었다. 서울팽에게 그리 놀랄만한 정보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알려진 얼라이언스 함대의 위치와 얼라이언스 정찰병과 탐험가들이 고블린과 충돌한 위치가 실리더스 근방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얼라이언스는 호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지역 내에서 분란을 일으킬만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지도 위의 표시만으로 서울팽이 이곳에 불려온 이유를 추측하기는 힘들었다.

“대군주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소. 만일 내가 스톱윈드의 파괴를 명령한다면, 어찌하겠소?” 실바나스가 말했다.

서울팽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대족장이 농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놀리며 즐거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실바나스는 절대 농담을 하는 법이 없었다. “무슨 말이오?” 서울팽이 말했다.

대족장은 얼라이언스 군사력의 중심을 마치 엄지 하나로 깨부술 수 있다는 듯이 지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다. “간단한 질문이오. 내가 오늘 당장 스톱윈드의 파괴를 명한다고 상상해보시오. 어찌하시겠소?”

‘당신에게 막고라를 신청해 결투를 벌일 것이오. 분명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서울팽은 속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질문은 간단했고 그에 대한 답은 절망적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들을 깎아 만든 작은 모형들이 테이블의 가장자리에 빙 둘러 있었다. 이 모형은 각기 다른 병력을 상징한다. 서울팽은 먼저 얼라이언스 병력을 염두에 두며 지도에 표시된 스톱윈드 주변에 모형들을 배치했다. 공성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흥벽 위에는 병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쇠뇌와 대포를 배치해 방벽을 뚫으려는 적들에게 퍼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언덕에 있는 그리핀들은 공중에서 적의 측방 공격을 방해할 것이다. 항구에는 배가 있다. 모든 전방에는 마법사들을 배치할 것이다. 스톱윈드는 천연의 요새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견고한 방어를 자랑한다.

서울팽은 이곳을 공격하기 위해 호드 병력을 이동시켰다. 그다지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직접적인 공격으로는 스톱윈드를 함락시킬 수 없소, 특히 육지에서는 더더욱.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아군 병력을 옐린 숲으로 이동시키기에 함선이 부족하오.” 서울팽은 스톱윈드 해안에 근접한 바다를 가볍게 두드렸다. 부서진 해변에 파괴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얼라이언스 해군은 그들의 약점이오. 우리의 해군이라면 이들을 기습할 수 있을 것이오. 어찌면 우리의 함대를 이용해 부두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도시 함락은 어렵소.”

호드의 함대 역시 이전의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장담할 순 없지만, 호드의 함대로 어찌어찌 얼라이언스 함대를 장악한다 해도 지상 공격에서 맞닥뜨리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남게 된다. 도시를 점령하고 지켜낼 정도의 육군 병력을 이동시키기에 배가 부족한 것이다. 스톱윈드에서의 지상 전투는 패배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적은 방벽의 방어 병력을 항구로 보내 아군 병력을 몰아내려 할 것이오.” 서울팽은 말을 마쳤다.

“동의하오. 큰 난리가 나겠지.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해상에서만은 우리의 병력이 얼라이언스 병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의 함대 전체를 공격에 집중시켜야 하겠지. 우리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얼라이언스 국가들이 우리 영토를 침략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사울팽 대군주, 이 모든 것을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스톰윈드를 함락시킬 수 있겠소?” 실바나스가 말했다.

사울팽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족장, 지금 내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이라고 말해주길 바라오?”

“그렇지 않소.” 실바나스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그를 꿰뚫는 것만 같았다. “스톰윈드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스톰윈드는 최종 목표일 뿐이오. 어떻게 하면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소?”

그 말은 사울팽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을 들여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오.”

대족장은 대답했다. “룩타르 오가르.”

사울팽의 가슴은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전쟁을 열망하시오? 지금껏 그 모든 일을 겪고도?” 그가 탁자 위에 있던 돌 모형들을 내리치자, 모형들은 쟁그랑 소리를 내며 전략 회의실 바닥에 흩어졌다. 엄니와 이빨을 덮고 있는 그의 입술은 팽팽하게 당겨졌다. 호드가 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승리를 쟁취하려면 최소 수천 번의 전투, 아니 수천 번의 승리가 있어야만 겨우 가능할 정도이다. 그에 따르는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보상은 과연 무엇인가? 얼라이언스를 학살하고 몇몇 도시를 불태우는 것? 전쟁 중 목숨을 잃은 사랑하는 이들과 잿더미로 변한 고향을 보면서도 호드는 과연 승리를 축하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가로쉬 헬스크림이 아니오. 대체 왜 호드를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 넣으려 한단 말이오?”

사울팽의 분노를 코앞에서 보고도, 실바나스의 눈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얼라이언스와의 평화에 협조한다면, 그 평화가 1년은 갈 것 같소?”

“그렇소.” 사울팽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2년은? 5년? 10년? 50년은 어떨 것 같소?”

사울팽은 자신을 점점 조여오는 텃에 빠진 듯했다. 좋지 않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불타는 군단을 상대로 함께 싸웠소. 그렇게 생긴 유대감은 쉽게 깨질 수 없는 것이오.”

“시간은 모든 유대를 깰 수 있지.” 실바나스는 탁자 너머로 몸을 굽혔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대군주가 믿는 것은 무엇이오? 평화를 5년, 혹은 50년 동안 지속하는 것?”

사울팽도 탁자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대족장의 얼굴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아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내가 믿는 것은 중요치 않소, 대족장.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오?”

“나는 길니아스에서 추방당한 자들이 자신들을 몰아낸 호드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란 사실을 믿소. 그리고 로데론의 인간들은 내 백성이 도시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겠지. 실버문의 동맹군과 다르나서스의 친족 간에 생긴 고대의 양금은 쉽게 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소.” 실바나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기분 좋은 미소는 아니었다.

“섬에서 자신들을 쫓아낸 것이 누구인지 검은창 부족이 똑똑히 기억하리란 사실을 믿소. 당신 또래의 오크들이 그 구역질 나는 수용소에서 절망에 몸을 뒤틀며 인간의 쓰레기를 먹고 겨우 연명한 수년간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소. 나는 1차 대전에서 엄청난 파괴를 낳았던 호드의 끔찍한 옛이야기를 모든 인간이 기억하고 있음을 믿소. 그리고, 당신네 종족이 불명예를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했건 인간은 1차 대전쟁을 온전히 오크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소. 그리고 첫 포세이큰이 한때는 충성스러운 얼라이언스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또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소. 우리는 얼라이언스를 위해 목숨을 버렸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보상이라곤 짐승처럼 사냥당하는 것이었소. 호드의 방식으로 전장에서 직접 평화를 쟁취하지 않는 한, 얼라이언스와의 평화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소. 그리하여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사울팽, 어차피 닥쳐올 것을 미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यो?”

‘그녀는 뺨속까지 차가운 존재로군.’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울팽은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에 관해 의논하는 것이 좋겠소. 당장 오늘 전쟁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럴 계획이오. 사울팽. 당신은 내가 아는 이 중 스톰윈드와 오그리마를 모두 정복한 유일한 자요. 당신은 지금 우리의 병력으로는 직접 스톰윈드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소. 하지만 얼라이언스 쪽에서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소? 오그리마는 적의 기습 공격을 물리칠만한 천연의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소?”

‘아니오.’ 사울팽은 즉각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 생각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가 반론을 생각해낼 때마다 그 생각은 곧 사그라들었다. 오그리마는 스톰윈드에 비해 훨씬 노출되어 있다. 오그리마의 항구는 도시 방벽 밖에 있어 방어에 취약하다. 이는 가로쉬 헬스크림에 저항했던 내란 당시 이미 증명된 바였다. 오그리마를 다시 함락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울팽은 수년에 걸쳐 도시 방어를 정비해왔다. 하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듀로타와 아즈샤라에 있는 우리의 해군과 육군 부대를 모두 빼낸 후, 도시를 고립시키고 두 방향에서 공성전을 벌인다. 그리고 도시가 굶주림에 시달릴 때까지 기다린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의 내 임무요, 대족장.”

“만일 생긴다면?”

사울팽은 씩씩하게 웃었다. “그렇게 된다면, 호드는 당장 전쟁에 뛰어들어 한날에 명예롭게 죽을 것이요. 이 도시에 갇힌다면 천천히 죽어가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 테니.”

실바나스는 그와 함께 웃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막는 것이 내 임무요.”

“스톰윈드의 애송이 왕이 당장 내일 전쟁을 벌이진 않을 것이요.” 사울팽이 말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젠 그레이메인이 곁에 있는데도? 두고 볼 일ियो.”

사실, 그것이 걱정거리였다. 사울팽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불타는 군단과의 전쟁이 한창일 무렵, 그레이메인은 실바나스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으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스톰윈드의 일부 비행선들이 파괴되었다.

안두인의 허가 없이 그레이메인이 멋대로 공격을 명령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울팽이 알고 있는 한, 그레이메인은 그 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이 내포한 의미는 골칫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으며, 어떤 가설을 세우든 간에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되었다. 그 늙은 늑대인간은 호드를 상대로 한 전쟁을 끊임없이 얼라이언스에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바나스의 눈이 반짝였다. “그 애송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소. 성인이 된 왕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로 한다면 어떨 것 같소?”

그녀는 지도를 가리켰다. 실리더스에는 커다란 표시가 있었다. 그곳은 암흑 티탄의 검이 세상을 뚫고 지나간 자리이다. “안두인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내가 무얼 하던 힘의 균형이 바뀌게 될 것ियो. 아제라이트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소, 사울팽. 아제라이트의 잠재력은 우리도, 얼라이언스도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그 광물이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열 것이란 것뿐. 20년 후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 것 같소? 100년 후에는?”

사울팽의 목소리는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100년의 평화는 가치 있는 목표요.”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다시 말을 주워 담고 싶어졌다. 그는 실바나스가 무슨 대답을 할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자신이 동의할 것이란 것도.

대족장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만일 100년의 평화가 양 진영을 전멸시키는 전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목표가 아닐 것ियो. 그것은 비겁한 자의 변명일 뿐, 현재의 안위와 미래를 맞바꾸는 짓에 불과하오. 호드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은 불에 산 채로 태워지며 우리의 기억을 저주할 것ियो.”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인생이 우리에게 약간의 자비를 허락했다면, 당신과 나는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을 것ियो. 우리 둘 다 전쟁은 지겨울 만큼 겪어왔지만, 마지막이 될 전쟁은 아직 본 적이 없소.”

‘그 점에서 내 생각과 일치하는군.’ “이미 마음을 정한 거요, 대족장? 우리를 전쟁으로 몰고 갈 셈이요? 엄청난 대가를 감수하고?”

“기회가 내 눈앞에 있소. 그 기회를 잡을 만한 계획이 필요하오.” 실바나스가 말했다.

“만일 내가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यो.”

“그럼 당신이 말하는 기회가 뭔지 설명해보시오, 대족장. 내 눈엔 전혀 보이지 않소만.” 그가 말했다.

“아니, 당신도 알고 있소. 이미 언급했잖소. 지금 당장 스톱윈드를 침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요?”

“배가 부족하기 때문이요.” 사울팽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그녀의 얼굴을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그게 어째서 기회라는 거지?’ “우리는 배를 운송에 쓰거나 전쟁에 쓸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용도로도 쓸 수 있소...”

의문에 대한 해답이 갑작스레 그의 머리를 강타하자, 그의 몸은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그는 무릎에 힘이 풀린 나머지 탁자 위에 양팔을 올려 몸을 기대야 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실바나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다.

그녀는 사울팽이 보지 못하던 진실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온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몇 초 전만 해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한 것 같군, 그렇소?” 실바나스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불타는 군단으로부터 호드를 지켜내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몇 년째 일종의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중이다. 양 진영 모두 강력하며, 전 세계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한쪽에서 약간의 공격적인 움직임만 보여도 즉각적인 보복으로 이어질 터였다. 이러한 연유로, 바리안 린은 오그리마 공성전 후에도 호드를 공격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만일 싸움이 벌어졌다면 아제로스는 결국 멸망했을 것이다. 세계의 종말을 막기 위해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총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부서진 해변은 균형을 변화시켰다. 그렇지 않은가? 불타는 군단에 맞서기 위한 처참한 반격으로, 양 진영의 함대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게다가 그 이후로 몇 달씩 이어진 전투로 인해 손실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 모두 대륙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병력을 강화하거나 부대를 다른 전방으로 보낼 수단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우리의 해군 병력이 복구될 때쯤이면, 바다는 다시 사나워질 것이다.’

변화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변화가 생긴 후에는, 그렇다, 다시 교착 상태가 시작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전쟁에 따르는 대가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다.

사울팽이 아무리 기를 쓰고 부정하려 해도, 어쨌든 실바나스가 옳았다. 언젠가 전쟁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양 진영이 강력한 병력을 갖춘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모든 국가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수의 아제로스 종족들이 전쟁 중 멸종되어 갈 것인가?

‘하지만 아직, 양 진영 모두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약점을 이용할 시간은 제한적이다.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대족장은 우리가 칼림도어를, 대륙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얼라이언스의 주요 병력은 동부 왕국에 주둔하고 있었다. 호드 병력은 칼림도어에 주둔하고 있다.

실바나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울팽은 이미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호드가 공격해야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하이잘 산? 하늘안개 섬? 아니다. 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륙 전체로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 병력의 진정한 중심은 단 한 곳이다. “다르나서스,” 그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다. “세계수 텔드랏실이군. 대족장, 만약 이게 가능한 일이라 해도...”

“가능하다고 했소? 우리의 병력을 어둠해안으로 이동시켜 세계수를 차지한다면, 얼라이언스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소?”

‘아니, 막을 수 없다. 적을 기습할 수만 있다면. 호드가 잿빛 골짜기에서 발이 묶이지만 않는다면...’

“대군주,” 실바나스가 압박해왔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십시오. 가능한 일이요?”

“가능하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는 엄청날 것이오.” 사울팽은 천천히 말했다.

“그렇군.”

“우리는 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은 아니오. 우리가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는다면, 얼라이언스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하오. 그렇다면, 동부 왕국에 있는 우리의 도시들이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오.” 사울팽이 말했다.

“특히 내 도시들이.” 실바나스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할 말을 그녀가 대신 말한 것에 안심했다. 그레이메인의 입장에서 얼라이언스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실바나스의 권좌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얼라이언스가 우리를 상대로 연합한다면, 과연 우리가 언더시티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들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실바나스가 다시 미소지었다. “그들이 분열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호드가 승리한다.’ “어떻게 그런 일을 바라겠소? 우리가 나이트 엘프의 본거지를 기습한다면, 얼라이언스 전체가 복수하려 들 텐데.”

“처음엔 그럴 테지. 그들은 분노하며 우리의 공격에 반기를 들고 뭉칠 것이오. 하지만, 나이트 엘프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소? 그들은 호드에게 점령당한 그들의 본거지를 되찾아 줄 것을 얼라이언스에게 요구할 것이오.”

‘하지만 얼라이언스는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함대가 없는 칼림도어에서는.’

이번에도 그녀는 사울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기회를 보게 했으며, 전 세계가 그의 발밑에 있는 듯했다. 마치 대혼란의 소용돌이처럼, 전략적 암시가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들이 다르나서스를 되찾을 결심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이오.”

“잘 알고 있군, 대군주. 잘 생각해보시오.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언더시티를 점령하려 들겠지요... 하지만 다르나서스는 이미 우리의 인질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나이트 엘프는 대족장이 그들의 도시를 파괴할까 두려워 대족장의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실버문 침략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요.” 사울팽의 생각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가 옳다.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얼라이언스가 다르나서스 탈환에 동의한다 해도... 길니아스인!”

실바나스의 눈이 그녀가 걸친 두건의 가장자리에 감추어졌다. “그들은 수년 전 나라를 잃었지. 길니아스인들은 칼도레이를 먼저 도우려는 얼라이언스의 행동에 격분할 것이요. 스톰윈드의 애송이 왕은 정치적 혼란에 휘말릴 테지. 똑똑한 아이긴 해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켄 그레이메인과 말퓨리온 스톰레이지, 그리고 티란데 위스퍼윈드가 각자 다른 대응을 왕에게 요구한다면 어찌 될 것 같소? 그 아이는 자신의 부친만큼 위대한 왕이 아니요. 그 아이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그저 예의일 뿐, 의무는 아니란 말이지. 안두인 린은 영락없이 꼭두각시 왕으로 전락할 것이요. 얼라이언스가 단합하지 못한다면, 각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거요. 결국, 모든 군대는 우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본거지로 돌아갈 것이요.”

“그것이 바로, 스톰윈드를 함락시키는 방법이군.” 사울팽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수천 번의 승리 없이도 얼라이언스를 멸망시킬 수 있다. 단 한 번의 승리로 충분하다. 단 한 번의 전략적 압박으로 얼라이언스가 느끼는 압박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은 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도 못할 것이다. “대군주는 얼라이언스를 안에서부터 파괴하면 되요.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의 병력은 무용지물일 뿐이지. 그렇게 된 후엔 우리가 나서서 국가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얼라이언스를 무너뜨리면 될 것이요.”

“적이 피를 흘리며 죽기를 원한다면, 나올 수 없는 상처를 내기만 하면 될 일이지. 그래서 그대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명한 것이요, 대군주. 우리의 공격이 시작된 후에는,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할 것이요. 얼라이언스를 분열로 이끌려면, 다르나서스 정복 전쟁을 계기로 그들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오. 그러려면 호드는 명예로운 승리를 쟁취해야 하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이도록 허락할 만큼 호드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소. 나는 장님이 아니요.”

이번에도, 그녀가 옳았다. 사울팽은 매우 신중하게 다음 할 말을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오. 얼라이언스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한, 준비가 불가능할 수도 있소.”

실바나스는 확연한 미소를 지었다. “그 첩자들은 곧 우리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요.”

실리더스로의 진군

사울팽은 처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화들짝 깬다. 피 냄새가 났다. 적의 냄새이다.

‘얼라이언스가 나를 잡으러 왔군.’

그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침대 말에 세워두었던 단검을 잡아 무릎 높이에서 휘둘렀다. 그의 침대 근처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면 쓰러지리라.

하지만 단검에 닿는 것이라곤 공기밖에 없었다. 그의 처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밖에서 얼굴 하나가 보이더니 창틀 근처에 기대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군주여.” 그의 방문자가 말했다. 그리고 건조한 말투로 덧붙였다. “멋진 칼 숨쉴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인간과 같은 악취를 풍기는군.” 사울팽은 그의 단검을 내려놓았다. “그런 악취는 위험하네.”

나타노스 블라이트콜러는 희미하게 실실 웃더니 복도에 그대로 머물렀다. “얘기 좀 합시다.”

사울팽은 험령한 바지를 걸쳐 입고 그와 합류했다. 동이 뜨기 직전이었다. 하늘은 벌써 밝아오고 있었다. 어차피 잠시 후에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무슨 일인가?” 그가 물었다.

나타노스는 그의 턱을 긁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얼굴형에 아직 익숙지 않은 듯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사울팽은 이 포세이큰 순찰자가 어떻게 새로운 육신을 얻었는지 묻지 않았다. 자신이 정말 알고 싶은 건지도 확실치 않았다. 어차피 솔직한 대답을 듣긴 글렀을 테니. “간밤에 얼라이언스 첩자를 다섯이나 발견했습니다.”

사울팽은 툭툭거렸다. 그것은 요즘 들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중 둘이 이 탑을 오르려고 했습니다. 대군주의 처소로 말이죠.”

“흐음.”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첩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울팽의 처소에 있는 편지를 뒤져보는 것이었겠지만 말이다. “그들이 내 머리를 베어오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더 많은 인원을 보냈을 테지.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나?”

나타노스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그런가?” 사울팽은 처음으로 이 포세이큰의 푸른색 코트에 피가 몇 방울 맺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였다. 그는 나타노스의 허리 칼집에 있는 단검을 낚아챘다. 나타노스는 눈을 가늘게 찌지만 항의하지는 않았다. 이 포세이큰 순찰자는 단검을 칼집에 꽂기 전에 칼날을 닦아내긴 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사울팽은 이를 꼭 깨물었다. '이래서 내가 피 냄새를 맡았던 거로군.' "둘 다 자네가 처치했나?"

나타노스는 다시 단점을 낚아챘다. 그의 붉은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놈. 인간이었습니다. 제게 할 말이 그리 많지는 않더군요." 이 말은 곧 그가 첩자를 죽이기 전에 고문했다는 뜻이다. "다른 한 놈은 칼도레이었습니다. 제 추측에는요. 밤에 능숙한 종족이죠. 그놈은 도망쳤습니다."

"잘 했군." 사울팽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우리는 얼라이언스가 통제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해. 대족장이 자네에게 얼라이언스 첩자를 사냥하지 말라고 했잖나. 명령에 복종하게."

"아무도 그 첩자의 시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찾을 필요도 없을 테죠." 첩자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 두 가지이다. 다른 편에 가담하던가, 혹은 죽임을 당해서이다. 그리고 호드에 가담하는 인간은 없다. '단, 죽어있는 인간은 예외지.'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정했다. "만일 첩자를 또 만나거든, 그냥 보내주라고. 알아들었나? 그놈들보다 더 느린 척 행동해."

"알겠습니다, 대군주여." 나타노스는 고개를 조용히 숙였다. "대족장님과의 대화는 어찌 되었나요, 잘 풀렸습니까?"

사울팽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지?"

나타노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

사울팽은 으르렁거리며 나타노스에게 몸을 기댔다. "이런 얘기는 밖에서 물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나타노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 옆에 서 있거나, 당신이 있는 방을 지키고 있는 한 당신의 말을 엿들 수 있는 얼라이언스는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얼라이언스 껍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었다. 나타노스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을 부르지 않은 자리에 가서, 자기와 똑같이 하려는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대족장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다.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였다. 실바나스가 진심이라는 뜻일 테니. 그녀는 이 일을 온전히 사울팽의 손에 맡긴 것이다.

그래서 사울팽은 나타노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실리더스." 그가 말했다.

그러자 나타노스가 결눈질로 그를 쳐다보았다. "실리더스가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실리더스." 사울팽은 반복했다. "이 단어를 기억하게. 절대 입 밖에 내지는 말고."

나타노스는 오크를 향해 몸을 돌리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 검 주위의 땅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 실리더스와 그곳에 묻힌 아제라이트는 호드가 단단히 쥐고 있다고 자신해도 좋네.” 사울팽이 가볍게 말했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네. 며칠 후면, 내가 수백 명의 군사를 남쪽으로 보낼 예정이야. 검 주변의 땅으로 가는 경로를 확보하고 그곳의 방어를 더욱 강화할 걸세.”

나타노스는 그의 말이 모두 의심스럽게 들렸지만, 일단은 수긍하는 척했다. “경로를 확보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셈이죠?”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아무도 안 가는 게 적당합니다.” 포세이큰이 바로 대답했다. “얼라이언스가 침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막에 호드의 병력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적이 우리의 도시에 숨어 지켜보는 와중에 병력이 나뉘게 될 뿐이죠.”

사울팽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대족장도 자네의 말에 동의할지 모르지. 어찌면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달 안에 그곳으로 병사들을 보낼지도 몰라.”

오크는 나타노스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 언테드 사나이는 눈을 한 번, 두 번 깜박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별로 탐탁지는 않겠군요. 하지만 그것이 호드를 위한 일이라면, 그냥 혼자 삭히는 수밖에 없겠죠. 단,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적이 제 눈에 띄는 날엔, 그놈들에게 화풀이할 겁니다.”

‘그는 이해한 것 같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라이언스는 왜 우리가 지금 진군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라 거지. 대체 내가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 호드 전체가 똑같은 질문을 던질 테지. 그리고 의심과 소문이 넘쳐나게 될 거야. 얼라이언스는 진실을 알기 위해 뭐든 할 것이고.”

나타노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존재한다면, 호드가 그곳으로 진군할만한 강력한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첩자들을 수없이 보내도 질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쯤엔, 좌불안석이 되겠군요.”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네. 하지만, 뭐든 하겠지. 바로 거기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어.”

“그다지 계획이랄 것도 없군요.” 나타노스가 대답했다. 그의 입꼬리는 찡긋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전략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그의 모습은 탑의 계단 통로로 사라졌다. 이로써 사울팽이 시작하려는 속임수를 알고 있는 이는 오그리마에서만 셋이 되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수는 다음 주까지 몇 명 더 늘어날 테지만, 그리 많은 수는 아닐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다르나서스를 정복하려면, 사울팽은 호드 전사들을 소집해야 한다. 수천 개의 부대가 기나긴 진군을 준비해야 하며, 엄청난 양의 보급품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셀 수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만의 전투 준비를 마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얼라이언스 몰래 실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울팽은 스톰윈드가 호드의 군사와 물자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세히 정찰하고 있기를 반쯤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톱윈드가 호드의 움직임을 긴밀하게 따라잡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수레와 무기를 부수는 등 파괴 공작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얼라이언스의 지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바나스가 말했다.

그녀가 옳았다. 이번 계획이 성공한다면, 얼라이언스의 첩자는 호드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첩자들은 스톱윈드로 달려가 호드가 서쪽이 아닌 먼 남쪽 땅을 노리고 있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준비한 작전이라고 보고할 것이다.

이제 작전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양피지를 바라보는 병참장교 가르골의 눈에는 점차 놀라움이 차올랐다. “이 목록 어디서 났나?”

“사울팽 대군주님입니다.” 트롤 급사가 말했다.

오크는 턱을 긁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군. 당장 식량 운송을 시작해야겠네. 그리고 상인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운송용 마차 대금을 지불해야겠군. 대장장이들은 밤낮없이 일해야 할 테고. 그렇게 서둘러도 여기 있는 물자를 다 모으려면 두 달이 걸릴 걸세.” ‘그 정도만 해도 기적이야.’

“기한은 한 달입니다.” 트롤이 말했다.

“뭐라고?” 가르골은 다시 양피지를 확인했다. 이 정도 보급품이라면 호드 군대 전체를 반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양이다. “사울팽 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트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폭발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대장간의 화로에서 불꽃이 튀고 바람 새는 소리가 나더니, 끝내 쇳물을 뱉어내기 시작하는 동안 모두가 도망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윽고 화로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불타오르는 모루와 뜨겁게 달구어진 파편을 사방으로 뱉어냈다.

대장간의 장인인 사루 스틸퓨리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말이 많아진 듯했다. “내 제자 중 한 놈이 지옥판암을 너무 오래 달군 게 분명하네. 이 악마의 쇠가 어떻게 돌변하는지 알지 않나.”

폭발음은 도시 거주민의 반을 놀라게 했고, 건물 내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갖가지 추측은 곧 대장간이 얼라이언스의 만행에 희생된 것이라는 소문을 낳았다.

“말도 안 돼.” 스틸퓨리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말했다. “그저 내 멍청한 제자 때문이야. 종종 실수도 있는 법이지.”

심지어 대군주 사울팽까지 몸소 나와 피해 현장을 조사했다. “오그리마는 모든 대장장이와 대장간을 존경한다. 내가 직접,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것을 약속한다.”

사울팽은 이 약속을 편지로도 작성했다. ‘폭발로 인해 유실된 아제라이트 조각 전량을 이른 시일 내로 재공급할 것이다.’

스틸퓨리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아제라이트라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받아낼 테지만, 사실 폭발 당일 대장간에는 아제라이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사울팽이 잘못 보고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몸이 오그리마에서 유일하게 아제라이트를 다룰 줄 아는 대장장이로 알려진다면, 내 명성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는 가장 좋아하는 화로 밀판에 숨겨둔 가죽 주머니 속에 그 편지를 보관했다. 며칠 후, 그는 마치 누군가 억지로 열어보려 했던 것처럼 판에 굽힌 자국이 나 있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억지로 연 것 같진 않았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편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스틸퓨리가 기억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뒤편, 다른 편지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크게 숨을 들이쉬 후 가늘게 뿔어내며 절망에 잠겼다. “달리 방법이 없다면, 내가 직접 그들을 처리하겠소.”

사울팽은 한참 말이 없었다.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했다.

전략과 전술에 관해 의논하며 몇 날 며칠을 보낸 사울팽과 실바나스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계획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대 실패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와 티란데 위스퍼윈드였다. 나이트 엘프의 지도자는 강력하고 위협하며, 전장에서는 이기기 힘든 존재이다. 이번 기습 공격으로 칼도레이가 어느 정도의 혼란에 빠지건 간에, 일단 전투가 시작되고 나면 두 나이트 엘프는 호드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들은 전투 경험이 워낙 풍부하기에, 사울팽은 얼라이언스가 도움을 청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도록 그들이 호드를 잡아둘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다. 잿빛 골짜기는 어쨌든 그들의 땅이었다. 그곳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바나스가 둘 중 하나는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하지만 그녀 역시 직접 그들을 처치한다는 것이... 이상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딜레마를 푸는 일에는 거짓 정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얼라이언스 첩자들에게 어떠한 거짓 정보를 퍼뜨려야 다르나서스가 두 나이트 엘프 지도자를 전쟁에서 배제하겠는가?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겠군.” 사울팽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기회를 준다면, 잡아야 하오.”

실바나스도 동의했다.

그들은 매일같이 만났다. 주위에서 그들의 만남을 눈치챌 것에 대비해, 적당한 변명이 있어야 했다. 사울팽은 세심하게 변명을 만들어 나갔다. 그는 대족장의 말에 반발하지 않았으며, 명예로운 오크가 그러하듯 그녀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대족장과와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화나고 굴욕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의 노력은 적중했다. 실바나스는 스톰윈드 첩자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얼라이언스는 당신과 내가 매일 다투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소.” 그녀가 말했다. 살짝 역설적인 말투로, 그녀가 덧붙였다. “게다가 그들은,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군사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믿고 있더군.”

나타노스가 그의 거짓 불만을 아주 잘 퍼뜨려 준 것이 틀림없었다. 첩자들은 숨겨진 정보를 찾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직접적인 거짓말로 그들을 속일 수는 없다. 거짓을 깊숙이 묻어 그들이 엄청난 노력과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캐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을 속일 수 있다. 누구라도 적이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첩자들이 군주에게 보내는 모든 보고서는 그러한 선입견으로 물들어 있을 터였다.

게다가, 사울팽이 실바나스 윈드러너의 명령에 짜증을 내는 듯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사실, 그가 실제로 짜증을 부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오크는 직접 전장에 나가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만, 밴시 여왕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조용히 이득을 취하길 원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두 종족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그 둘은 전혀 닮은 점이 없었다. 종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다. 그들이 매일같이 충돌한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어쩌면 얼라이언스는 사울팽이 대족장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실리더스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얼라이언스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들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추측을 할 것인가?



“얼라이언스 첩자를 죽이는 자에겐 1천 골드의 상금을 주겠다.” 사울팽이 외쳤다.

그의 뒤에 서 있는 오그리마 경비병들 사이로 놀란 듯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여태껏 주어진 상금에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였다.

“오그리마는 우리의 도시다. 그래도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얼라이언스가 있다면, 우리가 손님을 얼마나 후하게 대접하는지 너희가 직접 보여주길 바란다.” 사울팽은 비웃음을 띄며 말했다. 그는

뒤쪽으로 팔을 휘둘러 그롬마쉬 요새를 가리켰다. 열댓 개의 깨끗한 창이 지상에서 약 15m 높이 부근의 탑에 걸려있었다. “이곳에 적의 머리를 꽂아둘 것이다. 이곳이라면 우리의 손님께 최고의 오그리마 경관을 선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비병들은 들떠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울팽은 수천 골드를 어디다 쓰면 좋을지 생각하며 벌써 들떠있는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에겐 안 됐지만, 저곳에 적의 머리가 하나라도 꽂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이제 얼라이언스도 무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대족장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첩자를 생포한 자에게 상금으로 5백 골드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방금 사울팽은 상금을 두 배로 올리며 첩자를 생포하지 말고 죽이라고 한 것이었다. 사울팽은 긴장감이 고조되길 원했다. 그리고 그는 긴장감을 높임으로써 미묘하게 대족장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이다. 지도자와 사령관 사이에 생긴 앙금의 조짐은 첩자들이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다.

실바나스는 기뻐했다. “적을 속이는 방법을 매우 잘 깨우쳤군, 대군주.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요? 우리 둘 사이의 앙금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세상에 알릴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염두에 둔 계획이 있소?” 사울팽이 물었다.

“대군주와 나타노스가 서로 싸워줘야 하오. 대중들 앞에서.”

사울팽은 즐거웠다. “그에게 먼저 경고해줘야겠소. 우리가 진짜로 싸운다고 착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를 죽여버릴지도 모르요.”



나타노스는 그의 턱을 들어 올렸다. “제가 얼마큼 세계 때려도 되는 거지요, 대군주?”



“경비병! 경비병! 도와줘!” 모르카가 외쳤다.

‘내가 잡았어. 내가 첩자 한 놈을 잡았다고.’ 그녀는 기쁨에 들떠 생각했다.

모르카는 근처에 있는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향해 방패를 집어 던졌고, 운 좋게도 명중시켜 그 도적을 기절시킬 수 있었다.

그 노움은 모르카에게 잡힌 채 발버둥 치며 으르렁거렸고, 작은 생명체에게 주어진 권한인 양 온 힘을 다해 몸을 버둥거리며 저항했다. 그의 머리에는 검은 망토가 씌워져 있었고 그의 단검은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떨어져 있었다.

‘이런 미꾸라지 같은 놈!’ 모르카는 그의 손톱이 팔에 박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노움을 바닥에 고정했다.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곧 지원병이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허리띠에 있는 작은 도끼를 꺼내려 애썼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첩자를 낚아채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베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통 없이 죽여주마.” 그녀는 조롱하는 말투로 첩자에게 속삭였다. “저기 창이 기다리고...”

그때,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었다. “그를 풀어줘. 천천히.” 목소리가 말했다.

‘당연하지. 그래, 한 놈만 있을 리가 없지.’ 그녀는 인간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모르카의 목에서 피가 흐를 만큼 세게 칼날을 들이댔다.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그녀의 동맥이 드러나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지금 당장!” 목소리가 다그쳤다.

그녀는 이를 꼭 깨물었지만, 꼼짝없이 잡힌 신세였다. 그녀는 노움을 풀어주었다. 노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그림자를 향해 달려갔다.

인간의 목소리가 말을 이어갔다. “이제, 나와 함께 뒤로 물러서.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힘껏 당겼다. 칼이 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공격자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눈앞에 가루를 뿌렸다. 그 가루에 불이 붙자, 그녀는 밝은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귀도 들리지 않았다. 모르카는 땅 위로 구르며 귀를 막았다. 자신이 외치는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또 다른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싸우다가 그 손의 정체가 오크와 타우렌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아군이다. 내 동료다. 그들은 모르카를 바로 세워 그녀의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모르카의 눈앞에 붉은 연기가 떠다녔다. 수치심, 분노, 굴욕감이 그녀의 영혼을 덮쳐왔다. “그놈들을 놓쳤어.”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다른 경비병들은 첩자를 찾으러 나섰지만, 그녀는 자리에 남아있었다. 자신에게 분노하며 아직 남아있는 어지러움을 떨쳐내려 애썼다. 다른 경비병이 그녀의 팔과 목에 난 굵힌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인간의 검은 아직 땅 위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상했다. 그것은 오그리마의 강철이었다. ‘인간이 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는 흐릿한 정신으로 몇 시간이 지나갔다. 모르카는 자리에 머물며 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한 장교가 다가왔다.

“사울팽 대군주께서 너와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나타노스 블라이트콜러가 말했다. 모르카는 그와 개인적 친분은 없었지만, 그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웬지 귀에 익었다. 그리고 오늘따라 절룩거리는 듯했다.

‘오늘은 일진이 사납군.’ 소문에 의하면, 어제 그룹마쉬 요새 밖에서 나타노스와 사울팽이 크게 다투었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모르카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았다. “알겠습니다. 앞장서시죠.”

그녀는 나타노스를 따라 정기의 골짜기로 향했다. 그는 텐트를 짓혀 열더니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모르카는 떨리는 마음으로 텐트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크게 다친 오크가 있었다. 붕대를 감고 편안히 잠든 모습이었다. 대군주 사울팽은 텐트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꼰 채 앉아있었다. 그의 한쪽 눈은 무언가에 맞아 부어있었다. “자네가 첩자를 잡았다고?” 그가 물었다.

“잡을 뻔했습니다. 대군주님.” 모르카가 대답했다. 사울팽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모르카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에게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놓쳤습니다.”

“자네가 처음이 아니었네. 자리에 앉게.” 그는 모르카가 편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부상당한 오크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그 첩자가 자네를 마주치기 전에 이 오크를 공격했지. 그는 급사야. 내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하려는 중이었네.”

모르카는 얼굴을 찡그렸다.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하지만 급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첩자가 가지고 간 것이 걱정이네.” 사울팽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혹시 두 번째 첩자를 보았나? 자네를 공격한 자를?”

모르카는 고개를 저었다. “인간의 냄새를 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르카는 사울팽에게 칼을 보여주었다. “오그리마 대장장이의 표식이 있습니다. 아마 제 친구가 만든 단검 같습니다. 인간이 왜 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팽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흥미로운 질문이군. 블라이트콜러?”

포세이큰이 텐트 안으로 머리를 디밀었다. “부르셨습니까?”

“이 경비병이 자네의 단검을 가지고 있네.” 사울팽이 말했다.

모르카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나타노스는 무서운 얼굴로 쏘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모르카가 아무 말 없이 칼을 건네주자, 나타노스는 텐트 밖으로 나가버렸다.

사울팽은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모르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만일,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뱉어낸다면 불복종으로 처벌받을 것이 뻔했다. “대군주님, 저는...”

그가 손을 들어 저지했다. “우리는 그 첩자를 풀어줘야 했네. 그 첩자가 훔쳐낸 것을 얼라이언스가 봐야 하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일이야.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게. 자네는 경비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냈어.”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준 건, 자네를 신뢰하기 때문이네. 그리고 자네는 스스로 능력을 증명했어. 그래서 고려해보았네. 새로운 군사적 사안 때문에 내게 새 경호원이 필요하게 되었네. 자네가 그중 한 명이 되면 어떻겠나?”

‘홍벽에서 1년 더 근무하는 대신? 당연히 경호원이지.’ 그녀의 혼란과 분노는 약간 잦아들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울팽은 주제를 바꿨다. “자네 친구가 하나 있다고 했지. 대장장이라고?”

“네, 대군주님.”

“자네 혹시 자녀가 있나?”

“여덟 있습니다.” 모르카가 대답했다.

사울팽의 눈이 커졌다. “여덟이라고! 세상에... 나로서는 시도조차 못 할 일이로군. 이거 하나는 말해두지. 자네는 나와 함께 십자로에서 싸운 적이 있지. 다음번에도 나와 함께 싸워주길 바라네. 곧, 마치 그때처럼, 자네의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승리를 목격하게 될 걸세.”

모르카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말했다. “그럼 얼라이언스를 직접 죽일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군주님.” 그녀가 말했다.

“준비해두게. 몇 주 후에 진군할 예정이니. 어쩌면 그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어.”

다음 날이 채 되기도 전에 그녀는 사울팽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함께 십자로 전투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홍벽에서 나를 만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아주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대족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얼라이언스가 미끼를 물었소.” 실바나스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일지도.”

사울팽은 웃음이 터질 뻔했다. ‘빠르게 진전되는 것을 대족장이 걱정한다 말인가?’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यो. 얼라이언스는 단지 미끼만 문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소. 우리가 무엇을 계획 중인지 상상조차 못 하고 있던 말이오!”

대족장은 방금 그녀의 첩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접한 터였다. 스톱윈드는 호드가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실리더스에 대한 집착이 걱정된 나머지 나이트 엘프에게 그들의 함선을 실리더스에 보내 호드의 움직임을 관찰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칼도레이의 함선들은 페탈라스로 향하고 있었다. 살게라스의 검 주변 언덕에 있는 고지에 주둔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사울팽도 예상치 못한 행보였지만, 그는 얼라이언스의 계획에 진심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매우 훌륭한 군사 전략이었다... 만일 호드가 ‘진짜로’ 그곳에 군사를 보냈다면 말이다. 방어가 용이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적을 지켜본다. 그리고 지역에 병력을 보낼 수 있는 위치를 미리 준비한다. 이 작전은 그가 안두인 린에게 기대한 것보다 기민하고 훨씬 대담한 것이었다.

게다가, 얼라이언스에겐 불행한 일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티란데 위스퍼윈드는 몇 주 동안 스톰윈드에 머물며 호드의 기묘한 움직임에 대비한 장기 전략을 잘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미 다르나서스를 떠났다. 공격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대족장은 망설이고 있었다.

“대군주, 당신은 3주 이내로 공격을 시작하길 원했소.” 그녀가 말했다.

“그때는 우리가 직접 티란데와 말퓨리온을 상대해야 하다고 생각하던 때였지 않소. 하지만 지금은 한 명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यो.” 그가 대답했다.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부족할 거요. 하지만 나이트 엘프보다 우리가 더 많은 병력을 지니고 있으니 12대 1이 아니라 8대 1 정도로 붙어볼 수 있소.”

실바나스는 우려를 표했다. “티란데가 전장으로 바로 돌아오려 하면, 무엇이 그녀를 막는단 말ियो? 스톰윈드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군대를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한 존재를 이동시키는 것은 쉬운 일ियो.” 그녀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능한 일이었다. 사울팽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티란데가 우리 병사 몇을 잡기 위해 무고한 목숨을 몇이나 희생시킬 것 같소? 그것이 그녀가 당면할 문제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를 테지. 스톰윈드가 전투의 시작을 알아차릴 때쯤엔, 이미 우리가 다르나서스보다 우세한 상황일 것ियो. 티란데가 전투에 끼어든다면 우리의 공격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그들의 영역에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은 후일 것ियो. 어찌면 그녀는 자신의 힘을 탈출을 돕고 부상자를 치유하는 데 쓸지도 모르지. 그녀가 판단하기에 우리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면, 그녀가 선택할 수 행동은 하나뿐ियो.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는 것.”

나타노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된다면 말퓨리온을 혼자서 처치할 기회를 얻게 되겠군요. 대족장님.”

실바나스의 눈에 떠오른 감정은 사울팽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언짢은 표정이었다. 호드가 티란데와 말퓨리온을 모두 죽일 수 있다면, 그것은 물론 얼라이언스를 약화시킬 큰 승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세계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세계수만 손아귀에 넣는다면, 누가 나이트 엘프를 지배하건 간에 얼라이언스는 분열될 것이다.

사울팽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실바나스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사울팽은 자문했다.

‘상관없다.’ 그는 결심했다. 대족장은 이번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가올 전투에 관해 숨겨진 계획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그녀는 대족장이다. 그렇지 않은가?

실바나스는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티란데가 확실히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하오. 칼도레이 대피라면 어떻소. 우리가 세계수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의 백성을 대피시키는 데 적의 자원을 몽땅 소진케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오, 내 말이 맞소?”

“그렇소, 대족장.” 사울팽이 말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호드가 관리해야 하는 포로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탈출 중 주민 보호를 위해 병력이 투입될 테니, 얼라이언스의 마법사들은 잿빛 골짜기 전투에 참가하는 대신 텔드랏실에 남아 병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실바나스는 지도에서 어둠해안을 가리켰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겁에 질리게 해야 하오. 만에 하나, 그들이 도망치기보다 맞서 싸우기를 선택한다면 이번 전투의 끝은 그 어느 전투보다 참혹해질 것이오.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못 할 만큼 텔드랏실 주민에게 겁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나타노스가 통명스레 말했다. “당장 죽인다고 위협하면, 안 될 일도 되는 법입니다. 대족장님께서 새로운 역병을 창궐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돼!” 분노한 사울팽이 외쳤다. “절대로 안 되네. 그따위 멍청한 생각을 하다니! 세계수의 주민을 몰살한다면, 얼라이언스는 우리를 향한 적개심으로 더욱 단단히 뭉치게 될 뿐이네!”

“저는 역병으로 위협만 하자고 했지, 진짜 퍼뜨리자는 게 아닙니다.” 나타노스가 말했다.

“효과가 없을 거야.” 실바나스가 대답했다. 그녀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울팽이 옳아. 역병으로 위협해도 얼라이언스는 절대 안 믿을 거다. 역병으로 도시 하나를 전멸시킨다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허무맹랑한 허세에 불과해.”

사울팽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공성 무기라면... 공성 전차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오.”

그는 지도로 걸어가 어둠해안에 돌 모형들을 배치했다. “많은 수의 공성 무기를 어둠해안으로 이동시켜 다르나서스를 겨누다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요. 만일 그들이 저항한다 해도, 아군의 희생 없이 죽음을 선사할 수 있소. 적의 방어선은 어둠해안의 후방이 아닌 전방에 형성될 것이오. 그들은 마지막 전투로 고향이 파괴되는 것을 보느니 대피하는 것을 택할 것이오. 우리가 도착할 때쯤엔, 세계수는 무방비 상태일 거요.”

나타노스는 지도를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대족장님.”

실바나스는 그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그리한다면 시간이 지체될 것이오. 공성전 병사들이 칼도레이의 최우선 표적이 될 테니, 경비병들에게 공성전 병사의 보호를 명령해야 할 것이오.” 결국,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오. 대군주, 당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오. 일주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사울팽은 도끼로 자신의 갑옷을 두드렸다. “호드를 위하여!” 그가 대답했다.

대족장은 그의 대답에 미소지었다. “호드를 위하여.”



그날, 사울팽은 숨겨왔던 진짜 계획을 알리기 시작했다. 단, 첫 공격에 참가하는 자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다. 다수의 도적 무리에게 계획을 설명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들은 무리 짓는 것도, 지루한 설명을 듣는 것도 질색하기에 사울팽은 고작해야 한 번에 두 명에게 계획을 알릴 수 있었다. 나타노스도 다른 곳에서 사울팽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 둘이 힘을 합하면 수백 명 정도에게는 설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데에만 3분이 걸렸다. 잿빛 골짜기 전역에 일제히 동시 공격을 가할 때는, 호드 침입자들이 모든 나이트 엘프 정찰병과 전초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계획에 갑작스레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병력 모집과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의 반만 성공한다 해도 사울팽은 기쁠 지경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에겐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질문 있는가?” 사울팽은 그의 앞에 선 두 명의 도적에게 물었다.

당연히 질문이 있었다. 그중 첫 도적은 로라쉬 선빔이라는 신도레이였는데, 잿빛 골짜기의 나이트 엘프 전초기지와 정찰로가 표시된 지도를 가리켰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만 표시된 것이었다.

“지금 우리더러 얼라이언스와의 전쟁을 시작하라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로라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니, 전혀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턱없이 적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정확히 동시 공격을 하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재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사울팽은 그의 말을 듣더니 생각에 잠겼다. “나는 자네들을 신뢰하기에 이 정도의 정보를 알려준 것이네. 그럼 조금 더 알려주도록 하지.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네.”

그는 지도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르나서스였다.

그리고서 사울팽은 기다렸다.

도적들은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 사울팽은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입이 벌어지며 놀란 듯한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을 즐거운 듯 바라보았다. 로라쉬는 심지어 비열한 미소를 띤 채 크게 웃기까지 했다.

사울팽은 그들이 새로운 소식에 제대로 적응할 때까지 기다렸다. “세계수는 전략적 가치가 있지. 때문에 호드의 것이 되어야 하네. 다르나서스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보물이 가득한 도시지. 하지만 대부분의 보물은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호드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 호드의 이름을 걸고 위험을 무릅쓴 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내가 약속하지.”

다른 한 도적은 리펜이라는 포세이큰이었는데, 매우 만족한 듯 보였다. 로라쉬는 한 가지 질문을 덧붙였다. “우리가 나이트 엘프를 목표로 삼는다면,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도 분명 끼어들 겁니다.”

“자네에게 그를 상대하라고 하진 않겠네.” 사울팽이 말했다.

“제가 상대하고 싶다면 어떻습니까?” 로라쉬가 물었다.

리펜은 코웃음 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팽은 손을 펼쳐 허가의 뜻을 표했다. “전투에서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를 쓰러뜨린다면, 그만한 보상을 하겠네. 하지만, 그를 상대하는 것은 피하라고 충고하고 싶군.”

이제 그 둘은 완전히 의심을 거두었다. ‘둘은 설득했고, 아직 한참 남았군.’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수천수만의 호드 병사들이 동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오그리마 밖에 집결했다. 그리고 실리더스로의 길고 지루한 진군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 보급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을 입 밖에 내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울팽은 이번 임무에 대해 낮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타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사울팽이 호드의 지상 병력 대부분을 실리더스로 이동시켜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둔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 달 동안 사막을 정찰하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얼라이언스가 차라리 우리를 공격해주면 좋겠어.” 한 오크가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차피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야.”

사울팽은 그의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이번 작전은 아제로스에서 새롭게 열리는 호드의 시대의 시작이었다. 승리만 거머쥐다면, 수백 세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도 후대가 수백 세대 동안 살아남지 못한다면, 사울팽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리라.

군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대부분의 오그리마 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호드조차 실리더스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라이언스도 이와 같은 혼란을 느껴야 한다.

한 익숙한 얼굴이 떼 지어 있는 병사들을 뚫고 사울팽을 향해 다가왔다. 오크는 환하게 미소지었다. “오랜 친구여, 반갑네.” 사울팽이 말했다.

타우렌 대부족장, 바인 블러드후프는 그의 팔을 굳게 움켜쥐었다. “또 나 빼고 전투에 나가려고?” 그가 장난스레 물었다.

“몇 달 동안 사막에 앉아있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지.” 사울팽이 경쾌하게 말했다.

“사막으로 간다고?” 바인의 목소리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사울팽은 그의 놀라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인은 진짜 계획을 알고 있어.’ 사울팽은 알아차렸다. 그가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타우렌의 목소리로 짐작건대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를 우습게 보아선 안 되겠어.’ 그는 케른의 아들이다. 어쨌든 바보일 리는 없다.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것 같네.” 그는 전혀 동요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분의 호드가 이번 임무의 목표를 모르고 있네. 왜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겠군.’이라는 뜻이리라.

“곧 다들 알게 될 거야. 바로 지금 기회가 있네, 하지만 그 지평선 너머엔 위험도 도사리고 있지. 빠르게 기회를 잡아야 해.” 사울팽이 말했다.

“그리고 깔끔하면 더 좋겠지. 말해보게. 자네의 계획인가 아니면 대족장의 계획인가?”
바인이 말했다.

“내 계획이야.” 사울팽이 간단히 대답했다.

바인은 이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했다. “그렇다면, 일이 잘 되길 비네. 명예로운 전투가 되기를, 친구여. 룩타르 오가르.”

“룩타르.” 사울팽이 대답했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사울팽은 수레와 공성 무기, 그리고 걸어서 이동하는 병사들이 한데 모인 거대한 행렬에 진군의 시작을 명령했다. 바인은 뒤로 물러서면서도 사울팽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군대의 행렬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사울팽을 바라보았다.



나타노스는 사울팽 바로 뒤의 수레를 탔다.

나타노스는 대족장이 저 오크에게 이 계획의 지휘권을 넘겨준 것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울팽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전쟁을 익힌 자였으며, 그러한 그의 능력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의 명성과 전통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종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으며, 호드는 그가 옳은 결정을 하리라 믿었다. 심지어 암울한 시대에도.

반면, 실바나스는 그만한 명성을 수천 번이나 얻었음에도 호드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호드에는 근시안적이며 의지가 박약한 자들이 너무 많았다. 실바나스는 이 삶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보았다. 생의 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 외에, 그녀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행동이 때로 잔인해 보이지만, 결국, 인생은 잔인한 것이다. 존재는 금방 사그라진다. 그녀의 계획은 필멸자의 시야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며, 이는 평범한 이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나타노스는 예외였다. 그는 오히려 즐거움을 느꼈다.

사울팽은 그의 의자를 비틀어 나타노스를 바라보았다.

포세이큰이 턱을 치켜들었다. ‘지금?’

사울팽이 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다.

정오였다. 호드의 행렬은 불모의 땅으로 이어지는 교차점까지 반 정도 다다른 상태였다. 이 대열에 참가한 대부분이 모르는 채, 나이트 엘프에 대한 첫 공격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계획대로만 되었다면, 나이트 엘프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곧, 공포가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 후엔 반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절망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칼도레이는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기 때문이다.

나타노스는 꿈을 자주 꾸진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승리를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텔드랏실의 가지 아래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르나서스의 길을 걸어 그들의 터전 위에서 칼도레이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실바나스의 의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에게는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대족장에게도, 이 계획에도.



로라쉬는 이 칼도레이 무리가 안쓰러웠다. 그들의 지휘관은 마치 그들이 고된 훈련이 필요한 신입인 양 숲 이곳저곳으로 행군 훈련을 시켰던 것이다. 그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모두 신입이 아니라 노련한 전문가들이다. 과도한 훈련은 오히려 위험 요소였다. 최정예 군대를 안일함으로 빠트리는 것은 지휘관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이다.

그들의 피로는 로라쉬에게 이득이었지만, 여전히 동정심이 그를 엄습했다. 그도 형편없는 지휘관을 둔 적이 있었다.

아쉽게도, 이 지휘관은 자신의 병사들을 혹사하면서도 시종일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길 요구했다. 그것이 로라쉬를 언짢게 했다. 공격할 만한 낙오자가 없었다. 그는 위에서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렇게 밝은 대낮에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다. 특히 군기가 바짝 든 채 훈련 중인 저 나이트 엘프 병사들을 상대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고작해야 몇 명을 처치하고 죽임을 당하기에 딱 좋을 뿐이다.

로라쉬와 리펜이 공격을 시작하기로 한 시간에서 벌써 한 시간 반이나 지나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칼도레이 전초기지인 실바람 산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다른 도적들은 그곳을 공격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곳에 생존자가 없다 해도, 정찰 중인 나이트 엘프들이 곧 시체를 발견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몇 개의 칼도레이 전초기지가 공격당했는지 파악한다면, 공격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로라쉬 뒤에서 앞사귀가 바스락거렸다. “벌써 돌아왔어?” 그가 속삭였다.

그 포세이큰 도적은 덤불 속에 숨어있는 그의 옆으로 살금살금 기어왔다. 바스라진 앞사귀는 일종의 예의였다. 도적들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동료에게 몰래 다가가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열댓 명 정도, 어찌면 더 많이 있는 거 같아.” 리펜이 말했다. 그는 무심코 걸음으로 드러난 자신의 빗장뼈를 손가락으로 꼭 눌렀다. 그 버릇은 언제나 로라쉬를 긴장하게 했다.

“우린 이미 늦었어. 당장 공격하지 않으면, 후퇴해야 한다고.” 로라쉬가 중얼거렸다.

12명 대 2명이었다. 게다가 파수꾼들을 먼저 뚫어야 했다. 아주 위험한 적이다. 지금 당장 후퇴하지 않도록 로라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의 눈앞에 있는 보상이었다. “저 중 하나가 나이트 엘프 지휘관일 거야.” 그가 말했다.

“젯빛 골짜기 지휘관?” 리펜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저 중 누구지?”

로라쉬는 주위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쪽 뺨어 나갔다. “저 키 큰 여자. 얼굴을 뒤덮은 큰 흉터가 있지. 내가 들은 설명과 일치해.”

그들은 그 지휘관으로부터 약 백 걸음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얼굴의 흉터는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리펜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몇 분 정도 더 기다렸다. 나이트 엘프들은 여전히 앞뒤로 행군 연습 중이었다. 그러다 한 병사가 다른 병사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자,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호된 얼차려를 주기 시작했다.

로라쉬는 한숨을 쉬었다. “저들은 멈출 생각이 없나 보군. 네가 결정해, 리펜. 자네의 결정에 따르지.”

“평소 같았으면, 후퇴해서 후일을 기약하자고 했을 테지만, 난 한 번도 지휘관을 죽여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병사들을 흡사하고 있지. 더 가까이 가보자.” 포세이큰이 차분히 속삭였다.

로라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앞으로 기어갔다. 둘 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정도 근접한 거리에서는 말을 해선 안 된다. 오직 손짓만을 사용해야 한다.

짐승의 발굽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 두 도적은 밤호랑이를 타고 있는 나이트 엘프 파수꾼을 바라보았다. 그 파수꾼은 덤불을 뚫고 나이트 엘프 무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지휘관님! 지휘관님! 아군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녀가 외쳤다.

모든 나이트 엘프 병사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정적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엘프들은 방금 도착한 파수꾼 주위로 몰려드느라 그 외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리펜이 로라쉬의 팔 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여기 있어.’ 그가 손짓했다. 그리고서 조용히 덤불을 뚫고 한 나무를 향해 기어가더니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자칫하면 적의 주의를 끌 수도 있기에, 로라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말릴 수 없었다.

‘이게 우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는 생각했다. 위에서부터 덮치는 건 여전히 무모한 계획인 것 같았다. 하지만 리펜은 영예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보상도.

로라쉬는 나이트 엘프의 대화 중 일부만 들을 수 있었다. 그 정찰병은 젯빛 골짜기 전역의 전초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의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소란스러워졌다. 지휘관이 너무 큰 소리로 명령을 외친 나머지 리펜이 내는 소리는 모두 묻힐 정도였다.

로라쉬는 눈을 들어 리펜이 위에서 덮칠 준비를 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타고 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극적인 등장이 될 터였다.

블러드 엘프는 조용히 소매를 두드려 표창이 잘 숨겨져 있는지 확인한 후,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칼날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종류의 독이 묻어 있었다. 살갓을 스치기만 해도 충분하다.

리펜은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려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로라쉬는 이를 악물었다. 지휘관은 명령을 하달하는 중이었다. 몇 분만 기다리면 병사들이 해산할 터였다. ‘젠장, 참을성 없기는.’

나이트 엘프 드루이드인 밤호랑이가 코를 들어 쿵쿵거리더니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리펜은 단검을 몸에 바짝 붙여 아래를 향해 쥐었다. 그는 곤장 지휘관의 등 위로 떨어지며 큰 상처를 내었고, 둘은 숲의 덤불 위에 나뒹굴었다. 모든 나이트 엘프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리펜은 발을 굴러 다른 엘프의 목에 단검을 휘둘렀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저들을 놀라게 해줄 때가 왔군.’ 로라쉬가 적들의 주의를 흐트리면 리펜에게 도망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로라쉬는 세 발자국 만에 적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러 한 명을 처치했다. 그리고 나머지 적에게 달려들었다. 적의 한가운데 있는 리펜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로라쉬는 적의 주위를 마치 유령처럼 빠르게 떠돌았다.

여섯 명의 엘프가 제대로 반격도 못 한 채 쓰러졌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정정당당히 싸우라는 명령은 없었으니까.’ 미소 띤 얼굴로 로라쉬는 생각했다. 지휘관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임무에 성공한 것이다.

로라쉬는 뒤로 물러났다. 그림자에 닿자, 마치 그는 마법처럼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나이트 엘프들은 겁에 질리지 않았다. 그들은 우거진 나무 사이로 불붙인 화살과 마법을 쏘아 올려 도망치는 로라쉬를 찾으려 했다. 로라쉬는 아무도 그의 퇴로에 시선을 두지 않을 때까지 등을 나무에 기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점점 커져가는 그의 만족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고통에 찬 거친 신음 소리였다. 리펜이 탈출에 실패한 것이다. 로라쉬는 위협을 무릅쓰고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다. 무섭게 공격하는 밤호랑이의 육중한 몸에 포세이큰 도적이 깔려 있었다. 리펜은 팔을 잃은 상태였다. 불과 몇 걸음 거리였다.

로라쉬는 이를 악물었다. 저 정도의 부상이라면 리펜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제길.’ 살아있는 칼도레이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구출은 불가능했다. 로라쉬는 지금 떠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간단한 선택이었다.

그는 백 걸음 정도 기어간 뒤 달리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위협을 감수했다. ‘둘 중 하나는 살고, 다른 하나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섯 명을 처치했다.’ 그는 사울팽이 이것을 과연 성공으로 여길지 궁금했다.



나타노스는 행렬이 교차로에 근접하는 동안 사울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후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바보 같은 짓이겠지만, 사울팽은 발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호드 전체에 명할 수도 있었다. 잿빛 골짜기가 있는 북쪽으로 행군한다면, 호드의 참전은 완전히 확실해지는 것이다.

사울팽은 그의 결정을 행렬의 선두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다. 나타노스는 그의 수레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사울팽의 수레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수레와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

“대군주여, 명령을 내리셔야죠?” 나타노스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아직 시간이 있네.” 사울팽이 말했다.

‘자신감이 떨어지나 보군.’ 나타노스는 목소리에 날을 세우며 물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사울팽은 나타노스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그의 굳은 눈빛을 본 포세이큰은 사울팽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곧 닥칠 일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원한다면, 자네가 직접 전하게. 우린 북으로 향한다.”

나타노스는 잠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선두에서 수레를 모는 자와 근처의 장교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호송대 앞으로 달려갔다. “사울팽 대군주의 새로운 명령이다. 불모의 땅 북쪽의 교차로에 도착하면, 오른쪽으로 진군한다.”

“네?” 타우렌이 물었다. “오른쪽으로 갑니까? 잿빛 골짜기로?”

“사울팽 대군주의 명령이다. 따르라.” 나타노스가 말했다.

30분 후, 교차로에서는 약간의 지체가 있었다. 모두가 실리터스로 가는 십자로 방향인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명령에 복종했다.

진군 방향이 바뀐 것을 알게 되자, 호드 군대 전체로 슬렁임이 퍼져나갔다. 갑자기 대화가 많아지더니 곧 잿빛 골짜기를 향해 진군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차츰 진정되어 갔다. 사울팽이 그녀에게 준 기묘한 임무, 그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들... 그녀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사울팽은 그녀가 곧 얼라이언스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사울팽은 앞을 곧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결정에 분명 만족하는 듯했다.



모르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다른 경비병들과 끊임없이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들도 그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호드가 잿빛 골짜기를 향해 진군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차츰 진정되어 갔다. 사울팽이 그녀에게 준 기묘한 임무, 그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들... 그녀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사울팽은 그녀가 곧 얼라이언스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사울팽의 수레를 따라 걷던 그녀는 흘깃 사울팽의 얼굴을 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분명했다. 사실, 모르카가 보고 있는 것은 계획의 변경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사울팽이 세운 거대한 전략이었다. 단지, 그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었다.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호송대는 영토의 끝자락에 자리한 옛 호드 요새가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몰산의 망루는 불모의 땅으로 쳐들어오는 나이트 엘프를 막기 위한 방벽의 역할을 했으나 가로쉬 헬스크림이 폐위된 이후로 방치되었다.

이 요새에는 나이트 엘프들이 있어야 했지만, 나이트 엘프는 없었다. 대신, 오크와 고블린, 두 호드 도적이 있었다. 그들은 허공에 다리를 흔들며 구조물 위에 편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호송대가 다가오자 손을 흔들었고, 이를 본 병사들은 다시 한번 수군대기 시작했다.

사울팽이 탄 수레가 성곽 아래에 도착하자, 사울팽은 호드 수송대 전체를 내려보기 위해 몸을 일으켜 성벽 꼭대기에 올랐다. “호드의 병사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가 외쳤다.

행렬 전체가 멈추어 섰다. 모든 대화와 술렁임이 사라졌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모르카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우리는 실리더스로 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실리더스로 갈 계획은 없었다.” 사울팽이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 소식에 놀라는 호드 병사는 없는 듯했다. “우리는 새로운 임무에 착수할 것이며, 목표는 간단하다. 칼도레이의 본거지인 다르나서스를 정복할 것이다.”

사울팽은 말을 잇기 전 잠시 뜸을 들였다. “얼라이언스 중 그 누구도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잿빛 골짜기의 나이트 엘프 정찰병들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 해도, 이번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반격할 것이다. 그들은 절박하게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호드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은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모든 병사가 일제히 그의 말에 화답해 소리를 지르며, 무기를 들어 올리고 주먹을 흔들었다. 사울팽은 함성이 더 높아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취했다. 일순간에 좌중이 고요해졌다.

“6개월 동안, 사막에서의 평화를 약속할 수는 없다.” 그는 미소지으며 말했다. 이내 그가 목소리를 높여 외치자, 근처의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내가 그대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며칠 동안의 영광이다! 룩타르 오가르! 호드를 위하여!”

모르카를 비롯한 수천 명의 호드 형제자매들이 함께 외쳤다. 그들의 함성은 나무 하나뿐만 아니라, 언덕 전체를 흔들었다.

곧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호드를 위하여!”

젯빛 골짜기 전투

해가 지자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칼도레이를 상대로 한 싸움이다. 이미 예상된 바였다. 엘룬의 달빛에 물든 채, 칼도레이 병사들은 그들의 영토에 감히 발을 들이려는 적을 찾으며 마치 포식자인 양 숲을 누볐다.

“대군주님, 그들이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한 포세이큰 정찰병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녀의 갑옷에는 새로 생긴 상처가 크게 새겨져 있었지만, 살갗은 무사한 듯하다. “다리를 모조리 태운 것 같군.”

사울팽이 투덜거리듯 말했다. 팔파렌 강은 그리 깊지도, 넓지도 얇은 강이었지만, 최근에 내린 비로 많이 불어난 상태였다. “강 가까이에 공성 전차를 배치하게. 쓸 수 있는 건 모두 썩버려. 엘프들이 숨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그리고 그들이 놓치는 것이 없나 감시하고. 아무 다리라도 좋아. 거대한 통나무라도. 뭐든지 찾아내게.”

정찰병은 그에게 경례한 후 뛰어나갔다. 그녀는 앞으로 마주치는 모든 정찰병에게 이 명령을 전달할 것이다. 사울팽은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더니 새로운 표시를 했다. 그는 나이트 엘프가 이 강에서 항전하리라 추측했다. 강은 지형적 장애물이었지만, 상류로 갈수록 좁아진다. 그만큼 건너기가 쉬워지지만, 과연 방비도 쉬워질 것인가? 사울팽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북으로 향한다.” 그는 부관들에게 말했다.

부관들은 호드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출중한 마법사가 손을 본 긴 통에 사령관의 지도를 맡아 넣었다. 이 통은 불, 오염, 물리적 충격을 모두 견뎌낼 수 있다. 이 통을 전달할 블리트 엘프는 근처에서 전투가 발발해도 싸우지 말고 도망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진짜 계획은 사울팽의 머릿속에 있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나이트 엘프가 그의 머리를 몸통에서 분리해낸다면, 물론 실제로도 시도하겠지만, 전투를 계속해서 지휘하기 위해 대족장은 이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사울팽의 지휘 초소 이동 준비는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그는 복잡한 상하관계를 따지며 자신의 변덕을 받아주고 기분을 맞춰주길 바라는 상관은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움직이는 병사들에게 그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똑똑한 책략가 몇 명이 전부였다. 여기에 암살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능한 경호원들을 더한다 해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다. 그래야만 했다. 이곳은 숲이다. 숲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대열을 맞추어 똑바로 진군하는 병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울팽은 그런 종류의 전투는 질책이었다. 이곳에서는 나무 사이 사이에서 수천 개의 위험한 소규모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기동성이 핵심이다. 그리고 지형에 대한 지식이 핵심이다. 호드는 이 두 가지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이곳은 칼도레이의 영역이다. 하지만 나이트 엘프들은 수적으로 열세에 몰린 데다 완전히 망심하고 있던 터였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면, 사울팽과 실바나스가 조심스레 만들어진 속임수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호드가 잿빛 골짜기 전역을 공격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텔드랏실과 그곳에 있는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지금쯤이면 스톱윈드에서도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지원군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제때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이트 엘프는 그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는 있지만, 지켜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나서스와 멀리 떨어져 있다. 예기치 않은 타격 몇 번에 호드의 진군이 멈출 수도 있다.

엄청나게 큰 둔탁한 소리가 숲을 메아리치더니, 곧이어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다. 사울팽은 폭발음이 난 곳을 가리켰다. “저쪽이다.” 그의 부대는 그를 따랐다. 얼마 후, 그들은 부서져 불에 타고 있는 예닐곱대의 공성 전차와 호드 부대를 발견했다. 호드 병사들은 전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더라도 한 듯, 온 힘을 다해 불을 끄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내버려 두어라!” 사울팽이 거칠게 말했다. “전차는 이미 파괴되었다! 부상자들과 전사자들을 챙기고 공격한 자를 찾아내라!”

병사들은 숲 뒤쪽을 샅샅이 훑은 후 팔파렌 강가까지 뒤졌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나이트 엘프들이 도망쳤다.’ 사울팽은 으르렁거렸다. 그는 계속해서 움직였다. 이 병사들에게겐 자극이 필요했는데, 이미 조금 전의 공격으로 정신을 차린 듯했다.

본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공성 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부대의 장교인 한 오크는 불만스러운 표정에 억지 미소를 띤 채 깨끗한 파괴전차 곁에 앉아 있었다. 사울팽이 다가오자 그는 빠르게 경례했다. “대군주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사울팽은 못마땅한 듯 그에게 다가갔다. “호드 전쟁에 참가할 마음은 있나? 아니면 이곳 날씨가 너무 좋은 건가?”

장교의 초록색 피부가 점차 붉어지더니 보라색으로 변했다. 오크에게 겁쟁이라는 암시를 주면, 대개는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대군주님 명에 따라 우리 부대를 안전한 거리에 배치한 겁니다. 보호를 위해서요.”

“기습공격으로부터 누가 이 무기를 보호할 건가? 자넨가? 혼자서?” 사울팽은 장교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꼭 찌르며 그를 뒤로 밀쳤다. “몇 걸음만 가면, 군대 전체가 있다. 그들이 자네를 보호해 줄 순 있겠지.”

사울팽은 멈칫했다. 무언가 기억해낸 것이다. “이곳은 전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

“수백 미터입니다. 대군주님.”

사울팽은 장교에게 거칠게 쏘아붙였다. “이 무기의 최대 조준 거리는 얼마인가?”

장교는 우물쭈물했다. “이백 미터 정도...?”

사울팽은 공성전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전방으로 이동한다. 당장!”

그들은 신속하게 명령을 따랐다. 공성 전차들이 강에서 보이는 위치까지 도달하자, 대군주는 열댓 개의 호드 부대가 쓰러진 나무 근처 근처로 피신하는 모습을 보았다. 바윗돌 몇 개가 그들 주변에 놓여 있었다. 한 타우렌이 올라다보더니, 사울팽을 발견하곤 그에게 격렬하게 손짓했다. “물러서세요. 대군주님. 적이 포격 중입니다!”

“그러한가? 포격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지?” 사울팽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사울팽은 공성전 장교를 죽일 듯 노려보았다. 그 장교 역시 죽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엄호 사격을 해주지. 무기 발사 준비!”

공성 전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 부대의 장교는 나약했지만, 병사들은 아니었다. 발사 준비를 마친 병사들은 사울팽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마디 말없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여섯 개의 거대한 바위가 팔파렌 강 위를 날아 건너편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은 사울팽의 발까지 전해져왔다. 그는 만족한 듯 끄덕였다.

“훌륭해. 다시. 적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겁을 주어라.”

무기를 장전하는 동안, 사울팽은 장교를 질책했다.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무사하길 비네.” 사울팽이 조용히 말했다. “전방에서 자네의 승전보가 자주 들렸으면 좋겠군. 내 말 이해했나?”

“네... 네. 대군주님.”

“좋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오크를 남기고 사울팽은 자리를 떠났다.

사울팽의 지휘부는 계속해서 북으로 향했다. 도중에 트롤 정찰병 둘을 마주쳤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사비안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은 작은 호수로 변한 오래된 엘프 유적지였다. 나이트 엘프는 강 건너편에서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다. 트롤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을 건너려는 시도를 모두 저지했다고 한다. 호드가 밀고 들어올 때마다, 나이트 엘프는 그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들을 포위하고 괴멸시킨다는 것이다.

골치 아픈 일이었다. 칼도레이는 그런 작전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벌일만한 충분한 인원이 없을 터였다.

“아주 잘했네.” 사울팽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정찰병들을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냈다.

사울팽은 정찰병이 알려준 정보를 곱씹느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부하들의 얘기를 반 정도 흘려들었다.

“나이트 엘프들의 숫자가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가?”

“만약 지원군이 있다면, 전략을 전부 새로 짜야 해.”

사울팽이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사비안으로 간다.” 나이트 엘프는 걸음으로 보이는 숫자만큼 많은 수의 병사를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압박을 가해 이 추측을 증명해 보일 때가 왔다.



로라쉬 선빔은 소총이 요란하게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단검으로 제대로 공격하기는 약간 먼,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차가운 총구가 그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로라쉬는 그대로 멈추었다. 그의 손가락만이 표창이 숨겨진 소매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소총을 쥔 고블린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실버문?” 고블린이 속삭였다.

로라쉬는 미소지었다. “도랄 아나디엘?”

총구가 아래를 향했다. 고블린은 땅에다 침을 뱉었다. “당신네 엘프들은 다 비슷해 보인다고.”

아마도 로라쉬를 향한 사과와 말이라. 로라쉬는 주변의 숲을 둘러보았다. 나무 몇 그루를 사이에 둔 거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두어 개가 있었다. 로라쉬는 조용히 고블린을 향해 손짓했다. ‘저곳을 겨냥해.’

고블린은 로라쉬가 가리킨 곳을 향해 총구를 돌리며 나무의 오른쪽을 겨눴다. 로라쉬는 단검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며 나무 왼쪽으로 기어갔다.

그 나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로라쉬는 다음으로 의심이 가는 나무를 향해 기어갔다. 그는 고블린이 자신을 엄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나무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다음 나무도, 그 나무 너머의 나무에도 아무도 없었다. 로라쉬는 마침내 긴장을 풀고 고블린에게 돌아갔다.

“재미있었네.” 고블린이 화약을 확인하며 말했다.

블러드 엘프는 손을 내밀었다. “난 로라쉬라고 하네. 네 이름은?”

고블린은 손을 뺀어 그와 악수했다. “치커스.”

로라쉬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름이 뭐라고?”

고블린은 또 침을 뱉으려는 듯 보였다. “이봐, 자기 이름을 마음대로 못 정하는 경우도 있는 법이라고. 내가 자란 곳이 그렇지. 친구들이 이름을 지어주거든.”

“친구들이 너를 치커스로 부른다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나?”

고블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계속 내 이름 얘기나 하고 싶나? 진짜로?”

로라쉬는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했다. “난 파트너를 잃었어. 너도 혼자인가?”

“잃었다고?” 고블린이 눈살을 찌푸렸다. “잃었다는 게 헤어지기로 했다는 건지 아니면...”

“죽었어. 하지만 죽기 전에 나이트 엘프 지휘관을 처치했지.”

“그 친구 신났겠네.” 치커스가 말했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을 찡그렸다. “미안하네. 놀리려던 게 아니라고. 적의 전선에 있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말이지. 너도 알지?”

“이해해.” 팔파렌 강은 수 미터 떨어져 있었다. 호드의 공성 무기 소리가 희미하게 공기를 울리며 들려왔다. 이곳은 아직 나이트 엘프의 영토다. 로라쉬는 이 사실을 뒤바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동료가 있나?”

“대장과 함께 있어.”

“알겠어.” 로라쉬에게는 대장이 없었다. “나이트 엘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아마도 무리를 지어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호드가 강을 건너려 할 때마다, 그들이 진군을 저지할 거야. 그들의 작전은 아직까진 성공적인 것 같군. 이런 작전을 전에도 본 적이 있나?”

고블린은 가볍게 코웃음 쳤다. “그럼, 본 적이 있지.” 그는 나뭇가지 위를 가리켰다. “드루이드들이 무리 지어 저 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 그들이 길 근처에 있을 테니.

‘나뭇가지 위로 뛰어다닌다고?’ 흥미로웠다. 그래서 로라쉬가 땅에서 적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무리 지어 다닌다니... 위험하다. 발각되지 않고 그렇게 이동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이지만,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상황에 하필 약한 나뭇가지라도 밟는 날에는, 무리 전체가 떨어질 것이다.

“우리를 위한 기회로 들리는군, 친구. 수는 얼마나 되지?” 로라쉬가 말했다.

“많아.” 치커스가 말했다.

“그 숫자를 나와 함께 바꿔보지 않겠나?”

치커스는 씩 웃더니 그의 탄약 주머니를 두드렸다. 쇠로 된 총알이 내는 짙그랑거리는 소리가 그의 답을 대신했다.



사울팽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강렬한 인상을 느꼈다. 나이트 엘프는 최정에 병사들을 강 곳곳으로 보내 호드가 공격으로 압박해오는 지점의 방어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진부대가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습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장기 전략은 아니었다. 호드 침입자들이 그들의 방어 병력을 먼저 없애지 못한다 해도, 결국 병력의 소모로 인해 동이 틀 무렵이면 작전이 중단될 것이 뻔했다.

아침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았다. 사울팽은 그때까지 기다리려는 심산이었다. 강 건너 공격에 실패하고 돌아온 생존자들은 모두 적들의 드루이드에 대해 보고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았다. 사울팽은 생각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온 우주의 신과 정령에게 맹세코, 유리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울팽은 보고를 듣기 위해 근처의 마법 시전자들을 불렀다. 몇 분 후, 일곱 명의 마법사와 흑마법사, 그리고 주술사가 그의 부름에 응했다. 완벽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자네들이 공성전 부대에 합류해줬으면 하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했다. 마법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놀라움인가? 아니면, 흥분인가? 사울팽이 말을 이어가자, 한 트롤 흑마법사의 속박된 임프가 공포에 질려 떠들기 시작했다. 트롤이 손을 들어 그 작은 악마를 제지하려고 시늉하자, 임프는 그제야 소리를 낮춰 작은 소리로 툭툭거렸다.

“문제라도 있나?” 사울팽이 물었다.

“이놈이 불을 무서워해서요.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트롤이 대답했다.

“그러니 우리는 지옥 화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이해했나? 주술사, 자네의 임무는 상황을 제어하는 걸세. 이번 임무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말게. 우리는 숲에 불을 지를 것이고, 공격을 끝낼 것이네.”

그리고 사울팽은 잠시 멈추었다. 만일 나이트 엘프가 자신의 숲에 불을 지른다면? 잿빛 골짜기가 불길에 휩싸인다면, 호드의 전진 부대는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많은 병사가 불길에 갇힐 것이다. 그는 이 상황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사울팽은 결단을 내렸다. ‘적들이 자신의 영토를 스스로 불태울 리가 없다.’

“신호를 기다려라. 한 시간이 지나면 이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명령을 기다려라.”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동의를 표했으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밖으로 흩어졌다. 사울팽은 그의 부관에게 이동 준비를 지시했다. “대족장을 찾아야 하네.”

15분 후, 부관들은 남쪽 강가 근처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실바나스 윈드리너와 나타노스 블라이트콜러는 궁수 부대에 합류해있었다. 그들은 독 너머에 집결한 나이트 엘프 부대를 향해 빗발 같은 화살을 퍼붓는 중이었다. 실바나스는 사울팽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계속 공격하라.”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말했다.

사울팽은 대족장, 나타노스와 함께 모였다. 포세이큰 순찰자가 말했다. “대군주, 당신의 계획대로 했지만 큰 진전이 없습니다.”

오크는 그를 무시했다. “대족장, 적의 전선 뒤로 가본 적이 있소?”

“아주 잠깐. 난 단번에 함정을 파악할 수 있지. 그가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소, 사울팽.” 실바나스가 말했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 대족장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지만, 사울팽은 온몸에 한기가 스미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전쟁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말퓨리온을 상대로 결투를 벌인다면, 자신이 패배하리란 것을 사울팽은 잘 알고 있다. “그를 어떻게 다룰 셈이오?”

“그들의 전선을 부술 수만 있다면, 그가 직접 저지하러 올 것이요. 그리고 나는 그를 따라갈 거요. 몇 분 정도 맞서 싸우다가, 멀리 쫓아내면 되요.” 실바나스가 말했다.

올바른 계획이었다. “룩타르 오가르.” 사울팽이 말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 전선을 뚫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강폭이 좁아지는 남쪽이었다. “곧 시작하겠소. 호드를 위하여!”

대족장 주변의 궁수들은 격앙된 함성을 내질렀다. “호드를 위하여!”



드루이드들은 조용했다. 놀라우리 만치 조용했다. 추측건대 아마 열댓 정도, 아니 그보다 많은 수의 드루이드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로라쉬의 귀에 들려오는 건 가볍게 땅을 디디는 짐승의 발자국 소리와 그들의 무게에 짓눌려 부러지는 잔가지의 소리뿐이었다. 대부분은 커다란 고양이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빠르고 강력한 밤호랑이는 나뭇가지 사이를 쉽게 뛰어다닐 수 있었다. 일부는 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날개를 펼쳐 우거진 나뭇가지 밑으로 낮게 활공했다.

로라쉬는 그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거진 나무 때문에 위에서는 그들을 볼 수 없었으며, 가지와 잎 바로 아래에 몸을 감춰 눈에 거의 띄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나무 사이로 비추는 달빛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나처럼은 못하지.’ 로라쉬는 생각했다.

그는 땅에서 20m 높이의 나뭇가지에 앉아 미동도 없이 기다렸다. 그는 거대한 나무 그림자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그림자를 이용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었다. 한 손은 나무를 잡고 있었다. 다른 한 손은 단검을 잡고 있었지만, 드루이드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그는 단검에서 손을 뗐다. 근접 공격이 효과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먼저 나이트 엘프가 땅 위에 내려앉아야 했다.

그들은 몇 초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로라쉬는 나무 기둥에서 떠나 앞꿈치로 균형을 잡으며 나뭇가지에 웅크려 앉았다. 그는 소매로 손을 가져갔다. 두 개의 표창이 만져졌다. 달빛을 반사하지 않도록 흙집을 내고 뭉개진 날에는 독이 묻어 있다. 표창은 그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편안하게 맞았다.

밤호랑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는 밤호랑이의 입을 비집고 나온 엄니와 새의 깃털 하나하나를 볼 수 있었다.

밤호랑이 한 마리가 그의 뒤로 뛰어올랐다. 밤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로라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뛰어갔다. 블러드 엘프의 입술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로 뒤틀렸다.

반 정도의 드루이드가 그를 지나쳐간 후, 그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손목이 회전했다. 그의 손이 활짝 퍼졌다. 표창이 공중을 날았다. 새 두 마리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미친 듯이 날개를 퍼덕이자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한 마리는 나무 기둥에 부딪혀 신음을 냈고, 다른 한 마리는 빙글빙글 돌며 땅으로 추락했다.

이제 여섯 개의 표창이 남았다. 두 개의 표창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다. 하나는 명중, 다른 하나는 실패였다.

드루이드 무리가 방향을 돌렸다. 그들은 공격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공격이 어느 방향에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했다. 로라쉬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를 건너며 달빛을 지나쳐갔다. 그는 다음 나뭇가지로, 그리고 그다음 나뭇가지로 뛰어 내렸다.

그의 뒤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적들이 그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뛰었다. 드루이드가 다니는 길을 따라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렸다. 어쨌든 그는 지금 전선으로부터 먼 곳으로 드루이드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가지들이 몸을 떨었다. 드루이드들은 그를 멈추기 위해 숲에 도움을 청했다. 잠시 후, 나뭇가지들이 그의 발이 닿는 곳에서 몸을 피하고 덩굴들이 그의 발목을 휘감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스스로 줄기를 열어 나무껍질로 그를 감싸 질식사시키려 했다. 그는 이런 옛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로라쉬는 용이가 많은 나무의 가지에 내려앉았다. 한 생명체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정도의 가지였다. 그는 추격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두 개의 표창을 날렸다. 둘 다 실패였다. 하지만 나이트 엘프들을 흠여지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두 개 남았군.’

한 드루이드가 그를 향해 뛰어올랐다. 밤호랑이의 거대한 입이 열리더니 엄니가 그의 목덜미를 향했다. 로라쉬는 몸을 피한 후 단검을 꺼내 위로 원을 그리며 휘둘렀다. 그의 머리와 목덜미 위로 피가 쏟아져 내렸다. 그 드루이드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다른 드루이드가 분노에 차 울부짖었다. 로라쉬는 몸을 일으켜 미소를 짓고는, 피 묻은 단검으로 그들에게 손짓했다. ‘자, 그럼 덤벼봐. 친구의 복수를 해야지.’

드루이드 넷이 그가 있는 나뭇가지로 뛰어올랐다.

로라쉬는 침착하게 뛰어내렸다. 그는 태연히 중력에 몸을 맡기더니 갑자기 단검을 빼 들어 나무 기둥에 힘껏 박았다. 기둥을 굽으며 반 정도 내려가서야 멈출 수 있었다. 나머지 높이는 스스로 뛰어내려야 했다. 하지만 거리를 약간 잘못 계산한 나머지, 착지할 때 그의 무릎이 큰소리로 아우성쳤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무게를 버틸 수 있었기에 무시하고 넘어갔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여러 마리의 드루이드가 동시에 한 나뭇가지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다. 가지는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즉시 부러졌으며, 그들 모두 땅으로 추락했다. 대부분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바닥에 부딪혔으며, 낙하의 충격으로 그의 발밑에서 흙이 진동했다. 나머지 드루이드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가지를 타고 내려오거나 날아오기 시작하자, 로라쉬는 행동을 개시했다. 정신을 잃은 드루이드는 독이 묻은 날에 속절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무뿌리가 흙을 뚫고 나왔지만, 로라쉬는 쉽게 피하며 춤추듯 사라졌다.

끔찍한 울부짖음이 그의 귀를 울려왔다. 맹금류의 날카로운 발톱과 분노에 차 딱딱 소리를 내는 부리가 그의 머리 위로 날아왔다.

탕!

이 소리로 그의 귀는 반쯤 먼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에 맞은 듯, 새의 목이 꺾였다. 새는 곧장 로라쉬 위로 떨어졌다. 시체의 무게가 그를 땅으로 짓눌렀다.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 블러드 엘프는 새의 심장이 아직 강하게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칼날을 박아 넣어 완전히 숨통을 끊어냈지만, 여전히 시체에 짓눌려 꼼짝할 수 없었다.

탕! 치커스의 소총이 다시 한번 천둥처럼 울렸다. 로라쉬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고블린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놈들을 잡아, 대장!”

로라쉬는 몸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며 시체를 밀어냈다.

탕!

‘태양샘에 맹세코, 저 고블린 사격 솜씨 하나는 날래군!’ 발버둥 치던 그는 동작을 멈추었다.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전장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다. 거대한 생명체가 숲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의 발소리는 기묘한 음이 여러 개 겹친 듯했다.

... 치킹 치킹 치킹 치킹...

그리고 비명이 들렸다.

로라쉬가 땀과 피를 비 오듯 흘리며 마침내 새의 몸뚱어리에서 빠져나왔을 때, 일순간 총소리와 비명이 멈추었다. 드루이드 시체들 사이에 한 생명체가 서 있었다. “당신이 대장인가.” 로라쉬가 말했다.

네 다리로 서 있는 거대한 게가 발톱인지 집게인지 모를 것을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로라쉬를 바라보았다. 그 게의 키는 로라쉬의 허리 높이 정도였다. 치커스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뛰쳐나와 미소지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의 소총이 어깨에 메여 있었다. 그 게의 밝은 푸른색 껍데기는 고블린과 비슷한 크기였으나, 무게는 고블린의 두 배 정도 나가는 듯했다.

“대장은 어땠나, 나쁜진 않지?”

로라쉬는 게가 맛있을 것 같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으로만 물어두기로 했다. “그래, 괜찮군. 바다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랐었어.”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군, 대장. 안 그런가?” 치커스는 둘의 솜씨에 찬사를 보냈다. “내 눈이 정확하다면, 대장이 자네보다 더 많은 적을 처치했다고.”

그가 들렸다. 하지만, 거의 비슷했다. 대장의 집게 모양으로 잘려나간 상처가 적어도 드루이드 대여섯 정도의 시체에 새겨져 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대답을 채 하기도 전에,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로라쉬는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숨어.”

치커스는 몸을 돌려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허세 가득한 표정이 사라졌다. “그래. 숨자고.”

그들은 커다란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계도 그들을 따라 나뭇가지에 몸을 숨겼다. 로라쉬가 들은 울림은 점점 크게 들려왔다. 치커스는 천천히 소총의 공이를 당겼다. 하지만 로라쉬는 그의 총에 손을 대며 저지했다.

‘안돼.’ 그가 입 모양으로 말했다.

치커스는 완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도 심장이 단단한 껍질에 싸여있는 대장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진동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그들이 있는 나무를 지나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로라쉬는 위협을 무릅쓰고 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수사슴이 드루이드 시체들 사이에 서 있었다.

로라쉬의 몸이 굳어졌다. ‘저건 설마...?’

갑자기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수사슴은 모습을 감추었다. 안개가 사라지자, 장신의 나이트 엘프가 모습을 드러냈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쇠 발톱이 그의 손목에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거대한 사슴뿔이 그의 머리 위로 솟아 있었다. 쓰러져 있는 그의 백성들 위에 그가 우뚝 서 있었다.

로라쉬는 나무에 등을 기댔다. 그의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공포는 아니었다. 그렇다. 공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대군주 사울팽이 진짜 계획을 말하던 그 순간부터 이 상황을 꿈꿔왔다.

치커스가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야?’ 그가 입 모양으로 물었다.

‘말퓨리온.’ 로라쉬가 대답했다.

고블린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바깥 마른 목에서 찌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퓨리온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편히 쉬어라,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맹세하마.”

로라쉬의 손이 소매를 향했다. ‘표창이 두 개 남았군.’ 그는 과연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말퓨리온을 죽인다면 호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의 독이 말퓨리온의 심장에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 중 오직 반만이 진실이라 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손이 로라쉬의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로라쉬는 무시했다. 그는 공격 계획을 곱씹어보고 있었다.

‘나가서... 던지고... 후퇴... 이동... 그리고 그의 뒤로 간다...’

다른 손이 그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마침내 로라쉬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블린을 바라보았다. 치커스는 입 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로라쉬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내 그는 그 고블린이 종족 고유의 언어로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밖으로 나가기만 해보라고. 내가 너를 죽일 테니.’

로라쉬는 끄덕였다. 이내 고블린은 안심했다. 그들은 말퓨리온이 조의를 표하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치커스는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난 스톱레이지의 머리가 필요해.” 로라쉬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그가 돌아오면 내 기습 공격을 도와주겠나?”

고블린은 크게 코웃음 쳤다. “자네도 보통내기는 아니군.”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젓더니 탄약을 확인했다. “거절하겠어. 지원군이 없다면 말이야. 글쎄,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지원병이 있다면 모를까. 하지만 일단은 엄호해주시.”

그들은 숲속으로 걸어갔다. 계도 순순히 그들을 따랐다.

... 치킹 치킹 치킹 치킹..



한 마법사가 거대한 화염구를 하늘로 날렸다. 그 화염구는 수 미터 밖에서도 보일 만큼 밝은 주황색 불빛으로 숲을 물들였다. 때가 왔다.

“호드여! 나와 함께하라!” 사울팽이 외쳤다. 그리고 강을 건너 공격을 시작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수십 곳에서 일제히 강을 건너며 공격을 시작했다. 나이트 엘프는 이들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었다.

두 명의 마법사와 오크 한 명, 그리고 트롤 한 명이 모여 팔파렌 강의 이 일대를 얼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공격 부대가 간단히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이었기에 사울팽은 즉시 허락했다. 사울팽이 건너편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오십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함성이 그의 뒤를 따랐다. 마법이 깃든 공성전 포탄들이 머리 위 상공을 가르며 커다란 휘파람 소리를 냈다. 땅에 떨어진 포탄은 폭발을 일으키며 숲을 밝게 비쳤다. 사울팽은 불빛 사이로 다른 독 위에 비친 그림자들을 훑어보며 숨어있는 적은 없는지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얼음 위에 발을 헛디뎠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건 하늘이 전부였다. 사울팽이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퐁퐁 언 강에 등을 부딪치며 내는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호드 병사들이 그를 지나쳐 뛰어갔다. 일부는 그의 주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발을 세계 굴러 얼음을 떨쳐내며 독 위로 올라섰다. 그는 눈으로 보기 전에 귓가에 들리는 소리로 전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과 검이 부딪히고, 함성과 비명이 뒤엉켰다.

또 다른 마법사의 주문이 숲을 밝히며 밝은 빛을 내뿜었다. 송곳니를 드러낸 드루이드들이 그의 목을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드러날 만큼 밝았다. 사울팽은 그의 도끼를 한 번 휘둘렀다. 적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죽어있었다.

‘깨끗한 죽음이다.’ 그의 영혼이 노래했다.

그는 달렸다. 곧장 적진을 향해 파고들었다. 화살 한 개가 그의 목을 감싼 갑옷을 쳐 올리더니 튕겨 나갔다. ‘아슬아슬했군.’ 그는 도끼를 돌려 날을 낮게 잡았다. 그리고는 위로 휘둘러 한 엘프를 두 동강 내려 했으나, 그의 사냥감은 뒤로 뛰어오르며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곧 사울팽을 향해 대담히 뛰어들었기에, 그는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발뒤꿈치가 사울팽의 방어구 위로 드러난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사울팽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밝은 별이 보이는 듯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텼다.

그녀는 다시 사울팽을 덮쳤다. 그녀의 주먹이 흐릿하게 보였다. ‘맨손이라니!’ 하지만 그의 머리에 느껴지는 고통은 그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니, 사실인가? 수도사의 손과 발은 무기처럼 쓰인다.

그녀는 실력이 뛰어났지만,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다. 사울팽의 도끼를 피하는 그녀의 잼싼 움직임으로 보아, 사울팽은 그녀가 피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울팽은 도끼를 두 번 휘두른 후, 그녀가 피하는 순간 몸을 기울여 그의 무거운 장화로 상대의 배를 강타했다. 그녀는 뒤로 나동그라지더니 덩불 속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사울팽은 몸을 돌려 다시 전장에 집중했다. 수십 명의 적이 지척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싸움에 몰입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짓이었다.

호드 전사 둘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뿌리와 나뭇가지를 베어냈다. 사울팽은 그들을 거들었다. 그는 이 술수를 부리는 드루이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 식물들이 어느 정도 진압되자, 이 셋은 한꺼번에 나이트 엘프의 후방 경비병을 공격했다. 상황은 급변했다. 칼도레이가 병력을 지원할 정예 부대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발목을 잡힌 채로 파괴당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승리를 바라기엔 칼도레이 군사의 숫자가 너무 적었으며, 그들의 전선은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있다.

‘이곳은 너희들이 항전할만한 곳이 아니야, 바보 같으니라고.’

아니면, 항전해야 마땅한 곳인가? 나이트 엘프의 전투는 확실히 바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돌연, 사울팽은 뱃속에 한기를 느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시간을 벌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터였다.

사울팽은 전쟁의 소음을 뚫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결하라! 내게 오라! 대열을 정비하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혼잡한 상황이었다. 양손에 도끼를 든 오크가 함성을 지르며 사울팽을 지나쳐갔다. 사울팽은 그의 도끼 손잡이를 바깥으로 내밀어 그 오크의 발목 근처를 내리쳤다. 그리고 그 오크가 넘어지며 흙더미 위에 얼굴이 처박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집결하라!” 그가 다시 한번 외쳤다. “대열을 정비하라!”

그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다. 호드 병사들은 비로소 외치기 시작했다. “대열을 정비하라! 대열을 정비하라!”

호드 병사들은 서서히 개별 전투를 끝내기 시작했다. 넘어졌던 오크가 일어나 사울팽의 옆에 섰다.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가가 수치심에 떨리고 있었다. 사울팽은 그가 넘어지는 것을 못 본 체했다. “강 건너로

돌아가라. 마법사사, 흑마법사, 주술사를 모두 불러모아라. 마법을 쓰는 자는 전부. 당장 이곳에 모이게 하라.” 사울팽이 그에게 말했다.

그 오크는 가슴 앞에서 주먹을 감싸 진 후, 아무 말 없이 갑옷의 흠을 털어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사울팽은 다른 병사들에게 소규모로 무리 지을 것을 명했다. “궁수들은 뒤로. 방패는 전방으로 집결하라. 마법 시전자들은 중간에 배치한다. 반격을 준비하라.”

거의 모든 호드 부대가 그의 명령을 따랐다. 나이트 엘프 역시 뒤로 물러섰다. 역시,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사울팽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어디 있지? 함정은 어디에 있는 거지?’ 사울팽은 신호를 찾아 어두운 나무 사이를 응시했다.

‘저기로군.’

저 멀리에 달빛을 등진 한 형체가 서 있었다. 팔에는 깃털이 가득하고 머리 위로 사슴뿔이 솟아 있는 한 엘프였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하나씩, 다른 호드 병사들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강 건너편에서 지원군이 도착했다. 사울팽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명령을 내렸다. “마법사는 왼쪽으로, 흑마법사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주술사는 나와 함께 한다. 대기!”

그들은 명령에 복종했다. 빠르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 대기했다. 멀찍이 서 있는 엘프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다. 1분...2분...3분...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울팽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룩타르 오가르!”

사울팽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외침은 멀리 있는 작은 오크 부대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북쪽을 향해 강을 막 건너온 참이었다. 그들은 엘프를 발견하고 달려드는 중이었다.

“내게로! 나에게로 집결하라!” 사울팽이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엘프의 눈이 오크를 향했다. 잿빛 골짜기 숲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청껏 높이던 오크 병사들의 외침이 일순간 멈췄다. 고함도, 무기가 부딪치는 소리도, 전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의 부산한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갑옷으로 무장한 몸뚱어리 여럿이 땅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엘프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대자연에 명령을 내렸을 뿐이었다. 엘프의 눈은 다시 사울팽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무를 통해 쉽게 전달되었다. “이곳은 그대의 땅이 아니다, 대군주.” 말퓨리온 스톱레이지가 말했다.

“이제는 내 것이지.” 사울팽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네와 자네의 백성이 평화롭게 떠날 기회를 주겠다. 내 제안을 수락하라, 대드루이드여.”

“평화?” 말퓨리온의 말에는 분노가 녹아있었다. “여기에 발을 들이려는 호드는 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호드 군단이 소란스러워졌다. 그것은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소리였다. 말퓨리온을 쓰러뜨린 자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대부분 병사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터였다.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라.” 사울팽이 속삭였다. 그리고는 크게 외쳤다. “그렇다면, 덤벼라. 스톱레이지. 우리를 물리쳐 보아라.”

말퓨리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상대를 응시할 뿐이었다.

함정이 있는 게 분명했다. 사울팽은 확신했다. 나이트 엘프는 이곳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항전했다. 이 강에서 너무 많은 목숨을 잃었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호드가 계속 공격을 지속한다면, 피의 굽주림에 굴복한 채 이미 패배한 적을 뒤쫓는 즐거움에 빠져 자신을 잃는다면, 아마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말퓨리온에게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미끼를 문 자는 거의 없었다.

다른 나이트 엘프들은 후퇴했다. 말퓨리온 혼자 서 있다. 칼도레이는 철수한 것이다. 그들이 강의 한 구역을 포기한다면, 강 전체를 잃게 된다. 호드는 곧 강을 건너 말퓨리온을 포위하고 그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말퓨리온은 강력한 엘프이지만, 혼자 이곳에서 버티고자 한다면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대드루이드는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근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을 기습하리란 사실을 추측하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사울팽은 기다리기로 했다. 그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패배할 리가 없다.

말퓨리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몇 분이 흐르고, 그는 마침내 뒤로 물러섰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십 명의 호드가 안도의 한숨을, 그중 일부는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울팽은 몇 분 더 기다렸다. 위험이 확실히 지나간 것인지 확인한 후,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호드가 팔파렌 강을 점령했다.” 그가 말했다.

승리의 함성이 그를 뒤덮었다. 무기와 방패가 부딪치며 진동했다. 한 블러드 엘프 마법사가 축하를 알리는 화염구를 하늘로 쏘아 올렸다. 사울팽은 그들을 저지하지 않았다. ‘적들이 내는 승리의 함성이 말퓨리온을 쫓게 하리라. 칼도레이 전체가 자신의 패배를 알게 하리라.’

사울팽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강 이곳저곳에 정찰꾼들을 보냈다. 얼마 후, 멀리서 승리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호드는 승리를 향한 여정에 놓인 장애물 하나를 거뒀던 것이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결코 쉬운 전쟁은 아니리라...

하지만 승산이 있었다. 호드는 결국 엄청난 규모의 명예로운 정복에 성공할 것이다.

다르나서스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보상이 될 것이다.



로라쉬는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발목은 나뭇가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차분했다.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했다. 아주 강렬한 열정이었다.

그렇다. 그는 아주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다.

치커스는 그를 설득하려 애썼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너랑 나 둘이서만 말퓨리온
스톰레이지를 처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그를 놀라게 한다면...”

“여기에 대장을 끌어들이는 순 없네. 알아듣겠나? 얼마든지 하게. 자네 혼자서 하라고.”
고블린은 단호했다.

그랬다. 로라쉬는 혼자였다. 그는 분노에 찬 말퓨리온의 음성과 상대를 도발하는 사울팽의 대답을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나이트 엘프가 이 길을 통해 후퇴했다. 아마 말퓨리온도 이 길을 지날
것이다. 나이트 엘프 지도자는 다음 방어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의 병사들과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희박하게나마 말퓨리온의 정신이 산만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패배로
괴로워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다.

부드러운 잎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오자, 로라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때가 왔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블러드 엘프를 위해!’

그의 발목이 움직였다. 그는 머리부터 땅을 향해 곤두박질쳤다. 그의 양손은 단검을 꽂 쥐고 있었다.
그가 뛰어내린 시기는 아주 적절했다. 말퓨리온은 그의 바로 아래에 있었으며, 위를 올려다보지도 않았다.

로라쉬는 두 단검으로 원을 그렸다. 단검이 교차하는 순간, 두 단검은 스톰레이지의 목을 그어 그의
머리를 몸통에서 분리해 놓을 것이다.

하지만 단검은 교차하지 못했다.

말퓨리온이 비켜선 것이었다. 로라쉬가 땅에 닿기 바로 직전, 나무뿌리가 땅에서 솟아나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그는 단검을 떨어뜨렸다. 그는 오른쪽 어깨와 목으로 땅에 착지하며 놀라움에 가득한
비명을 내질렀다.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왔다. 오른쪽 팔에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움직일 순 있었다.

점점 더 많은 뿌리가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가 발을 제대로 디디기도 전에, 나무뿌리가 그의
손목과 발목, 목덜미를 단단히 감아 움짱달짝 못 하게 땅에 움아맸다.

‘제길.’

로라쉬는 순간 뿌리에 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뿌리는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 세계
움켜쥐어 부서뜨리거나 사지를 뜯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블러드 엘프는 증오에 찬 눈으로
말퓨리온을 올려다보았다. 말퓨리온은 가없다는 듯 그를 응시했다.

“무의미한 짓이다. 이 공격은 무의미하구나.” 말퓨리온이 조용히 말했다. “형제여, 우리는 서로
적이 되어선 안 되네.”

로라쉬의 단검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아득히 먼 곳처럼 느껴졌다. 그의 소매에는 두 개의 표창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는 표창을 던지면 자신이 죽으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스톱레이지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나머지 호드들도, 느껴진다. 실바나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말퓨리온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우리의 백성들은 한때 함께 살았었다. 같은 전장에서 함께 싸우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부서진 섬에서는 불과 몇 달 전 일이었다. 내 칼도레이와 그대의 신도레이 사이에 균열이 있어선 안 된다.”

로라쉬는 그의 목을 움켜쥔 뿌리 사이로 신음을 내뿜었다. “누가 그 분열을 만들었지, 스톱레이지? 누가 내 민족을 추방했지?”

“그날 떠나던 자들의 얼굴을 기억하네. 자네 얼굴은 그 사이에 없었어. 그대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를 듣고 내 고향을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대족장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나쁜지 알 수 없을 정도로군.” 말퓨리온이 말했다.

로라쉬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다. ‘말퓨리온은 대화를 원한다.’ 나이트 엘프의 지도자는 블러드 엘프가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로라쉬는 그에게 가까이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 그 모든 일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지. 나는 티리스팔 숲에서 태어났어. 어린 시절 나는 내 가족, 그리고 나머지 종족과 함께 도망쳐야 했다. 수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아직도 기억해. 아주 긴 겨울, 산꼭대기에 갇혀 지내던 그때를 기억하지.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사냥을 나서던 아버지는 동상으로 손가락을 하나둘씩 잃어갔어. 하루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지. 말퓨리온, 당신의 백성 중 몇이나 동상으로 죽어갔는가? 우리 종족과 그 역사를 함께 했나?”

말퓨리온은 대답하지 않았다. 로라쉬는 마음속으로 미소지었다. 그는 단검을 쓸 수 없었지만, 스톱레이지가 피를 흘리게 만들 순 있었다.

“나는 수백 년 동안 트롤을 상대로 싸웠던 전쟁을 기억한다.” 로라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 어릴 적 친구들이 갈가리 찢겨 아마니의 오두막과 마을을 장식했던 광경을 기억해. 당신도 알겠지만, 그것이 아마니 트롤의 자랑이었지. 그때 우리를 도운 칼도레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나? 아니. 나는 죽음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을 덮치던 날을 기억해. 내 어머니가 죽어 리치 왕의 군사가 되었을 때, 누가 나의 어머니를 죽이고 안식을 주었는가? 그것이 당신인가, 말퓨리온? 우리의 고향을 잃을 때 함께 싸워주었나?”

“우리는 불타는 군단을 겨우 물리쳤네. 그 과정에서 고향을 잃었지.” 말퓨리온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리고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수년간 이어져도, 우리는 절대 자네의 고향을 공격하지 않았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

“난 조금은 상상했지.” 로라쉬가 말했다.

“자네 민족이 자네만큼 타락하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군.”

“나 역시 다행이야.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고향을 정복하는 걸 똑똑히 볼 테니.” 로라쉬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의 심장은 이미 그가 무리했음을 알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상상만 해도 역겨움이 느껴지나? 엘룬의 사원이 신도레이로 가득한 장면을?”

로라쉬는 눈가에 언뜻 움직임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어둡고 민첩한 움직임이었다. 누군가 오고 있다.

말퓨리온이 고개를 들었다. 그도 알아챈 것이다.

“넌.” 말퓨리온이 말했다.

“이쉬누 달 디에브.”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그녀의 활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로라쉬에게는 기회였다. 단 하나뿐인 기회였다. 그는 손으로 뿌리를 밀쳐내며, 마지막 남은 두 개의 표창을 향해 절박하게 손가락을 뻗었다. 손이 곧 닿을 듯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위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다.

블러드 엘프는 감탄에 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암흑에 싸인 화살과 초록색으로 빛나는 마법이 허공을 갈랐다. 암흑의 기운이 말퓨리온의 뒤에서 폭발했다. 로라쉬는 그를 묶은 뿌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로라쉬는 양팔을 뒤로 당겼다. 표창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그의 손바닥이 찢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독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가 다가온다, 점점 가까이...

말퓨리온이 손에 무기를 쥔 로라쉬를 보았다. 로라쉬의 목을 감은 뿌리가 단단히 조여졌다.

로라쉬는 뼈가 우두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으며 정신도 또렷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폐는 공기를 빨아들일 수 없었다. 몸 전체의 감각이 사라졌다. 정신이 흐릿해져 갔다.

“그대의 종족은 아직 내 고향을 정복하지 못했어.” 그는 말퓨리온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실바나스를 향한 것인가? 로라쉬는 알 수 없었다.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 시야가 점점 좁아졌다. 아마 표창의 독 때문인 것 같았다.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그의 위에 서서 그가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로라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녀라면, 말퓨리온은 분명 물러섰으리라.

‘제길. 말퓨리온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로라쉬는 정신을 잃었다. 그는 저세상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치커스는 조심스레 빈터로 나왔다. 대장은 그의 바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로라쉬는 땅 위에 죽은 듯 누워있었다. 뿌리 하나가 그의 목을 감고 있었고, 그의 머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비틀린 채 놓여 있었다.

“이런 세상에.” 치커스가 한숨을 내쉬었다.

대족장이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활에서는 여전히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며, 붉은 눈이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았다. “그를 아는가?”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치커스는 당연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죽은 건가요?”

“그렇다. 그는 혼자서 말퓨리온에게 덤볐고, 그래서 목숨을 잃었다.” 실바나스가 말했다.

“누구든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니까요.” 고블린이 중얼거렸다.

대족장은 그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가 미소를 보인 것이다.

“매우 지혜로운 말이로군.” 그녀가 말했다. “사울팽 대군주에게 보고하라. 이 전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어둠해안에서의 승리

어떤 손이 사울팽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도착했습니다. 대군주님.” 모르카가 말했다.

그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전투 상황은 어떠한가?”

모르카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울팽은 수레에서 뛰어내려 눈을 가늘게 뜨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직 태양이 낮게 걸려 있으니 오래 잠든 건 아니었다. 아마 15분 정도 지났으리라. 며칠 동안 계속된 전투 중 누리는 낮잠은 꿀맛 같았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피로의 무게를 털어주기엔 부족했지만, 생각을 전환하기엔 충분했다.

사울팽의 앞에는 호수가 있었다.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 호수를 거의 둘로 나누다시피 했으며, 그 섬에는 작은 칼도레이 마을이 있었다. 아스트라나르였다. 어둠해안으로 가는 길에 놓인 나이트 엘프의 마지막 요새이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오직 두 개의 다리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전쟁의 무대로 완벽한 곳이었다. 나이트 엘프가 이미 이 마을을 잃었다면, 호드에게 있어 기적 같은 승리나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아스트라나르를 방어하지 않았나?” 사울팽이 물었다.

모르카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나이트 엘프들이 이미 죽어있었습니다. 아군 정찰병 말로는 시체에 독살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쪽 침입자들이 분명... 성공한 것이겠죠.”

놀라웠다. 사울팽은 어떤 도적이 이렇게 완벽히 임무를 수행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마을을 한 번 더 훑어서 공작원을 찾아내게. 찾은 건 죄다 여관으로 가져오도록. 아스트라나르는 잿빛 골짜기 정복에 꼭 필요한 마지막 지휘 초소네.” 그가 말했다. 이제 그는 울퉁불퉁한 길을 굴러가는 나무 수레 대신, 침대에서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장은 고요했다.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를 잡기 위해 호드 전선에서 수 미터 떨어진 무성한 덤불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수백 가지의 전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승리한 자의 함성과 죽어가는 자의 울부짖음. 이 소리 모두, 멀리서 들으면 그저 형체 없는 전쟁의 외침으로 들릴 뿐이었다.

실바나스는 소리를 무시했다. 그녀가 말퓨리온의 흔적을 다시 발견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먹잇감을 사냥하게 될 것이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는 그녀의 예상보다 능수능란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리도록 하는 법이 없었다. 며칠 동안 그는 호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호드 병사들을 산산조각내고는 실바나스가 그를 발견하기도 전에 숲으로 사라져 버리곤 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행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그의 행동이 전쟁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아야 했다.

그가 지금 이곳에 없다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실바나스는 자신을 둘러싼 숲을 바라보며 애써 걱정을 떨쳐냈다. 바로 여기, 이곳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이러한 종류의 고요함은 오로지 죽음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그녀의 주변에 있는 열댓 구의 시체는 모두 호드였다.

“죽음은 우리를 모두 데려가지.”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그들에게 속삭였다.

나지막한 조문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죽은 호드 병사들이 죽기 직전에 겪은 고통을 위로할 순 없었다.

실바나스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지켜봐 왔다. 시체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잔디와 나뭇잎을 짓이긴 밭자국, 사지를 읊아매기 위해 땅을 뚫고 솟아난 뿌리가 들쭉신 흙, 병사들이 죽음을 맞이한 자리마다 가득한 그늘음 자국. 이 모든 것들이 전사자들이 느낀 공포의 증거였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이트 엘프 무리가 드루이드거나 마법사였으며 이 무성한 덤불 속에 숨어있었다. 호드 부대가 이곳을 지나갈 때, 칼도레이 무리는 화살과 마법, 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전쟁 무기를 퍼부어 거의 모든 공격수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불과 몇 초 만에 호드 병사 30명 전부가 쓰러졌다. 드루이드는 자연을 소환해 병사들을 결박했고, 마법사들은 일부 병사를 얼음 속에 가두었다.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즉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살아있는 채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고서 그들은 본격적인 학살을 시작했다.

이 호드 병사들은 불꽃이나 화염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저 천천히, 고통과 비명 속에서 불태워졌다. 나이트 엘프는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 공포를 길게 끌었다.

‘자신의 백성이 한 짓을 보면 말퓨리온은 몹시 화낼 테지. 상처를 열고 피를 흘리게 하다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증오를 표출하는군.’ 실바나스는 생각했다.

칼도레이는 자신들이 수적으로 열세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고향을 잃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실바나스와 마찬가지로, 아마 그들 중 일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르나서스가 언젠간 잣데미로 변할 것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분노에 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전쟁에 이기거나 주민의 대피를 위한 시간을 버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고통을 주는 데 사용했다. 그들의 분노는 문명의 걸치레와 명예의 허식을 모조리 벗겨냈다.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전쟁이 저지른 일이었다. 그것이 전쟁의 역할이었다. 문명화된 존재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실바나스는 이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다. 아마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갈 것이다.

말퓨리온... 그는 피할 수 없는 일에 분노하고 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아마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됐으리라.

‘그것이 그를 패배로 이끌 것이다.’

사울팽은 이 사실을 이해할 것인가? 그도 실바나스가 본 것과 같은 심연을 언뜻 본 적이 있다. 그의 아들인 드라노쉬는 명예로 이름을 날렸지만, 죽음이 찾아온 순간에는 명예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울팽은 아들이 리치 왕의 꼭두각시가 되어 놀아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사울팽은 영혼에 상처를 입었다. 그조차도 자신의 영혼이 망가졌음을 인정할 정도였다.

한때 실바나스는 그가 다시는 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는 전장으로 돌아왔다. 그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사울팽은 죽는 날까지 자신을 지탱해줄 것은 오직 명예라고 여기는 듯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명예가 전부였다. 명예와 호드, 만약 이 두 가지를 모두 그에게서 뺏어간다면, 그가 무슨 행동을 보일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마 내 적으로 돌아서겠지. 그것도 아주 무서운 적.’

사울팽에겐 다행히도, 지금 대족장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명예와 저항이었다. 자신을 스스로 파괴할지도 모를 선택에 직면하기 전에, 아마도 그는 전장에서의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그 늙은 오크가 나를 놀래줄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편에 서서 싸움을 이어갈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기다려도 될 일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말퓨리온은 잿빛 골짜기의 북쪽 경계에 잠시 머물다가 남쪽으로 향했다. 실바나스는 확신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그는 이 덩불을 지나가지 않았다. 무엇이 그의 주의를 끌었을까?

이유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남쪽에서는 전쟁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쪽은 아스트라나르가 있는 방향이다. 그곳은 전장이어야 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획적인 것이리라.

그녀는 덩불에서 나와 남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본능이 아스트라나르로 이끌었다.



전투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다. 사울팽도 그 사실을 알고 호드도 알았다. 그 어느 때보다 결사적으로 싸우는 걸 봐서는 나이트 엘프도 알고 있는 듯했다.

사울팽은 여관 휴게실에서 가장 큰 탁자 위로 몸을 기울여 전략가들과 함께 잿빛 골짜기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었다. 부관들이 최근 있었던 호드의 움직임과 얼라이언스 목격 지점을 이미 지도에 표시해두었다. 남쪽으로는 전선이 이미 끝까지 뻗어 나간 상태였으며, 북쪽 전선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다. 말퓨리온이 북쪽에 주둔한 호드 부대를 갈가리 찢어 놓았지만, 지원군이 도착해 부족한 병력을 메꾸었다. 잿빛 골짜기에서의 마지막 나이트 엘프 항전지를 지도상으로 보면, 초자연필로 그린 무수한 표시에 깔려 곧 부서질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불모의 땅 북쪽에서 아스트라나르까지 달하는 영토 안에 남아있는 나이트 엘프 본거지는 없었다. 칼도레이는 호드 진영에 정찰병을 풀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지만, 그것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물품 보급로는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르나서스로 진격하기에 충분한 양의 물자가 전방에 공급되고 있었다.

‘우리가 잿빛 골짜기를 점령한 것이다.’ 그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선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특히 자신의 추측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승리는 너무 쉽게 찾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잿빛 골짜기는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그저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일 뿐이다.

사울팽의 손가락이 잿빛 골짜기 가장자리에서 어둠해안까지의 해안선을 따라 움직였다. 호드는 어둠해안에서 다르나서스에 공격을 가할 계획이다. “이제 최종 공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군.” 그가 말했다.

“멈추지 않고 어둠해안까지 가는 겁니까?” 한 오크가 물었다.

“우리는 해안가 남쪽에 주둔할 것이다.” 사울팽이 그리 멀지 않은 위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조람가르 전초기지였다. 헬스크림이 폐워된 이후로, 호드는 이곳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군대를 재정비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잿빛 골짜기에서 해변 쪽으로 공터가 하나 있다. 나이트 엘프는 노출된 곳에서 공격을 감행하진 않을 것이다. 해안은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다.”

“나이트 엘프 함대가 곧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운이 따른다면, 그들이 돌아오는 데 며칠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적의 함대는 오늘 오후 중으로 페랄라스에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그들의 포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 블러드 엘프가 말했다.

“만약 함대가 주민들을 구출하는 대신 우리에게 공격을 퍼붓는다면...” 사울팽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함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함대가 많은 수의 나이트 엘프를 세계수에서 대피시킬 순 있어도, 그들을 바다 너머로 이동시킬 시간은 없을 것이다. 대피를 돕는 것보다 호드의 공격을 멈추는 편이 더 많은 주민을 탈출시킬 수 있다. “자네 말이 맞네. 지금 우리 쪽 공성 무기는 얼마나 남아있지?”

이 질문으로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다. 전략가들은 정보를 비교한 뒤, 나이트 엘프가 호드의 공성 무기를 약 절반가량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혔다고 보고했다. 사울팽이 바란 것보다는 큰 피해였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공성 무기는 나이트 엘프의 최우선 공격 목표였으니 말이다. 호드가 무기들을 어둠해안에 배치하지 못한다면, 세계수 공격에 필요한 엄호 포격을 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무기를 갖고 있다. 충분한 것 이상이지.’ 사울팽은 계속해서 명령을 이어갔다. “공성 무기를 여기로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가 해안을 차지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라.”

이후 몇 시간에 걸쳐 무기와 무기를 다루는 병사들이 마을로 들어와 아스트라나르를 가로지르는 가운데 길을 따라 배치되었다. 그의 부하들이 지도에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지켜보며 탁자를 응시하던 사울팽은 가까스로 알아차렸다. 누군가가 칼림도어와 동부 왕국 사이에 있는 바다 지도를 펴고 얼라이언스 지원군의 진군 위치를 표시해놓았다. 그들의 함대는 여전히 며칠이 지나야 도착하는 위치에 있었다. 당장 상황을 바꾸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호드 역시 갈 길이 멀었다. 사울팽은 스스로 되뇌었다. ‘아주 먼 길이다.’ 앞으로 죽고 죽이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그들을 이끈 전략은 끝내 호드를 서쪽 해안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전투는 이미 나이트 엘프가 멈출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울팽의 군대는 소규모 무리를 지어 진격했고, 적군을 만나면 완강히 버텼다. 나이트 엘프는 고작해야 한두 곳에서 전선을 지킬 정도의 병력이 전부였다. 말퓨리온은 혼자서 전선을 지켜냈지만, 실바나스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말퓨리온을 잡기 위해 그를 움짱달짝 못 하게 만들고 있었다. 호드의 공격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전장에서 후퇴하는 나이트 엘프는 호드 정찰병에 잡혀 호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전장을 지키는 나이트 엘프는 금세 포위당하곤 했다. 호드는 굳이 나이트 엘프의 방어선을 뚫을 필요가 없었다. 충분히 그들을 포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호드 병사가 매복해 있는 적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말퓨리온은 자신에게 덤비는 어리석은 자들을 모두 죽이며 호드의 모든 전선에서 큰 피해를 주었다. 최종 전사자 수를 세어본다면, 칼도레이 전사자보다 호드 전사자의 수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울팽도 예상한 바였다. 그는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적의 본거지를 위협하고 그들의 땅을 침략하려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했다.

‘지금의 희생은 다음 전쟁의 시작을 막기 위한 대가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 전령이 여관에 도착했다. 대족장의 의장병 표식을 지닌 포세이큰이었다. “사울팽 대군주님 이십니까? 지금 밖으로 나와보십시오.”

사울팽은 아주 잠깐 그를 못마땅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 녀석은 예의란 걸 모르는군.’ 그리고 그는 다시 지도에 집중했다. “할 말을 전하고 나가라.”

“대족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생각입니까, 대군주님?”

만약 사울팽이 그의 첫 대족장이었던 블랙핸드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의 목은 즉시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명령을 따랐다. ‘이놈은 죽일 가치도 없다.’ 사울팽은 문을 향해 세 걸음

걸어간 후에야 그의 도끼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끼는 탁자 위에 놓여있었다. 피로가 그를 엄습해왔다. 그는 툭툭거리며 도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경호를 맡은 모르카가 사울팽을 지나쳐 가더니 전령을 노려보았다. “이봐 전령, 이름이 뭐지?”

“나는 여왕님의 사절이요.” 전령이 말했다. “그걸로 부족하단 말이요?”

사울팽의 손이 도끼의 손잡이를 향했다. “그녀가 자네에게 물었지 않나.”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 뭐가?”

“명령입니다. 밖으로 나오십시오, 대군주님. 대족장님을 얼마나 기다리게 하실 생각입니까?” 포세이큰이 단조로운 어투로 물었다.

사울팽은 입을 딱 다물었다. 그는 모르카를 슬쩍 본 후 앞으로 다가갔다.

“대족장의 수하가 아니로군.” 사울팽이 말했다. 아무리 열렬히 충성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포세이큰은 없다. 하지만 포세이큰인 척 연기하는 자라면... “말하라, 나이트 엘프. 말푸리온은 네놈을 뭐라 부르느냐?”

전령의 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그의 허리춤을 향해.

그걸로 충분했다. 사울팽은 도끼를 들어 올리며 외쳤다. “칼을 뽑아라, 암살자. 아니면 겁쟁이처럼 도망치다 죽어라!”

그리고 공격했다.

포세이큰으로 변장한 괴한은 숨겨뒀던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가 휘두른 칼끝은 허공에 검은 연기 자국을 남겼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남길 것이다. 사울팽이 도끼를 휘두르자, 암살자는 무릎을 꿇으며 오크의 다리에 칼을 휘둘렀다.

‘나이가 어린 것이 분명하군.’ 사울팽은 생각했다. 노련한 싸움꾼이라면 목숨을 건질 기회를 두고 확률이 낮은 공격을 감행할 리 없다.

암살자의 칼이 사울팽에게 닿기도 전에, 사울팽의 장화가 그의 턱 바로 아래에 꽂히면서 암살자를 들어 올렸다. 목표에 제대로 꽂힌 사울팽의 도끼는 암살자의 목을 가르고 척추를 내리쳤다.

변장이 사라지자 사울팽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나이트 엘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 어렸다. 나이트 엘프 기준으로 이제 막 소년티를 벗은 나이였다. 사울팽이 도끼를 비틀어 빼내자, 적의 몸이 기울었다. 그 젊은이는 소름 끼치게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쳤다. 나무 바닥에는 그의 피가 흥건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사울팽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울팽은 그의 표정을 잊지 못할 것이다. 젊은이의 죽음. 그것은 전쟁의 잔혹한 진실이었다. 살아남은 자는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편히 쉬어라. 명예로운 죽음이다. 더 바랄 건 없겠지.” 사울팽이 그에게 말했다.

엘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울팽은 아주 잠시 그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죽어가는 도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사울팽의 장화에 침을 뱉었다. 사울팽의 갑옷 위로 피와 침이 뒤섞여 흘렀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모르카는 사울팽 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양손에는 작은 도끼가 들려있었다. 그녀가 도끼를 미처 사용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끝까지 저항하는군요. 놈의 동족이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사울팽이 동의했다. ‘대단한 기개였다. 그런데 이름조차 모르는군.’

“암살자를 잘 발견해 주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어.” 사울팽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바깥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밖에는 공성전 공격대와 경비병, 그리고 병사들이 즐비했다. 아스트라나르는 호드로 넘쳐났다. 그런데도 그들 사이로 버젓이 돌아다니는 이방인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아무도 이방인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울팽은 이 사실을 호드 병사들에게 상세히 알려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잘 들어라!” 그가 말을 시작했다. 모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병사들의 시선은 사울팽의 도끼와 갑옷에 묻은 피에 머물렀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호드에게 상기시켜줘야 하겠나? 호드는 지금...”

그리고 그는 멈췄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고된 경험으로 체득한 그의 생존 본능이 비로소 피로에 지친 그의 영혼을 일깨운 것이다. 그 소년은 암살을 위해 보내진 자가 아니었다.

그 소년은 사울팽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 애썼다.

그의 경비병들을 성급히 훈계하려 한 덕에, 사울팽은 그 소년이 바라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만 것이었다. ‘스스로 내 무덤을 판구나, 이 멍청한 늙은이 같으니.’ 그는 몸을 돌려 급히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대지가 흔들리며 말퓨리온 스톱레이지가 방금 사울팽이 서 있던 곳에 내려앉았다.

“로크 나라쉬!” 그가 외쳤다. “무기를 들어라!”

사울팽의 부관과 전략가들은 이미 휴게실 안에서 전투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사울팽을 뒤로 보낸 뒤 만반의 태세를 취했다. 다른 나이트 엘프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 여관의 벽도 삼면이 트여있었기 때문에 바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볼 수 있었다. 공성전 병사들은 말퓨리온으로부터 정신없이 도망쳤지만,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검에 맞아 쓰러져갔다.

말퓨리온만 온 것이 아니었다. 이번 공격은 잿빛 골짜기에서 벌이는 칼도레이의 마지막 항전이자, 이 전쟁의 지휘관을 향한 참수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팽을 너무나 쉽게 끌어낸 것이다. 아스트라나르는 접근이 제한적인 섬이다. 그만큼 방어도 쉽다.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방금 사울팽은 벽이 뚫려 있는 건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대드루이드와 맞서야 했다.

‘이제 모든 게 끝인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혼돈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여관 안이 어두워졌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가 문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사울팽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군주의 부관 셋이 말퓨리온을 공격했다.

“멈춰!” 사울팽이 외쳤다.

말퓨리온이 움직이자, 그의 손목에 묶인 쇠 발톱이 간단하게 두 오크와 한 블러드 엘프를 처치했다. 그는 세 부관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다가섰다.

모르카는 사울팽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대군주님, 도망치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벌어드릴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했다. 눈 깜빡하는 시간조차 벌지 못할 것이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해야 할 때가 왔다. “지도로 쟁겨라. 지도를 대족장께 전달하거라.” 그가 속삭였다.

모르카의 눈이 커졌지만 사울팽은 몸을 돌려 외쳤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 너에게 막고라를 신청한다!”

그의 말은 스스로 생각해도 기이한 것이었다. 나이트 엘프에게 오크식 죽음의 대결인 막고라를 신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말퓨리온의 목표는 사울팽이다. 사울팽의 부관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울팽은 여관에 있는 다른 호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혼란에 빠진 그들을 바라보며, 그는 더욱 크게 외쳤다. “스톱레이지는 내가 상대한다! 이 하룻강아지들아! 여기서 5초 안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죽여주마!”

모르카는 화가 난 듯 보였지만 그의 명령을 따랐다. 그녀는 지도가 든 통을 낚아채더니 건물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머지 병사들도 서둘러 그녀를 따랐다.

말퓨리온의 시선은 여전히 사울팽의 눈에 머물러 있었다. “결투라고 했나, 사울팽?”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은, 무덤에서 갓 파낸 흙과도 같은 부드러움이었다. 대드루이드는 침착하게 걸어 나와 그를 기다리는 사울팽에게 다가갔다. “내가 결투에 눈곱만큼이라도 신경 쓸 것 같은가?”

“두렵다면 도망가도 좋다.” 사울팽이 말했다. 그는 단지 시간을 버는 중이다. 그게 전부였다. 사울팽이 바랄 수 있는 단 하나의 승리는 호드 부대의 최근 움직임을 실바나스에게 알려 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뿐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덤벼라. 내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아라.”

말퓨리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팔을 들어 올렸다. 여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무 바닥과 천장이 삐걱거리며 굉음을 냈다.

사울팽은 입술을 바짝 당기며 으르렁거렸다. 휘두르는 주먹이나 허공을 가르는 칼날에서는 대자연의 힘을 찾아볼 수 없다. 대자연의 힘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한 숲이 불과 몇 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대자연의 힘은 십여 년간 버려져 있던 거대한 도시가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조상의 본능을 물려받아 먹고 먹히는 삶을 반복하는 수천 세대의 포식자와 먹잇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 드루이드의 손에서, 대자연의 힘은 수백 년에서 단 1분으로 압축될 수 있다.
말퓨리온의 손에서...

이 여관을 포함해 여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울팽은 도끼를 휘두르며 앞으로 힘껏 뛰어나갔다. 덩굴과 뿌리가 뺨어 나와 여관을 산산조각내기 시작했다. 말퓨리온은 몇 걸음 움직여 아주 쉽게 사울팽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달린 쇠 발톱이 사울팽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오크는 도끼자루로 쇠 발톱을 쳐냈다. 가까스로 명중이었다.

사울팽은 고통을 내질렀고, 그의 도끼는 휘파람 소리를 냈다. 말퓨리온의 두 번째 공격은 사울팽의 어깨를 감싼 갑옷 사이의 빈 곳을 파고들었다.

피가 바닥으로 푹푹 떨어졌다. 뿌리, 엄청난 수의 뿌리, 숲 전체의 뿌리가 뺨어 나와 사울팽의 발목을 감았다. 그는 몸을 피하며 자신을 남아채려는 식물들을 가차 없이 베어냈다.

여관의 부서진 잔해가 오크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스톱레이지와 같은 생명체를 상대로 패배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사울팽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최후를 맞이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강타하자,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이 흐릿했다. 사울팽은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로군.' 손에 감각이 없었다. 폐허가 된 여관을 뚫고 나온 어둠의 기운이 그의 손을 얼얼하게 했다.

‘어둠의 힘?’

사울팽은 눈을 떴다. 말퓨리온은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대신 양팔을 교차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보라색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든 화살이 그의 바로 앞에서 폭발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에메랄드빛 광선이 밝게 빛나더니 말퓨리온이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공격했다. 실바나스는 다시 한번 적의 바로 앞에서 활시위를 당겼다.

사울팽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여관이 그의 머리 위에서 무너져내렸고 이내 사울팽은 암흑과 고통에 둘러싸였다. 하지만 아직 그는 죽지 않았다.

죽음이라면 이토록 극심한 고통이 느껴질 리가 없었다.



‘나이트 엘프의 성가신 짐은 고집이 세다는 거지.’ 나타노스가 혼자 투덜댔다.

보통의 생명체라면 확실한 패배의 위협 앞에서 주춤하기 마련이다. 동물이 겁에 질리면 초자연적인 속도로 도망치기도 하지만, 죽음이 확실시되면 몸이 굳어지고 마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 스스로 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그저 편안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칼도레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종족이 아니었다. 나타노스는 칼도레이를 하나하나 추격해 비참한 죽음을 선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재미를 잃은 지 오래다.

나타노스는 자신을 질책하며 아스트라나르로 돌아왔다. 그들의 공격이 있고 난 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를 포함한 수십 명의 나이트 엘프들이 마을을 탈출한 것이었다. 나타노스는 겨우 돌을 잡아냈지만, 하나라도 잡은 이가 과연 있을까 싶었다. 실바나스였어도 빈손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가장 큰 먹잇감을 쫓았다. 어쨌든 나타노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아스트라나르의 혼란은 막을 내렸다. 부상자를 치료하고, 전사자를 처리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다. 1만 년 이상 대자연에 명령을 내려온 생명체를 상대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마움을 모르는 호드 놈들도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족장님께 조금이나마 존경을 표할 테지.’ 말퓨리온은 끈질기게 호드의 소규모 군대를 공격했으며, 대족장은 그의 공격을 막았다. 수백, 아니 수천의 호드 병사들이 대족장 덕에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호드의 완전한 헌신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존경도 한몸에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때가 됐다.’

몇 명의 병사들이 사울팽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여관 터에서 열성적으로 돌무더기를 파내고 있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울팽은 스톱레이지와 결투 끝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나타노스는 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있는 오크의 얼굴을 알아봤다. ‘내 단검을 빼앗아간 녀석이군.’ 그는 즐거워졌다.

“사울팽은 잘 죽었나?” 나타노스가 물었다.

돌무더기에 있던 모르카는 언짢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살아계셨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나타노스는 말없이 돌을 치우기 시작했다. 사울팽이 죽었든 살았든 간에, 호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군주의 운명을 파악할 때까지 감상에 젖어있는 것은 전진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10분 후, 누군가가 외쳤다. “살아있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모여 재빠르게 몇 개 남지 않은 들보와 판자를 들어 올리자, 오크 지휘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울팽이 몸을 일으키자 아스트라나르의 모든 병사가 소리높여 환호했다. 사울팽은 피투성이에 매우 피로해 보였지만, 확실히 살아있었다.

‘잘 됐다. 이 멍청한 오크의 최후를 구경할 기회를 놓칠 순 없지.’ 나타노스는 치유사들이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동안 잠자코 기다렸다. 깊은 자상이 몇 개 있었으며, 갈비뼈 일부가 부러지고 수없이

많은 타박상이 있지만 매우 빠르게 치료되었다. 치료가 끝나자 나타노스는 사울팽에게 다가갔다. 사울팽은 돌무더기 위에 앉아 땅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폭 쉬셨습니까?” 나타노스가 말했다.

사울팽은 콜록거리며 쏘아붙였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쉬었지. 전투 상황은 어떠한가?”

“직접 말씀해주시죠, 대군주. 우리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포세이큰이 말했다.

“자네, 스톱레이지를 또 놓친 건가?” 사울팽은 무덤덤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나타노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진정시켰다. “네. 대군주와 함께 있던 곳에서 도망쳐 나온 그를 놓쳤습니다.”

사울팽은 침을 뱉었다. “그렇다면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도록 하게. 우리 쪽 정찰병들은 뭐라고 하던가? 나이트 엘프는 어디로 후퇴했지?”

모르카가 대답했다. “적들은 잿빛 골짜기를 떠나는 중입니다. 아마 이 땅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렬한 호드 병사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중앙 도로에 모여있던 병사들이 주변으로 비켜섰다. 실바나스 윈드리너가 돌아왔다. 그녀는 곧장 나타노스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실망스럽게도, 그녀의 손에는 말퓨리온의 머리가 들려있지 않았다.

사울팽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이오, 대족장? 적들이 이 지역을 버렸다는 게?”

실바나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에게 말했다. “잿빛 골짜기는 호드의 것이다.”

군중의 함성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주먹과 무기를 높이 들어 승리의 환호성을 내질렀다. 나타노스는 미소짓지 않았다.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실바나스는 사울팽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음성은 요란한 외침에 묻혀 사울팽과 나타노스만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대군주, 계속해서 싸워줄 수 있겠소?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었소?”

사울팽은 도끼의 편평한 면으로 자신의 갑옷을 치며 대답했다. “준비되었소. 대족장. 호드를 위해 다르나서스를 정복해 보이겠소.”



나이트 엘프는 잿빛 골짜기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더는 매복도, 함정도, 그리고 적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호드의 군대는 빠르게 진격했다. 모든 병사가 세계수를 공격할 때가 오면 최전선에 있길 원했다. 모두의 머릿속엔 전리품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했다. 사울팽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군대의 선두는 몇 시간 만에 칼림도어의 서쪽 해안에 도달했다. 사울팽은 재빨리 그곳의 지형을 파악했다. 잿빛 골짜기의 마법에 걸린 숲에서 뻗어 나온 길은 북으로 굽이치며 좁은 숲 지대로 이어졌다. 그 길은 어둠해안으로 가는 길이다.

적의 저항이 격렬할 것이다. 나이트 엘프들이 잿빛 골짜기를 포기한 이유는 더는 방어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안을 따라 이어진 이곳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한 산맥이 숲 양옆으로 뻗어 길고 좁은 지형을 형성했다. 다르나서스 최후의 절박한 항전은 분명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말퓨리온도 공격을 거들 것이다. 호드의 움직임이 지체될수록, 대드루이드의 전투 준비 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사울팽은 조람가르 전초기지 폐허 근처의 탁 트인 해변에 임시 주둔지를 조성하도록 군사들에게 명했다. 나이트 엘프는 안전한 나무를 떠나 노출된 공간에서 공격을 감행하진 않을 것이므로, 호드는 이곳에서 보복 공격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장비를 손보고,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부상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호드 군사들이여, 이제 끝이 보인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라. 밤이 오기 전에 세계수를 정복할 것이다.” 사울팽이 말했다.

사울팽과 실바나스는 지도 위로 몸을 굽혀 최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저 앞으로 밀고 나아가 적을 발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싸우기로 했다.

“내가 공격을 지휘하겠소. 대족장은 후방에 머물러야 하오.” 사울팽이 말했다.

그러자 대족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말퓨리온이 있을 것이오, 대군주.” 그녀가 말했다.

“그가 총공격을 퍼붓게 해야 하오. 스톱레이지는 내 목을 원하오.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그와 맞서 그의 방어 반경을 먼저 파악한 후에 방어를 뚫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소.”

실바나스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그리 원한다면 숲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겠소.” 그녀는 분명 사울팽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울팽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사울팽과의 동행을 지원하는 병사는 차고 넘쳤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울팽과 100명이 넘는 호드 병사들이 북쪽 숲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간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되 언제라도 함께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지키며 이동했다. 사울팽은 도끼를 단단히 쥐고 전방의 나무를 살피며 스톱레이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몇 분 정도가 흘렀다. 호드는 한 걸음씩 전진했다. 적막한 가운데 흙과 낙엽을 밟는 발소리만 들려왔다. 편평한 지형은 아니었지만 걷기에 힘들지는 않았다. 작은 개울 여럿이 숲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사울팽은 개울을 건널 때마다, 화살이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든다거나 나무뿌리가 갑자기 그의 발목을 잡거나 물속으로 밀어 넣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위습 몇 마리가 한가로이 날아다녔지만, 적은 수의 위습은 전혀 해롭지 않았다. 대부분의 위습들은 높은 나뭇가지 위에 머물러있었다.

숲은 고요했다. 정적과 공허감이 감돌았다. 호드 병사들은 나무를 살피기 위해 계속 위를 바라보았다. 숲을 뒤덮은 나뭇가지는 잿빛 골짜기만큼 두텁지 않았다. 나뭇가지 위의 위습들은 스스로

빛을 받으며 무수한 빛과 일렁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런 곳에는 호드를 노리는 나이트 엘프가 매복할 수 없었다.

‘적들이 이곳을 포기할 리가 없다.’ 사울팽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포기한 듯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팽은 나무 사이로 어둠해안의 모래사장을 볼 수 있었으며 여전히 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 희미하나마 움직임이 보였다. 세계수에서 대피하는 나이트 엘프 주민들이 해변에 있었다. 그들 중 일부가 사울팽과 호드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말퓨리온은 해가 지길 기다리는 것인가?’ 해는 수평선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지만, 적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해가지기 전에 호드는 어둠해안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 뻔했다.

사울팽의 피부가 움츠러들었다. 그의 본능은 지금 그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군대를 철수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말퓨리온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

위습 한 마리가 사울팽의 눈 주위를 날아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들어 위습을 쫓았다. 따끔했다. 위습이 걸음으로 드러난 사울팽의 손바닥을 때린 것 같았다. 그 위습은 사울팽에게 날아들어 그의 머리 꼭대기에 내려앉아 머리를 덮었다.

위습이 다시 그의 살갓을 때리자 사울팽은 낮게 투덜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세계 위습을 내리쳤다. 더 많은 위습이 나무 위에서 나타나더니 불안하고 초조한 듯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사울팽은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을 위습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낮게 속삭이는 여러 명의 불평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다른 호드 병사들도 위습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사울팽은 동작을 멈췄다. 해질녘쯤 위습들이 모여들어 귀찮게 구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이들은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사울팽은 전에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하이잘 산 정상에서, 악마의 군주가 불타는 군단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놀드랏실을 향해 다가왔다. 사울팽도 그 전투에서 싸웠다. 끝없이 밀려드는 악마의 물결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면서...

...그때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는 그의 선조들에게 도움을 청했었다...

...그리고 수천, 아니, 수백만의 위습들이 그의 부름에 응했다...

적은 수의 위습은 아무런 해가 없다.

하지만 많은 수의 위습은...

“후퇴하라!” 사울팽이 외쳤다. “호드여, 당장 후퇴하라! 어서!”

대부분의 호드 병사는 그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중 많은 이들이 사태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복수를 알리는 목소리가 숲을 뚫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애쉬 카라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가 외쳤다.

위습들이 나뭇가지에서 일제히 하강하자, 마치 단단하고 빛나는 벽이 일렁이는 듯했다. 그리고는 뒤처지거나 느린 병사들을 둘러쌌다. 그것은 마치 빛으로 된 고치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는 오직 고통에 찬 비명만이 새어 나올 뿐이었다.

“도망쳐!” 사울팽은 다시 한번 외쳤다. 이제 주춤거리는 자는 없었다. 호드는 무기와 방패를 버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정신없이 후퇴했다. 그중 하이잘 산의 전투를 겪은 자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위습들이 대군주의 갑옷을 갈가리 찢었다. 그는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위습의 분노가 뿜어내는 열기, 그것은 칼도레이 선조들의 분노였다. 그 열기는 사울팽의 갑옷을 태우고 그 안의 살덩이를 그을려 뼈속과 내장까지 파고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했다.

위습의 위력은 악마의 군주를 파괴했다. 그들은 호드의 필멸자를 학살할 것이다.

사울팽의 방어용 장화는 무거웠기에 길가의 뿌리와 돌부리에 걸리기 쉬웠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는 숲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다. 숨을 몰아쉬며 그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탈출에 성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섰다.

백 명이 넘는 호드 병사들이 숲으로 들어갔었다. 지금 조람가르 전초기지 근처의 해변에 도착한 병사는 고작해야 열 명 정도였다. 위습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화난 듯 웅웅거렸다. 호드가 다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오길 기다리며 이리저리 빠르게 날아다녔다. 위습의 무리는 해안가부터 산맥까지 견고한 벽을 이루었다. 북쪽으로 이어진 숲 전체를 방어하고 있었다.

실바나스는 바깥에 꼼짝하지 않고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위습들이 숲 중앙에서 살짝 양쪽으로 갈라서자, 호드 병사들은 숲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높은 지대에 우뚝 서 있는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와 수많은 나이트 엘프들이 있었다.

“물러가라.” 말퓨리온이 말했다. 그의 음성은 숲을 지나 탁 트인 해변으로 퍼져나갔다. “우리 땅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리라. 이것이 내 맹세다.”

위습들은 다시 뻑뻑이 무리 지었고, 말퓨리온은 사라졌다.

실바나스는 그가 있던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사울팽도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공포심이 사라졌다. 지금 그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위습들은 저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접근하는 적들을 공격할 것이다.

‘저곳은 지날 수 없겠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저 죽음의 함정 속으로 군대 전체를 몰아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호드를 승리로 이끌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마법사들에게 명해 숲에 불을 지를 수도 있었지만, 과연 불길의 번질지도 확신이 없었다. 위습이 불꽃을 감싸고 돌면 열기가 사그라들 것이다.

공성 무기, 그것이 정답이었다. 안전한 거리에서 숲을 향해 말퓨리온과 그의 연합군들이 후퇴할 때까지 포격을 퍼붓는 것이다. 호드는 이미 해변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사울팽이 해야 할 일은...

“얼라이언스다! 얼라이언스의 함대다! 남서쪽이다!”

그 외침이 사울팽의 생각을 파고들자, 사울팽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기가 내뿜는 불꽃이 바다 위로 번져갔다. 수리검과 포탄이 수면 위로 날아들고 폭발의 굉음이 노출된 해안가를 흔들며 호드 군대 사이로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

나이트 엘프의 함대가 돌아온 것이다. 함대는 이미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해안 가장자리에 정박해, 호드가 말퓨리온의 함정에 걸려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호드 군대를 향해 아무런 방해 없이 포격을 가할 수 있었다.

‘나이트 엘프들에겐 기적적인 일이군.’ 호드는 해변을 지킬 수 없었다. 지금 후퇴하지 않는다면 몰살될 것이 뻔했다. “숲으로 후퇴하라! 잿빛 골짜기로 후퇴!” 사울팽이 외쳤다.

그의 부관들이 사울팽의 외침을 알아듣자, 이내 호드 전체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후퇴였다. 얼라이언스의 포격은 호드가 동쪽 숲으로 은신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실바나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다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울팽과 그의 경비병들은 북쪽 숲 가장자리에 있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함대는 그들이 있는 쪽으로는 포격을 가하지 않았다. 선조들의 영혼이 있는 곳에서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나이트 엘프의 전략에 보기 좋게 당했군. 대군주.” 실바나스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짢은 듯했다.

“네, 그렇군요.”

“저들은 이 숲으로 진격할 수 없소. 그리고 우리는 저들을 없애지 않고선 공성 무기를 해변에 배치할 수 없지. 하지만 우리가 어렵게 적진을 뚫는다 해도 그 전에 얼라이언스의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요. 내 말이 틀리요?” 그녀가 말했다.

“맞는 말이요. 대족장.” 사울팽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리고 어렵게 뚫는 것에 성공한다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마법사와 흑마법사, 그리고 주술사들이 힘을 모아 위습들이 숨어있는 나무를 하나씩 없애면서 전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다에서 적의 포격을 받는 동안 이런 식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몇 주는 걸릴 것이다. 얼라이언스 지원군이 도착하면, 어둠해안에서 바다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들이 버틴다면, 나이트 엘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제 기적을 바라는 쪽은 호드였다.

실바나스는 위습 떼에 가까이 다가가 차분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사울팽은 이를 갈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족장은 빛으로 일렁이는 위습의 벽이 마치 말퓨리온이라도 되는 양 위압적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벽을 말퓨리온으로 여기는 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

실바나스는 몸을 돌렸다. “나 혼자서 말퓨리온을 상대하겠소.”

사울팽이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최악의 생각이었다. 특히나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대족장...”

그녀가 사울팽의 말을 끊었다. “알고 있소. 내가 그와 그의 나머지 병사들을 상대하겠소. 그리고 그의 선조들의 영혼도. 아마...이기긴 힘들겠지.” 그녀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복이 코앞이요. 여기서 후퇴할 순 없소.”

나이트 엘프의 함대가 다시 포격을 퍼부었다. 포탄이 지척까지 날아와 터지면서 마치 간헐천처럼 허공에 모래를 뿜어댔다. 사울팽의 경비병 몇몇이 움찔했다. 실바나스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사울팽도 마찬가지였다. ‘저들은 단지 사격 거리를 가늠하는 중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위습은 대규모로 모여있을 때만 위험하오. 대족장, 당신이... 처치할 수 있겠소? 상황을 바꿀 만큼 많은 수의 위습을?” 사울팽이 말했다.

실바나스는 잠시 위습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만큼 많이 죽이긴 어렵소. 하지만 저들을 흩어지게 할 수는 있지. 사울팽, 필요한 병사를 데려오시오. 그리고 악령숲으로 진격하십시오. 그곳에서 어둠해안으로 가는 산길을 찾아 후방에서부터 이 숲을 쓸어버리시오. 공격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남은 호드 부대를 이끌고 전방으로 나가리다. 그러면 양쪽에서 말퓨리온을 압박할 수 있소. 오늘 그는 패배할 것이요.”

“대족장, 악령숲에는 길이 없소.” 사울팽이 말했다.

“찾든가, 없으면 만드시오.”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공성 무기는 내가 지휘하겠소. 당신의 경비병 중 수영을 할 줄 아는 이들을 배치하십시오.”

“수영?” 사울팽이 물었다.

“그들이 함대를 상대해야 할 테니.” 그녀가 답했다.



“자네, 알고 있는 밀수업자가 몇이나 되나?” 사울팽이 물었다.

나타노스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뭐라고요?”

“대족장께서 악령숲을 가로지르는 길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셨다.” 사울팽은 갑옷을 벗고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그리고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웠다.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저 위로 가면 여명의 설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암시장의 물건들이 아즈샤라를 통해 운반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뭐, 꺾리웁스가 우두머리이니 놀랄 일은 아니죠. 아마 악령숲 어딘가에 숨겨진 길이 있을 겁니다. 어둠해안으로 연결된 길이겠지요. 칼도레이의 눈에 띄지 않는.”

“하지만 밀수업자들은 정체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군주의 관심은 원치 않을 겁니다.” 나타노스가 말했다.

“대족장의 명령이다. 블라이트콜러.” 사울팽이 쏘아붙였다. “자신의 이익보다 호드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한 밀수업자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 우리를 도울만한 자를 정말 단 한 명도 모르는가?”

“알고 있긴 합니다.” 나타노스가 통명스레 대답했다.

“그들을 찾아 데려오도록.” 사울팽은 그의 경비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중 수영을 잘하는 자가 누구인가?”

거의 모든 이들이 손을 들었다.

모르카가 대답했다. “저는 대군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젓더니 다시 갑옷을 걸쳤다. “내게 필요한 건 속도다. 보호가 아니다. 그리고 대족장께서 수영을 잘하는 병사를 필요로 하신다. 그녀의 명을 따라라. 너희들은 전투가 끝나면 다시 보도록 하지.”

사울팽은 가볍게 뛰어 회갈색 늑대의 안장 위에 앉은 다음 고삐를 잡았다. 그 외의 탈것을 탄 많은 병사가 떠날 준비로 분주했다. “악령숲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드는 패배한다. 모두 전진!” 사울팽이 병사들에게 말했다.

그는 발뒤꿈치로 늑대의 옆구리를 깊숙이 눌렀다. 그 짐승은 한 번 휘청하더니 잿빛 골짜기를 향해 달려나갔다. 나타노스는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해 분개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사울팽은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타노스는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나타노스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의 대족장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다.

짐승을 탄 병사들의 행렬이 사울팽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일으킨 흙먼지가 허공으로 떠오르자 저무는 해가 더욱 뿌옇게 보였다.



황혼이 찾아왔다. 실바나스는 위습 떼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숲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위습들은 그녀의 존재에 불안을 느끼는 듯 나무 사이를 웅웅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녀는 위습의 증오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몰락한 칼도레이의 점잖은 영혼들조차, 실바나스의 존재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게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그토록 그녀를 경멸한다는 사실은 마치 신의 음료처럼 달콤했다. 위습들은 그녀를 조각조각 부숴버리고 싶어 했지만, 공격을 위해 나무가 없는 공터로 나간다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죽음이 찾아온 뒤에도, 이 생명체들은 존재에 집착한다.

그녀는 그 충동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위습 중 한 마리가 초조한 듯 뱅뱅 돌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실바나스는 그 위습을 향해 미소지었다. “할 수 있다면 날 멈춰보시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자 그 위습은 홀로 튀어나오더니 대족장의 머리를 향해 빠르게 회전하며 날아들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위습을 잡았다. 그러자 그 영혼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는 그 위습은 희미하게 빛났다.

실바나스는 위습을 코앞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살아있는 자들을 지키고 싶은가?” 그녀가 물었다.

공포에 질린 위습의 빛이 깜빡였다.

“네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게 전부인가? 네 후손을 보호하는 것?” 그녀는 다른 한 손을 포개 양 손바닥 사이에 위습을 가두었다. 위습은 도망치려 온몸으로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네 바람은 실패로 끝나겠군. 죽어서도, 물론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녀가 손을 움켜쥐자 영혼의 힘은 타들어 가는 소리를 내더니 사라졌다. 다시 편 그녀의 손에는 까맣게 탄 재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손을 털어내더니 숲을 등지고 섰다.

‘이제 끝이다. 말퓨리온. 얼마 안 남았다.’

나이트 엘프의 함선에서 다시 포격이 시작되었지만, 특정한 목표는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해변에 떨어진 포탄은 고작 게 몇 마리만 죽였을 뿐이다. 그저 위협을 위한 발사였다.

호드 정찰병은 작은 망원경을 통해 실바나스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아냈다. 함대에는 선원이 가득했으며, 배 몇 척에는 궁수 부대도 있었다. 그리고 칼림도어 남쪽에서의 임무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물자를 넉넉히 싣고 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적들이 후퇴할 때까지 함대에 포격을 퍼부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기 휘하에 있는 거의 모든 공성 무기를 잃은 상태였다. 실바나스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포격 명령을 내릴 것이다.

지금 그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적들은 밖으로 나와 해안을 향해 포격을 쏘냈지만, 그녀는 기다렸다. 차라리 그 시간을, 아마도 마지막이 될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에 사용하는 편이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동쪽 숲에 있는 주둔지로 돌아갔다. “호드의 병사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라...”



“... 너희는 수적으로 약세에 몰릴 것이다. 화력도 부족할 것이다. 적들은 눈에 띄는 대로 너희를 학살할 것이다. 적의 손에 죽지 않는다 해도, 같은 호드 병사들이 실수로 너희를 죽일지도 모른다.” 실바나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미소지었다. “자 그럼... 이 중에 자원할 자는 몇이나 되느냐?”

그녀 앞에 모인 모든 병사가 손을 들었다. 그중에는 모르카도 있었다. ‘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모르카는 생각했다. 설사 살아남지 못한다 해도, 그녀의 자손들은 이번 전투에 참전한 이들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아주 좋군. 공성전 부대원들은 은신해 있다가 내가 북쪽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모래 위로 이동해 포격을 시작하라. 공격대원들은 사울팽이 공격을 시작하면 바로 헤엄쳐 이동하라.” 실바나스가 말했다.

명령에 따라, 자원자들은 작은 무리를 지었다. 배 하나당 열다섯 명씩 배정되었다. 함선 한 대를 가득 채운 선원들을 상대로 하기에 그들의 숫자는 턱없이 적었다. 하지만 정정당당한 승부를 가리는 것은 그들의 목표와 거리가 멀었다. 실바나스는 각 공성전 부대원에게 마법사를 배정했다. 호드의 대응 사격 시에는 함선 하나를 거뜬히 태울 만큼 불안정하고 쉽게 폭발하는 비전 마법 포탄을 사용할 것이다.

모르카는 갑옷을 벗고 작은 단검 두어 개만 챙겨 가죽 벨트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호드의 공성 무기로 공격할 수 없는 거리에 정박한 배들을 제거하기 위해 적의 포화 아래로 헤엄쳐 갈 것이다.

‘아니면, 호드를 위해서 함선을 통째로 차지하면 더 좋겠지.’ 모르카는 생각했다.

대족장이 허락한 해적질이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사울팽을 따라잡았을 때 나타노스는 언짢은 기분이 풀린 지 오래였다. 악령숲으로 접어들자, 그는 검은창 랩터의 고삐를 바짝 당겨 쥐었다. 랩터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숨을 헐떡였지만, 등에 돌이나 태웠음에도 잣빛 골짜기를 지나오는 내내 속도를 유지했다.

동승자는 레지지라는 트롤이었는데 랩터를 타고 오는 내내 툭툭거렸다. “이렇게 지루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마침내, 사울팽과 그가 이끄는 대규모 병사의 무리가 앞서가는 모습이 나타노스의 시야에 들어왔다. 랩터가 급하게 멈춰 서자, 레지지는 뒤로 구르며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나타노스는 날렵하게 랩터에서 뛰어내려 트롤을 살펴보았다. 호드의 정보원이 바보 같은 사고로 목이 부러져 죽는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레지지는 금세 제 발로 일어섰다. 그의 피부는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다.

사울팽은 그의 실수를 못 본 체했다. “나타노스,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었네. 호드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져왔는가?”

“네, 가져왔습니다.” 나타노스 대답하며 트롤을 가리켰다. “이 자는 뿔족장 부족과 긴밀한 거래를 했었죠.”

사울팽은 눈썹을 찌푸렸다. “뿔족장이라고?”

“예전엔 어둠해안 근처에 살았습니다.” 레지지가 망토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대답했다. “대격변 후엔 모두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악령숲과 어둠해안을 잇는 길이 있다는 건가?” 사울팽이 물었다.

레지지는 턱을 들어 올렸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 대피했다고 하더군요. 길이 험하긴 하지만, 짐을 운반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얘기인가? 자네는 그 길을 직접 가본 적이 없지 않나?” 사울팽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타노스를 바라보았다.

“없습니다. 대군주님.” 트롤이 말했다.

“길을 찾을 수 있겠나?”

트롤을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요.”



정오가 되자, 사울팽은 기진맥진했다.

길이 험난하다는 트롤의 얘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어둠해안으로 가는 길은 차라리 절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가파른 암벽에는 손으로 붙잡을만한 요철이 많아 호드 군대가 산을 오르고 내리기엔 충분했다. 병사들은 탈것을 두고 가야 했지만,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대부분 병사가 무사히 산을 올랐다. 길에서 미끄러진 일부 병사들은 다시 악령숲으로 돌아가 부러진 뼈를 치료해야 했다.

레지지는 마치 수천 번은 와본 것처럼 산을 탔다. ‘수천 번은 외뿔을 테지.’ 사울팽은 생각했다. 하지만 레지지가 거짓을 말한 것에 대해 화를 내진 않았다. 나타노스의 말대로였다. 대군주 앞에서 자신이 밀수업자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 자는 없었다. 그 트롤이 이 길에 대한 정보를 뽀족창 피난민으로부터 얻은 것처럼 연기한다 해도, 사울팽은 그의 거짓에 맞장구칠 것이다. 길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밧줄과 도르래가 이 길이 밀수업자의 길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해도 말이다.

모두 산 정상에 오르자, 사울팽은 비로소 탁 트인 곳에서 어둠해안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세계수로 이어지는 북쪽 길과 호드가 지금 곤경에 처해있는 지역까지 이어진 남쪽 길을 모두 보았다.

산 밑에 있는 어둠해안에는 나이트 엘프 주민들이 해안가를 서성이고 있었다. 다르나서스에서 작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그들은 긴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커다란 여객선을 기다리는 듯했다.

사울팽은 나타노스에게 작은 배들을 가리켰다. 경비가 허술했다. 나이트 엘프가 전쟁에 패배했음을 깨닫는 순간, 그 배들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 뻔했다. “해안에 도달하면, 일단 저것부터 사수하게. 우리가 세계수를 정복하면 쓸모가 있을 걸세.”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나타노스가 반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포세이큰은 순순히 동의했다. “다르나서스의 첫 공격에 저도 가담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좋네. 우리는 대족장이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사울팽이 대답했다.

나이트 엘프 군대의 생존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나무 사이로 흩어져 숲 중앙의 언덕 위에서 서 있는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 위습은 없었다. 위습은 모두 전방에 머물며 호드 군대를 막아서고 있었다.

사울팽과 병사들은 뽕죽창 부족 야영지의 잔해 사이로 조용히 기어갔다. 야영지는 버림받은 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호드 병사들이 다가오자 숨어버리는 여우 가족이 전부였다.

“다들 다음 계획은 알고 있겠지. 우리의 목표를 기억하라.” 사울팽은 부대원들에게 속삭였다.

그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칼도레이 병사를 엄폐물 가장자리 너머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해안을 차지하고, 숲을 차지한 뒤, 다르나서스를 차지할 것이다.”

사울팽은 언덕으로 뛰쳐나가 공격을 시작했다. 나타노스를 비롯하여 대군주를 따라 산을 넘어온 백여 명의 호드 병사들도 사울팽의 뒤를 따르며 그의 외침에 대답했다.

“호드를 위하여!”



실바나스는 미소지었다. 위습이 내뿜는 빛이 깜빡였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듯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몇몇 위습은 전방을 떠나 후방의 숲으로 날아갔다.

숲을 뚫고 또렷한 외침이 들려왔다. “호드를 위하여!” 우회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사울팽이 훌륭하게 해냈군.’

때가 왔다. 실바나스는 위습의 무리 속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칼도레이 선조의 영혼인 이 생명의 조각들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위습이 반격하기도 채 전에, 그녀는 자신의 힘을 방출했다. 리치 왕이 남긴 끔찍하고도 끔찍한 고통과 공포가 날카로운 외마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주위에 있던 위습들이 일제히 떨어져 내렸다. 생존에 대한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들은 마치 태양 빛에 사그라지는 눈꽃 같았다. 호드 부대가 전투의 함성을 외치며 그녀의 뒤에서부터 숲속으로 진격해왔다. 그들은 곤봉과 검으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실바나스는 활시위를 당긴 채 숲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위습은 한 마리도 없었다. 호드 병사들은 곤봉과 검을 휘두르며 남아 있는 위습들을 공중으로 날려 보냈다. 몇몇 위습들은 깜빡이더니 이내 사라졌다. 나머지는 멀리 날아갔다.

‘말퓨리온도 이제 끝장이란 걸 알 테지.’ 말퓨리온은 선조들이 호드의 손아귀에서 피할 수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두기보다는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말퓨리온을 발견했다. 호드 병사들은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말퓨리온에게 거침없이 다가갔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실바나스.”

“나도 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둘의 대화는 막을 내렸다.

‘룩타르 오가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날카로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뒤로 펼쳐진 해안에서는 그녀의 공성 무기가 포탄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리고 해변과 바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모르카는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 화염에 휩싸인 세상을 보았다.

‘대족장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 그녀는 몰려오는 공포와 싸우며 생각했다. ‘누군가 크게 다쳤겠군.’

호드의 공성 무기들은 바다로 포격을 시작했다. 비전 마법 포탄이 발사되자 나이트 엘프 함대로 불길이 번져나갔다. 적들은 이에 대응해 포탄과 수리검을 해안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

모르카와 부대원들은 함대가 포진한 적의 전선을 헤엄쳐 건너갔다. 그들은 숨을 쉬기 위해 가끔 수면으로 올라왔다. 곧 있으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조차 위험해질 것이다. 공성 무기의 마법 포탄은 물속에서도 위험한 것이었다. 크게 번져나간 불길은 바다가 마치 가뭄으로 바싹 마른 숲이라도 되는 듯이 모든 것을 맹렬히 태웠다.

공격대원들은 불붙은 바다 밑을 거의 1분가량 잠수로 이동한 후에야 겨우 숨을 쉴 만한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르카의 부대원들은 그녀 근처에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모르카는 부대원들의 숫자를 세어보았다. ‘열하나... 열둘... 열셋...’ 낙오된 자는 없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한 타우렌이 가장 마지막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그는 평정을 되찾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을 뱉어냈다. 그는 모르카를 험상궂게 노려보았다. “함대는 이미 지나왔잖아.”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억울하면 다시 헤엄쳐 돌아가던가.” 모르카가 받아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우리 아는 사이던가?”

그는 코웃음을 치다가 실수로 바닷물을 들이마시고 말았다. 그는 한참 동안 기침을 해댔다. “얼마 전에 오그리마에서 같이 한잔한 적이 있지.”

“어. 아아.” ‘이름이 뭐였지? 라나구? 뭐 비슷한 이름이겠지.’ 그녀는 가장 그럴싸한 이름을 떠올렸다. “라나가스, 준비됐어?”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난 히아모야.”

“내가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 편이야. 준비됐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부대원들도 모여들었다. 모르카는 가까이 있는 나이트 엘프의 함선까지 헤엄쳐간 후 배의 측면으로 기어올랐다. 나무판자 사이의 좁은 틈새를 잡고 계속해서 올라가자 이윽고 대포의 포문에 도달했다.

모르카는 포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배의 바다 쪽 면에 있었다. 배 위에는 칼도레이 선원들이 대포와 수리검 투척기를 장전하고 발사하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반대편 포문 사이로는 불길에 휩싸이거나 침몰하는 배들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배는 전혀 공격을 받지 않았다. 호드의 공성 무기는 해안에서 가까운 배들을 우선 조준했기 때문이다.

이쪽에 있는 대포는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쨌든, 바다 쪽에서 호드가 공격할 리가 없지 않은가?

히아모도 모르카와 같은 포문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그가 속삭였다.

모르카는 다른 부대원들이 합류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좋은 생각이 떠오를 듯했다. “몇 가지 생각이 있어. 배에 불을 지르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 다시 이 불바다 밑을 헤엄쳐서 해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한 블러드 엘프는 눈썹을 추켜세우며 물었다. “다른 생각은?”

“아니면 어둠해안까지 배를 몰고 가는 건 어때?”

호드 병사들은 모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띤 채 모르카를 바라보았다.



사울팽은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며 숲을 통과했다. 칼도레이는 양방향으로 방어를 시도했지만, 마지막 항전마저 좌절되고 말았다. 그들의 전선은 파괴되었고,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남은 생존자들은 패잔병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전투를 필사적으로 이어갔다. 그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이곳저곳에서 적을 공격하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웠다. 사울팽은 나이트 엘프의 장교인 파수꾼 한 명이 화살 여러 대를 맞고도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용감했다. 그리고 명예로웠다. 하지만 절망적이었다.

사울팽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해치워나갔지만, 점점 저항하는 엘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는 끔찍한 전투의 소음이 들리는 곳으로 향했다. 해안가 근처에서 강력한 두 생명체가 맞붙으며 엄청난 충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대족장이 혼자서 스톱레이지를!?’

만일 실바나스가 진다면, 나머지 싸움은 사울팽이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확신이 없었다.

그 둘의 대결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사울팽은 그곳을 향해 조심히 다가갔다. 어두운 보랏빛과 에메랄드 녹색빛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그때, 엄청난 암흑의 기운이 폭발했다.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커다란 굉음을 냈다. 한 물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자, 사울팽은 나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 물체는 불과 십 미터 앞에 추락했다.

물체가 얼굴을 들었다. 사람이었다.

사울팽은 사슴뿔을 보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도끼를 던졌다.

하지만 도끼자루가 그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는 도끼를 던진 것을 후회했다. 그자는 아직 살아있는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였다. 그는 다시 대족장과 결투를 이어가기 위해 돌아가려는 중이었다.

회전하며 빠르게 날아간 도끼는 순식간에 말퓨리온에게 도달했다.

말퓨리온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도끼가 그의 등에 깊숙이 박혔다.

말퓨리온이 비틀거렸다. 눈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더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다. 사울팽의 도끼가 엘프의 몸에 박힌 채 비스듬히 서 있었다.

사울팽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경악할 뿐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것은...수치스러운 행동이다.

비록 전쟁이긴 했으나, 사울팽은 스톱레이지와 대결에서 패배했었다. 게다가 지금 그는 스톱레이지를 뒤에서 공격한 것이다.

사울팽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불명예스러운 공격이다. 그는 만 년 동안 전쟁 영웅의 자리를 지켜왔다. 나는 그의 편에서 싸우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비겁한 방법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사울팽은 자신이 한 짓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자신을 이끌어 상황을 확인했다. 말퓨리온은 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며 가늘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미안하게 됐네.” 사울팽이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사울팽은 고개를 돌렸다. 만족의 미소를 띤 실바나스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아주 좋았어.”

“끼어들 생각은 없었소.” 사울팽이 말했다.

“나 혼자서는 처치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소. 그는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지.” 실바나스는 스톱레이지의 등에 박혀있는 도끼를 뽑아 들었다. 나이트 엘프는 고통으로 신음했고, 상처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 외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를 죽여 결투를 끝내시오.” 사울팽이 조용히 말했다.

실바나스는 그의 도끼를 들어 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사울팽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족장의 표정을 읽을 순 없었지만, 그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사울팽에게 도끼를 건넸다. “여길 마무리하십시오.”

“이건 대족장의 결투요.”

그녀는 이미 자리를 뜨는 중이었다. “대군주의 승리요. 전쟁도, 말퓨리온의 패배도, 이 모든 것이 대군주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테지.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명예요. 원한다면 잠시 시간을 갖고... 그 목을 가져오시오. 어둠해안에서 만나기로 하지.”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북쪽을 향해 사라졌다.

사울팽은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명예라니.’

그는 다시 말퓨리온을 내려다보았다. “진심으로 미안하네.”

말퓨리온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한쪽 눈이 사울팽을 바라보았다. 그는 쉼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호드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 죽는 날까지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훌륭히 싸웠다. 말퓨리온.” 사울팽이 말했다. “이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라. 자네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는 도끼를 들었다. 그리고 망설였다. 몇 초가 지났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다. 하지만 사울팽은 도끼를 내리칠 수 없었다.

그는 위에서 따스한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그 빛에서는 슬픔, 희망, 그리고 사랑이 느껴졌다. 아마도 말퓨리온을 다음 생으로 인도하는 엘룬이리라. 어쩌면 그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오히려 스톱레이지를 살려두는 것이 명예로운 일일 수도 있다.

‘실바나스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를 지금 죽이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길이다.’

여전히 그의 도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너무도 갑작스레 그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밝은 빛이 사울팽을 감싸며 그를 마비시켰다. 근육을 꿈틀거리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엄청난 힘이 그의 머리를 강타하자, 그는 다섯 걸음 밖으로 나가떨어졌다. 그는 세계 바닥에 부딪혔다. 바닥을

구르다 멈춰 서자, 그의 폐에서 한 줄기 바람이 빠져나오면서 고통이 밀려왔다. 위를 올려다보니 분노와 아름다움으로 휩싸인 엘룬의 빛이 보였다.

티란데 위스퍼윈드였다.

그녀는 양팔을 들어 배우자의 곁에 섰다. 그녀의 옷자락이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였다. 열댓 개의 뾰족한 엘룬의 빛이 사울팽의 머리 위를 맴돌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사울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리가 울려왔다. 빛의 단검들이 그의 위에서 몸을 떨었다.

정의의 힘으로 그를 처단할 것인가? 그것이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사울팽이 망설였듯, 그녀도 망설였다. 티란데는 살머시 무릎을 꿇으며 시선을 사울팽에게서 떼지 않은 채 말퓨리온에게 손을 가져갔다. 그녀가 말퓨리온의 출혈을 멎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발휘하자, 땅이 마치 빛나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말퓨리온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일어섰다. “죽이지 않았군, 왜지?”

사울팽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명예롭지 못한 습격이었으니, 내겐 그럴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오히려 그녀의 화를 돋운 듯했다. “이 전쟁 자체에 명예 따윈 없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무고한 피를 이렇게나 많이 흘리게 하다니... 아무 의미도 없이!”

“해야 할 일이기엔 했을 뿐이다. 승리해야 하기에 한 일이었다.” 사울팽이 말했다.

티란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울팽의 머리 위를 맴돌던 뾰족한 빛이 멈춰 서더니 그의 목을 겨눴다. “사울팽, 호드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우리는 고향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지도.” 사울팽이 말했다.

“말퓨리온을 살려줬으니, 그대에게도 선택지를 주지. 내가 남편을 데려가지 못하게 방해하다 내게 죽든지... 그 흠바닥에 무릎꿇은 채 목숨을 건지든지.” 티란데가 말했다.

공평한 제안이었다. 사울팽이 투덜거리듯 말했다. “나도 선택지를 주지. 함께 다르나서스로 돌아가 우리가 그곳을 함락시킬 때 같이 죽든지... 아니면 어딘가 멀리 도망쳐 같이 살아남든지.”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한 손을 들어 빛을 발하는 푸른 표식이 새겨진 하얀 돌을 만들어냈다. 잠시 후, 그녀와 말퓨리온이 사라졌다.

사울팽은 눈을 깜빡였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사울팽은 그들이 향한 곳이 다르나서스가 아니기를 빌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갑옷의 흠을 털어내며 고통과 아픔을 떨쳐냈다. 말퓨리온은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오는 날, 호드의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사울팽은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말퓨리온이 살아남는 게 옳은 일로 여겨졌다. 그것이 명예로운 것이다.



나이트 엘프 선원의 숫자는 이십여 명 정도였다. 그중 반이 첫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모르카는 전투가 시작되자 배 위로 뛰어든 다섯 명도 셈에 추가했다.

일곱 명의 나이트 엘프가 투항했다. 대부분 상처를 입은 그들은 배 위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호드 병사들을 증오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나이트 엘프의 창을 하릴없이 뱅글뱅글 돌리며 히아모가 물었다.

모르카는 자신의 포로들을 흘깃 바라봤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저 친구들한테 그만 좀 싸대라고 일러줘야지.” 그녀가 말했다. “누가 저 깃발 좀 내려줘!”

한 고블린이 깃대로 날째게 달려가더니 칼도레이 깃발을 내렸다. 새로 걸어들 호드 깃발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저 멀리 해안가에서 환호성 소리가 들려왔다.

모르카는 피로 물든 갑판에서 나뉘구는 망원경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망원경을 최대한 길게 뽑아 들고 전장을 길게 훑으며 다른 나이트 엘프 함선을 바라봤다. “불타는 배가 몇 척 있고... 남쪽으로 향하는 배는 잡혔고... 나머지는 도망치고 있어.” 모르카는 망원경을 탁 소리 나게 줄이더니 동료들을 향해 미소지으며 외쳤다. “호드에게 승리를!”

“호드를 위하여!” 동료들이 화답했다.

모르카는 상처를 입은 한 나이트 엘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자상을 입은 왼팔을 오른손으로 쥐어 지혈하고 있었다. “대답해, 칼도레이. 그런 상처를 입고 헤엄칠 수 있겠어?” 그녀가 말했다.

“아니.”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는 이 배에 남아야겠군.”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너와 네 동료는 항해할 줄 알지?”

그는 대답이 없었다.

모르카는 그가 긍정의 대답을 하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은 소식이야. 왜냐하면, 나와 내 동료들은 할 줄 모르거든. 텔드랏실까지 배를 몰아줄래?”

그는 갑판 위에 침을 뱉었다. 그러자 호드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모르카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넌 단지 쓸모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배에 앉아있는 거야. 어이, 히아모. 바다는 아직 불지옥이지?”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히아모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불타고 있어. 대장.”

“선택해라, 칼도레이. 쓸모 있게 굴 것인지, 아니면 저기서 헤엄칠 것인지.”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덧붙였다. “나머지 놈들도 마찬가지로야.”

아무도 바다를 택하지 않았다.

몇 분 후, 함선은 북쪽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순조로운 항해는 아니었다. 나이트 엘프가 돛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모르카는 망원경을 통해 공성 무기가 어둠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배보다 빠른 속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모르카는 배의 키를 잡더니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로 방향을 조정했다. 그리고 이내 항해에 익숙해졌다.

이제 곧, 그녀는 맨 앞 좌석에 앉아 호드의 가장 큰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파수꾼들은 투항하지 않았다. 호드 군대가 어둠해안으로 물밀듯 밀려와도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텔드랏실의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었다.

실바나스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적의 시체가 더 늘어나는가? 포로의 숫자가 줄어드는가? 그것은 그녀가 바라는 바였다.

그녀는 전선에서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등에는 활이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다. 전투에서 이겼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녀의 호드 부대는 용의주도하게 해안가를 가득 메웠다. 승리가 코앞이었다. 이 잔잔한 바다만 건너면 되는 것이다. 이제 아무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나타노스는 전방 바로 뒤의 전장을 빠져나왔다. 실바나스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눈썹을 들어 올렸다. 그는 단검에 묻은 피를 무심히 닦아내며 다가왔다. “사울팽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전리품을 차지하는 중이다.” 그녀가 말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가 말퓨리온을 죽였습니까?”

“칼도레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나?” 실바나스가 물었다. “만 년 동안 온갖 시험과 공포를 딛고 백성을 이끌어온 전설적인 지도자가 고작 도끼를 든 오크의 손에 죽었다면?”

“아주 심각할 것 같군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가 말했다.

나타노스는 그녀의 뒤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대족장님, 저기 그가 옵니다. 그런데 빈손이로군요.”

실바나스가 돌아섰다. 사울팽이 숲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고개를 뺏뺏이 들었지만 빈손이었다. 그녀는 약간의 짜증을 느꼈다. 아마도 그는 시체를 불태워서 전리품을 없애버렸거나 그와 비슷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리라.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던 그를 생각하면, 지금의 표정은 매우 만족한 듯 보였다.
“말퓨리온의 머리는 어디 있소, 대군주?”

“내가 알기론 아직 붙어 있을 것ियो.” 그가 말했다.

그녀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머리의 행방을 묻고 있소만?”

사울팽은 눈을 깜박이지 않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아마 스톰윈드로 갔을 거요. 티란데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데려갔소.”

실바나스는 침묵했다. 그것은 혼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녀는 침묵을 깼다. “말퓨리온이 살아있다고?” 그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가 도망치게 그냥 두었던 말ियो?”

사울팽의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그의 눈은 분명 웃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는 분명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 혼자 티란데를 막을 순 없었소. 아마 대족장이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군.”

“대군주를 믿은 게 내 실수일지도 모르겠군.” 실바나스가 받아쳤다. 그녀의 손이 활을 향해 꿈틀댔다. ‘아니, 아직은 아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나타노스는 대족장의 편을 들었다. 그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스톰레이지가 보복한다면, 얼마나 많은 호드의 목숨을 앗아갈 것 같습니까, 사울팽? 그들이 흘린 피는 모두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닥치면 해결하도록 하지.” 사울팽은 간단히 대답했다.

나타노스는 앞으로 다가가 사울팽과 가슴을 맞대고 섰다. “그땐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말퓨리온의 손에 쓰러진 아군의 피를, 그대로 당신에게 받아내겠습니다. 설령 제가...”

“그만둬라. 이미 벌어진 일이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바나스가 말했다.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뒤에서 모래를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용사와 대군주가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다행히도, 둘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보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사울팽은 평안한 표정을, 나타노스는 분개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가 가시기 전까지.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말퓨리온은 살아날 것이다.’ 실바나스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등에서 활을 빼 들더니 시위를 당겨 활을 쏘았다. 화살은 호드 병사들을 지나 곡선을 그리며 날아 파수꾼 지도자의 등에 꽂혔다. 그 나이트 엘프의 몸에는 이미 여러 대의 화살이 꽂혀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격렬히 싸우는 중이었다. 하지만 실바나스의 화살을 맞고 마침내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어둠해안에서 벌어지던 적들의 마지막 저항은 막을 내렸다. 실바나스는 다시 활을 집어넣었다.

이 전쟁은 땅 한 조각을 두고 다투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 사울팽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세계수를 정복하는 것은 적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위함이다. 고향과 지도자를 모두 잃는다는 것은 칼도레이 백성은 물론, 국가의 성립을 종식하는 일이었다. 단 한 명의 지도자만 없어도, 종족 전체에 절망의 물결이 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출혈을 일으키고, 굶고, 결국엔 썩어서 얼라이언스를 안으로부터 박살 낼 것이었다. 안두인 린은 절박한 심정으로 최후의 전쟁을 벌일 것이고, 기적을 바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적뿐일 테니.

하지만 이미 그 기적은 일어났다. 저 바보 같은 늙은 오크의 명예로운 손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대족장의 자만심도 한몫했지.’ 누군가를 탓하는 일은 정확해야 한다. 사울팽만큼이나 그녀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르나서스 정복은 칼도레이 백성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줄 것이다. 그들은 동족의 죽음에 슬퍼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들의 고향을 호드가 난도질할 거란 생각에 몸을 떨 것이다. 하지만 절망에 물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는 아니다. 말퓨리온의 기적 같은 생환은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들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암흑 같은 시기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엘룬이 자신들을 굶어살피고 있다고.

이 모든 게 기정사실과도 같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엘룬이 휘방을 놓은 것은 사실이었다. 아마 그녀는 사울팽의 마지막 일격을 막아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라이언스와 엘룬 외에도, 실바나스의 진정한 목적에 반대하는 세력이 더 있을 것이다.

실바나스의 분노는 점점 식어갔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예상한 바였다. 그저 생각보다 빨리 벌어졌을 뿐. 그게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벌어진 소규모 전투와 어둠해안을 탈출하지 못한 불운한 칼도레이의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그녀는 해안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위로 우람하게 솟은 텔드랏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머지않아, 이 나무는 호드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해안을 확보하고, 나무를 칠 준비를 해라.” 실바나스가 말했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실바나스는 이 상처를 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다.

“어째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무를 바라보던 실바나스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치명상을 입은 파수꾼의 목소리였다. 불과 몇 분 전에 실바나스가 직접 쓰러뜨린 자였다. 그 파수꾼은 기침하고 있었다. 나약하고. 죽어가는 존재였다.

“어째서지? 이미 이겼잖아.” 그 나이트 엘프는 온 힘을 다해 겨우 말을 뱉었다. “나무에 남은 건 무고한 이들 뿐이야.”

그것이 사실이라면, 좋은 정보였다. 실바나스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건 전쟁이다.” 실바나스가 말했다.

사울팽과 나타노스는 이미 전쟁의 다음 단계를 위해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실바나스는 그들이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앞에는 백성을 위해 죽어가는 엘프 하나가 쓰러져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실바나스 자신과도 같았다.



사울팽은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해안에 있는 공성전 병사들의 대열을 정비하고 모든 무기가 텔드랏실을 조준하도록 했다. 적의 정찰병들이 세계수 꼭대기에서 호드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사울팽은 그들이 호드가 곧 포격할 것이라고 보고하길 바랐다.

그는 대족장을 바라보았다. 실바나스는 죽어가는 나이트 엘프 지휘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마 적을 심문하는 중일 거라고 사울팽은 추측했다. ‘뭔가 쓸만한 정보를 캐내면 좋을 텐데.’

나타노스는 해상 전투의 경험이 있는 병사 몇을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해안가를 살살이 훑어 나이트 엘프의 배와 소형 선박까지 모조리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자네는 첫 공격에 가담하게, 나타노스.” 사울팽이 말했다.

두건 속에서 언데드의 눈이 빛났다. “당신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대족장께서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곳을 보고, 제가 만나고 싶은 자를 만날 겁니다.”

‘그치들, 안됐군.’ 나타노스의 원망 섞인 멸시를 무시하며 사울팽은 생각했다. 그때, 기묘한 광경이 사울팽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이트 엘프의 함대 두 척이 해안선에 바짝 붙은 채 항해하고 있었다. “저게 무언가?”

나타노스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곳을 쳐다봤다. “나이트 엘프 깃발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편에서 배를 탈취한 것 같습니다. 대족장이 허가한 일입니다.”

그랬다. 사울팽은 그 배의 키 근처에서 초록색 피부를 가진 한 오크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사울팽은 그의 도끼를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그 오크도 손을 흔들었다. 사울팽은 터지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그렇다면 일이 수월해지겠군. 블라이트콜러.” 그가 말했다. “저 배에 몇 명이나 태울 수 있나?”

나타노스는 이를 드러냈다. “아주 많이 태울 수 있죠.”

“항해를 할 줄 아는 자를 모조리 찾아내라. 저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군. 그리고 자네의 공격 대원들을 뽑도록 하게.” 사울팽은 머릿속으로 공격을 상상해보았다. 여전히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전방 바로 뒤에서 병력을 지원할 공격대원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둠해안과 다르나서스 사이의 공중에서 방어를 맡을 와이번 몇 마리도 필요했다.

어둠해안의 전투 후, 사울팽의 정예 병사들은 체력이 소진된 상태이다. 그들을 뒤에 남겨둔다면 실망이 크겠지만, 첫 공격에서는 혹시 모를 나이트 엘프의 저항에 대비해야 하므로 체력이 생생한 부대원들이 훨씬 쓸만하다.

‘준비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군...’

“불을 놓아라.”

대족장의 음성이 사울팽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그는 대족장을 바라보았다.

‘불을 놓으라니... 어디에?’

나타노스도 사울팽만큼이나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둘을 응시하는 실바나스의 눈은 하얗게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외쳤다. 사울팽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안 들리느냐!”

나타노스는 말없이 돌아서더니 공성전 병사들에게 손짓을 보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울팽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대족장의 명령이 실행되었다.

한 트롤 마법사가 포탄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대여섯 개의 공성 무기가 일제히 장전되더니 호드는 공중으로 죽음을 날려 보냈다.

“안 돼.” 사울팽이 속삭였다. 그는 말을 잃은 채 불꽃이 바다를 건너 날아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모든 포탄이 목표에 명중했다. 주황색 불꽃이 텔드랏실에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호드 부대에는 침묵이 엄습했다. 생포된 나이트 엘프의 외침조차 사라졌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안 돼.” 사울팽이 다시 중얼거렸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두 번째 사격이 준비되자, 그는 자신을 마비시켰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 돼!” 그가 외쳤다. “사격을 중지하라! 멈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번째 사격이 순식간에 시작되었다. 세계수의 밑동이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다. 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무를 기어올랐다. 그리고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를 향해 꿈틀대며 번져나갔다.

“왜...? 대체 왜...?” 사울팽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나타노스를 바라봤다. 포세이큰은 그 어느 때보다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실바나스는 사울팽을 등지고 서서 불길이 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울팽은 노력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 그녀의 명령을 합리화하려 했다.

‘죽어가는 엘프가 무슨 말이라도 한 것인가? 그들은 저항할 계획이었나? 얼라이언스의 지원군이 곧 도착하는 건가?’

수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갔다. 적들은 빠르게 죽어 나갔다. 수평선에는 한 척의 배도 보이지 않았다. 칼도레이 배 두 척이 불에 타 떨어져 내리는 세계수 가지를 피하고자 급히 선회하고 있었다. 포획한 배들도 괴상한 궤적을 그리며 향해 중이었다. 그들도 이를 예상치 못했으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실바나스는?’

그 생각은 사울팽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생각해둔 전략이 있었다. 세계수를 정복하되 파괴하지 않는 것. 그것은 훌륭한 계획이었다. 세계수를 파괴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이제 불길은 나무 전체를 휘감았다. 푸른색과 흰색 불꽃이 점점 커지더니 불이 뜨거워져 갈수록 색이 희미해져 갔다. 불꽃의 가장자리가 나무 주위를 둥글게 감쌌다. 그리고, 다르나서스는 불에 타기 시작했다.

사울팽의 귀에 비명이 들려왔다. 바다를 건너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왔다. 그리고 견잡을 수 없는 불길이 내는 고약한 악취가 그 뒤를 따랐다. 어둠해안에서 생포된 나이트 엘프들은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며 울부짖더니, 이내 나무에 있는 가족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호드 병사들에게 빌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음이 한데 모여, 공포의 협주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 불은 거침이 없었다. 불에는 지켜야 할 명예도, 명분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태워버리려는 강렬한 의지만이 있을 뿐이다.

다르나서스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얼라이언스를 상대로 한 당당한 승리를 바랐던 호드의 희망도 사라질 것이다. 텔드랏실은 스톰윈드를 파괴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세계수는 얼라이언스의 집결지가 되어 호드의 모든 국가를 차례차례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안두인 린은 곧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동맹국들은 그의 부름에 응할 것이다. 얼라이언스는 복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건 명예롭지 못한 일이오!” 사울팽이 실바나스에게 외쳤다.

그녀는 마침내 세계수에서 등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침착했으며, 그 안에 가득했던 분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허무함? 만족감? 사울팽은 그녀의 표정을 읽어낼 수 없었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 것이다.

“놈들이 우릴 칠 거요. 전부가!” 그가 말했다.

“알고 있소.” 마치 잘못된 일이 전혀 없다는 듯, 그녀는 침착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언더시터를 공격하겠지. 당신이 방어 계획을 세워줘야겠소. 먼저 내 백성들을 대피시키시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애썼다. 마침내, 순수한 증오에서 비롯된 비난의 말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당신은 수천 세대의 호드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소. 우리 모두를.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녀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신의 전쟁이요. 당신의 계획이었지. 그리고 당신의 실패요. 다르나서스는 처음부터 보상으로 주어질 예정이 아니었소. 얼라이언스를 분열시킬 썬기의 역할을 할 것이었지. 그리고 적의 희망을 부숩버릴 우리의 무기였소. 그리고 훌륭한 전략가인 당신은 다 잡은 적을 스스로 놓아주고 그 계획을 저버린 것이요. 나는 목표를 다시 찾아온 것뿐이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복하려 할 때, 그들은 명예로움이 아닌 고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올 것이요. 오직 그 방법만이, 우리의 승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요.”

그는 대족장을 죽이고 싶었다. 그는 막고라를 선언해 호드와 얼라이언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가 피를 흘리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옳았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처음부터 그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사울팽은 그 상처를 주는 데 실패했다. 말퓨리온의 기적적인 생존은 얼라이언스 군대에 퍼져나가 그들이 축복받은 종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날 터였다. 그것은 사울팽이 군대를 이끌고 잿빛 골짜기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해진 사실이었다. 언제나처럼 생명이 갈려 나가는 것, 보잘것없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 중국에는 슬픔만이 남는 것, 그리고 자손들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은 사울팽이 가장 염려하던 것이었다. 이번에도, 실바나스는 사울팽보다 앞서나갔다.

그래서...

그녀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착 상태로 끝날 전쟁이 아니었다. 이제는 아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승리와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룩타르 오가르. 불에 탈 도시는 다르나서스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양 진영의 희생은 이 끔찍한 행위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의 무게는 온전히 사울팽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매 순간이 악몽이 될 것이다.

실바나스는 다시 세계수를 향해 돌아서서 불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울팽은 화염이 도시와 주민들을 삼키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여기서 고개를 돌리는 것은 스스로 명예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팽은 샤프라스를 떠올렸다. 그 당시, 사울팽은 그 소리를 즐겼다.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우자, 그는 스톱윈드를 떠올렸다. 주변의 모든 건물이 불타 쓰러지는 동안, 그는 도시의 길을 누비며 겁에 질려 목숨을 구걸하는 인간을 사냥해 가차 없이 학살했다. 그때, 그는 학살을 즐겼다.

그리고 그는 이번 전쟁도 즐겼다. 그렇지 않은가?

사울팽은 몇 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비명이 사그라들고 화염이 주민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한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나무가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채 연기를 뿜으며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절망과 수치로 가득했다. 이제는 공포심을 달래줄 일말의 타락도 남아 있지 않았다.

사울팽은 그의 꿈속에서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는 이 수치심을 떨쳐낼 테지만, 새로운 수치심이 반복해서 그를 엄습해올 것이다.

‘그대는 호드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 말퓨리온이 남긴 말이다.

사울팽은 자신이 직접 전쟁으로 이끈 병사들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한단 말인가? 그들이 저지른 짓을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짐은 그의 것이 되어, 그가 죽는 날까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사울팽은 돌아서며, 어서 그날이 오기를 희망했다.

CREDITS



NOVELLA CREATED BY:

Alex Afrasiabi, Hector Bolanos, Caroline Wu Bonti,
Robert Brooks, Michael Carrillo, Sean Copeland,
Steve Danuser, Keith Ewing, Cate Gary, Adam
Heine, Erik Jensen, Julie Kimura, Christi Kugler,
Brianna M Loftis, Allison Monahan, Ken Murayama,
Justin Parker, Glenn Rane, Chris Robinson,
Robert Simpson, Varnish Studio, Inc.

SPECIAL THANKS:

World of Warcraft Team
Story and Franchise Development
Creative Services
Localization and Quality Assurance